

2016년도 교원연수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초등]

- 일 시 : 2016.8.1(월)~8.5(금) 09:30~16:20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임광빌딩 본관 11층)



## 2016년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강의 세부 일정(초등)

날짜	교시	강의주제	강사
2016년 8월 1일 (제1일)	9:20~9:30	등록 및 개강식	
	9:30~12:20	1교시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	김정인 (춘천교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전근대 한일관계사	윤세병 (유성생명과학고)
8월 2일 (제2일)	9:30~12:30	1교시 중국 북방 민족은 어떻게 살았을까	김장구 (동국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문화로 본 일본 근대사	박삼헌 (건국대)
8월 3일 (제3일)	역사유적지 답사: 북촌기행 - 서울 북촌 일대 유적지 답사		이수일 (연세대)
8월 4일 (제4일)	9:30~12:20	1교시 조선과 동아시아의 전쟁	강석화 (경인교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역사 속의 독도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8월 5일 (제5일)	9:30~12:20	1교시 중국 초등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수업활용 사례 발표 I	이난영 (의정부 용현초)
	16:20~16:30	수료식	



## 〈 목 차 〉

-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 ..... 09  
김정인 (춘천교대)
- **전근대 한일관계사** ..... 29  
윤세병 (유성생명과학고)
- **중국 북방 민족은 어떻게 살았을까** ..... 47  
김장구 (동국대)
- **문화로 본 일본 근대사** ..... 65  
박삼헌 (건국대)
- **조선과 동아시아의 전쟁** ..... 77  
강석화 (경인교대)
- **역사 속의 독도** ..... 87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 초등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 115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 **수업활용 사례 발표 I** ..... 125  
이난영 (의정부 용현초)



#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

김정인 (춘천교대)



#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

김정인 (춘천교대)

## 1. 한국사로부터 동아시아사로의 여정

처음 동아시아사를 접한 것은 2003년 봄,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 참가하면서부터였다. 그 때까지 20년 가까이 한국사, 특히 일제 시기 전공자로서 충실히 한국사 의 시야에서 1910년부터 1945년을 연구했다. 하지만, 중국, 일본 학자와 만나면서 한국사만 연구해서는 알지 못하는 동아시아사적 진실이 많다는데 놀랐다. 부끄럽지만, 중국사나 일본사가 한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1910년대 역사를 꼽으라고 하면 세계사로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한국사로는 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비밀결사운동 등이 생각난다. 학생들도 알고, 전공자도 아는 사건들인데 다만, 전공자가 더 깊이 안다는 차이점이 없었다. 그런데, 한중일 동아시아 역사를 함께 놓고 보니, 새롭게 알게 되는 역사적 진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1910년대에 한국인의 만주 이민이 잠시 주춤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이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일본인이 만주로 몰려 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는 알 수 있었다. 한국사와 중국사가 맞물려 있던 경우였던 것이다. 더욱 부끄러운 건 1910년대 한국을 지배한 일본사에 대해서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1910년대 무단통치가 1920년대 문화통치로 바뀐 데는 3.1운동의 영향도 있지만, 1910년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도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 일본 학자와 함께 “미래를 여는 역사”와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은 스스로 한국사 전공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사 전공자의 눈으로 한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자각과 반성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쓰는데 큰 자극이 되었다.

동아시아의 눈으로 한국사를 보면 정말! 달리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사의 진실이라고 배웠던 것이 동아시아사의 차원에서는 정말 진실일까 고민하게 된다. 역사의 진실은 오직 하나라는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나에게 동아시아사란 많은 역사적 사실을 더 넓은 깊게 탐구 하며 조심조심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는 길을 열어 준 길잡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눈으로 새롭게 주목하게 된 한국사 진실의 사례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2. 현모양처, 양처현모, 현처양모

서구 문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제일 먼저 여성에게 찾아온 변화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재해석이었다. 국가는 물론 지식인들은 보통의 일반 국민과 국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근간으로 학교 교육에 주목하는 동시에 가족 역시 국민과 인재를 육성하는 장으로 인식하면서 여성에게 미래의 국민을 길러낼 어머니이자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아내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이러한 근대 여성상을 ‘현모양처’라 부른다.

3국 모두 근대 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현모양처상이 부상했다.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선진적이고 선구적으로 유교적 여성 규범을 비판하며 ‘여자도 사람이다’라는 평등적 안목에서 일부일처의 대등한 부부상과 단란한 가족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틀 안의 바람직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대세였다. 남자와 같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술과 기예를 익혀 남편을 보조하는 아내와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어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상을 양처현모라고 불렀다. 일본에서는 전근대사회부터 어머니보다는 아내의 역할을 중시했는데, 그 비중이 근대적 여성상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처와 현모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온순정순화순 등의 전통적인 가치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어머니 상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아동을 키우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며 학식에 바탕을 둔 어진 어머니의 상을 제시했다. 여성교육론자들은 학식을 지닌 아내가 있는 가정이 원만하고 자녀가 잘 자라므로 여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렇게 현명한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아이는 삼강오륜을 따르고 충군애국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유교 덕목과 근대적 시민 덕목을 절충한 국민의 양성이 바로 어머니의 몫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형제간의 화목과 종족 간의 화합을 위한 좋은 아내의 상이 덧붙여져 한국에서는 현모양처가 탄생했다. 중국에서도 여성교육의 초점은 남편을 조

력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로 모아졌다. 장래의 현모·현부(賢婦) 배양을 내세우는 여학교도 등장했다. 1907년에 제정된 ‘여자사범학당장정’과 ‘여자소학장정’에서는 현명한 아내와 좋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현처양모를 여성교육의 방침으로 내세웠다. 그 목표는 수기치가(修己治家)와 애국심을 양성하는 데로 모아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시 유교적 덕목과 근대 시민적 덕목을 절충한 여성상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처현모(일본), 현모양처(한국), 현처양모(중국)이라는 동아시아의 근대적 여성상은 동아시아 근대 사상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가치와 근대 시민적 가치를 절충·혼용하는 궤적을 밟으며 형성되어갔다.

### 3. 요동치는 바다, 전쟁을 부른다

대한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두 전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모두 서해에서 발발했다. 1894년 7월 일본은 경기도 풍도 앞바다에서 청의 군함을 공격하며 청일전쟁을 도발했다. 그들이 내세운 개전의 목적은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며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청과 싸워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불온한 전쟁을 일본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전쟁이라 불렀고, 일본의 대표적 근대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과 야만의 싸움이라 주장했다. 천황이 히로시마에 대본영을 차리고 직접 지휘하던 일본과 되도록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청과의 싸움은 평양 교전을 거쳐 9월의 서해 해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대파하면서 종결되었다.

10여년이 흐른 1904년 2월 일본함대가 뤼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인천항에서 교전을 벌여 두 척의 러시아 함선을 격침시키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발본색원하지는 주전론에 휘말리며 전쟁을 지지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개전 직전 대외 중립을 선포했다.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대를 한반도에 상륙시켜 전쟁터로 만들었다. 대한제국과 함께 중립을 선포한 중국의 만주 지역에서는 러일 군인보다 더 많은 중국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러일전쟁은 1905년 5월 일본 해군이 아프리카를 도는 오랜 항해에 지친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동해에서 괴멸시키면서 끝났다.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 열도(중국어 다오위다오)는 현재 일본 영토로 되어 있다. 이 지역은 본래 중국 땅이었다. 명에서 1403년 출간된 책에 처음 등장한 이래 1863년에 청이 제작한 지도에는 푸젠 성에 부속한 다오위다오 군도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중국 영토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895년에 주인 없는 땅이라며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 군도를 자국이 위임통치하는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었고, 1972

년 오키나와의 반환 이후에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 타이완도 고유영토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해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북방 4개 도서(남쿠릴열도의 하보마이, 시코탄, 이투루푸, 구나시리)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이다.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지배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남부 사할린까지 차지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소련은 사할린은 물론 쿠릴열도 전체를 점령했고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획득한 정당한 영토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4개 섬 전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독도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무주지라며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한 한국의 고유 영토다. 무엇보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최근 일본은 종전의 무주지선점론에서 고유영토론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무리한 역사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대일 담화문에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담겨 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 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제국주의화 과정은 곧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에서의 전쟁과 영토 분쟁을 낳았으며 오늘날까지 그림자를 드리우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 4. 외교, 총성 없는 전쟁

1901년 8월 22일 대한제국 이완용 총리대신과 일본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 간에 체결된 한국 병합조약이라는 하나의 외교 문서로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외교주권을 박탈당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긴 했지만, 참으로 허망하게 찾아온 국망이었다.

일본이 타이완처럼 군사 침공을 하지 않고도 한일병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이은 청일

전쟁과 러일전쟁 승리를 발판으로 대한제국 강점의 국제적 승인에 외교력을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대한제국 강점은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가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독일 등의 외교 사절들을 불러 모아 사전 통보하고 곧바로 양해 받을 만큼 간명한 사안이 되어 있었다.

1905년 외교주권을 상실한 후 대한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들은 정치가 아니라 다분히 운동적인 것이었다. 고종은 을사보호조약 체결 직후, 대한매일신보에 서구 열강이 대한제국이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907년에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을 비롯한 3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호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와 이를 묵인하는 서구 열강들로 인해 회의 참석조차 불가능했다.

이렇듯 일본은 전면적 군사 침략이 아니라, 먼저 외교주권을 빼앗은 뒤 서구 열강에게 강점을 양해받는 과정을 거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했다. 한일병합이 공식 발표된 1910년 8월 29일, 서울 거리는 평온했다.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뒤, 연합군총사령부에 의해 외교주권을 박탈당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 종결을 상징하는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은 강화조약임에도 패전국인 일본에 전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았다. 당사자인 일본조차 관대하다고 평가한 조약이 체결된 데에는 미국의 대일정책의 영향이 컸다. 미국은 냉전시대를 맞아 일본을 응징하기 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시아의 반공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재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대외적인 호조건과 함께 일본의 외교력도 일본에게 흡족한 조약을 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본 외무성은 비록 외교주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패전국으로서 장차 연합국과 맺게 될 강화조약에 철저히 대비하여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을 지켜본 주일 외교관 나일스 본드는 “일본은 위대한 국가였으며 훌륭하게 훈련된 공무원 조직과 세계 최고의 외무성을 보유했다”고 회고했다.

대일강화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부상했다. 1947년 미국 국무부가 처음 만든 대일강화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1949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직무대리인 시볼드가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뀌었다. 결국 대일강화조약 영토 조항에서는 독도가 빠졌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일본의 외교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일본은 1947년에 연합국에 독도는 물론 울릉도도 일본령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팸플릿은 대일강화조약 체결 시점인 1951년 8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55개국이 초청되었다. 하지만, 최대 피

해국인 한국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방청석을 지키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영국과 함께 일본이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국은 자신들이 상대한 교전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소련에 패한 것이지, 한국에 항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국제 사회에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주장을 거듭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나라로서 일본의 모든 부채는 이로써 청산되었으니 배상은 필요없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조약을 통해 식민지화했으니, 1905년 이후 맺어졌던 모든 조약은 정당하며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역시 정당하다.’ 일본은 1947년 팸플릿 조작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관련된 허위 사실은 물론 모욕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제시했고 불행하게도 협상 당사자들은 이것들은 신뢰하고 수용했다.

### 5. 3.1운동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

3·1운동, 그 시위의 한 복판에 선 한국인이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아, 일본의 폭압적 독재 하에 숨죽이고 있던 우리 모두는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하나의 민족이었구나!’ 그렇게 한국인을 감동시킨 3·1운동을 과연 타자인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세계가 모두 한국인의 독립 투쟁에 감동하며 지지했을까. 세계가 제국주의와 식민지로 분할되어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영국 등 서구 열강은 한국인의 독립투쟁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란이라는 관점에서 3·1운동을 바라보았다. 3·1운동을 한국인의 독립투쟁으로 높이 평가한 것은 제국주의에 신음하는 식민지, 그리고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민족이요 나라들이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3·1운동을 다르게 읽었던 것이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한국에 거주하던 서양인들은 한국인의 독립 투쟁 양상보다 일본의 잔혹한 탄압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선교사가 경영하는 병원 근처에서는 머리채를 잡혀 끌려온 소년 2명이 머리카락을 전주에 매인 채 소방관에게 심한 매질을 당한 뒤 감옥에 갇혔다” 등 끔직한 사건들이 가득했다.

3·1운동 중에서 서양인과 서양 언론이 가장 주목한 것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었다.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공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나자, 직접 현장 조사를 한 뒤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서양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렸다. 제암리 학살 사건에 알려지면서, 미국 상원에서는 “미합중국 상원의원은 한국인들이 스스로가 선택하는 정부를 위한 열망에 동정을 표하는 바이다”라는 결의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잔학상에 대한 서양 열강의 조치는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제국주의 국가로서

같은 배를 탄 일본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정부는 3·1운동을 공식적인 외교 문제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인도적 차원의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을 마무리 짓기 위한 평화회담으로서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열린 파리강화회의. 서양 열강과 일본이 함께 한 이 협상 테이블에서 비록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제암리 학살 사건을 비롯한 3·1운동 탄압 과정에서 드러난 잔학상은 일본 대표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일본은 ‘문명 세계가 일본의 야만성에 대해 강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치욕스러운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서양 열강에게 3·1운동은 억압받는 약자의 정의로운 항거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란이었다. 또한 수많은 한국인의 희생은 인도적 차원에서 공감하고 분노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외교 카드였다.

중국도 국망의 위기감 속에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저지하고자 했던 것은 일본의 산둥반도 장악이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빼앗은 산둥반도를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때 3·1운동이 터진 것이다.

중국인은 한국인의 독립투쟁에 환호했다. 베이징대 교수 천두슈는 3·1운동에 대해 ‘위대하고 간절하며 비장한 동시에 명료하고 정확한 관념을 갖추어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선인과 비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끄러워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중국의 무기력한 현실을 개탄했다. 베이징대 학생 푸쓰넨은 3·1운동의 교훈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비폭력 혁명이었다는 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한 혁명이라는 점, 순수한 학생 혁명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그리고 중국인의 무장 해제된 정신 상태를 맹렬한 비판했던 그는 마침내 5·4운동을 이끌어냈다. 1919년 5월 4일에 뿌려진 〈베이징 학계 전체 선언〉에는 3·1운동에 대해 이런 언급이 나온다. “한국인은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

이렇게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던 중국인들은 일본의 잔혹한 탄압보다는 3·1운동을 비폭력의 거족적 투쟁으로 승화시킨 한국인의 저항 정신에 관심을 보였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1919년의 봄, 한국인에게는 격동과 감동의 시간들이었지만, 세계는 자신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바라보고 있었다. 일본의 태도는 어땠을까. 일본 언론은 3·1운동을 일부 종교인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고 보도하면서 무력 탄압을 비호했다. 조선인을 ‘폭도’라 부르며 일본인의 피해를 과장해 보도했다. 하지만, 시위대에 의해 죽은 일본인 민간인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

## 6. 따로 또 같이 : 제국과 식민지의 사회운동

20세기 전반의 한국사는 일본의 식민지배 대 한국인의 독립운동, 즉 수탈 대 저항으로 구성된다. 둘은 마치 절대 섞이지 않고 따로 노는 물과 기름 같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현실이 그렇게 단순할까? 물론 아니다. 저항운동조차 일본의 사회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수평사와 형평사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에는 부락민으로 불리는 천민이 존재했다. 1871년의 제도적 해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민 대우를 받던 부락민들이 모여 1922년 전국수평사를 결성했다. 이후 각지마다 수평사가 설립되고 차별 규탄 투쟁이 일어났다. 1923년에는 청년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수평운동세력은 불세비키파와 반불세비키파로 분열했다. 불세비키파는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정부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며 불세비키파 지도부를 체포하고 사회적으로 반수평운동이 확산되는 위기에 처하자 수평운동세력은 다시 합쳤다. 1931년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계급 투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평사를 해소해야 한다는 해소론이 등장했다. 이후 수평사는 점차 융화=동화정책에 협력하는 관변단체로 변질되어갔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수평운동의 소식을 들은 백정 출신 유지와 지식인들이 1923년에 진주에서 형평사를 만들었다. 백정 출신들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한 제도적 해방에도 불구하고 인습적 차별에 고통 받고 있었다. 형평사는 창립 1년 만에 68개 지사와 분사를 갖춘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1924년에 사회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급진파가 등장하면서 분열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반형평운동이 번져가자 다시 뭉쳤다. 급진파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1931년에는 형평사 해소론이 제기되었다. 형평사는 소부르주아집단이니 해소하고 각 지역의 형편에 따라 노동조합 혹은 농민조합을 조직하지는 것이다. 1933년에는 형평청년전위동맹사건으로 급진파가 검거되었다. 이후 형평사는 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 변질되었다.

일본 '제국 권력' 하에서 수평사와 형평사가 걸었던 길은 흡사하다. 수평사와 형평사 간의 연대 활동이 미미했음에도 둘이 거의 같은 길을 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의 현실은 다르다. 일본 수평사는 1941년에 정부의 해산 요구에 따라 사라졌다. 조선 형평사는 1935년 친일융화를 표방하는 대동회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일본에는 지금도 부락민이 존재하고 부락 해방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는 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평운동은 실패했고, 형평운동은 성공한 것일까? 식민지민은 제국 권력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소수자다. 백정 출신은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소수자다. 결국 백정 출신은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었다. 민족주의는 그들을 함께 독립을 쟁취해야 할 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민주주의는 그들을 만민평등의 인민으로 품었다. 그렇게 백정 '해방'은 관철되었다. 일본의 사정은 달랐다.

식민지를 포함한 제국 전체의 위계 질서 위에 군림하는 제국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부락민 차별은 극복될 수 없었다. 부락민은 동화의 대상일 뿐, 해방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패전으로 제국이 해체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부락 해방 문제를 외면하면서 지금도 일본에는 차별받는 천민이 살고 있는 것이다!

식민모국이란 말이 있다. 실제 식민지는 제국의 영향 아래 움직인다. 그렇다고 제국과 식민지가 완벽히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역사에 '반일 대 친일' 잣대만을 들이대려 한다면, 진실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이다.

## 7. 반일과 항일 사이

2012년 만주사변(1931)의 발단이 된 야나기조코 사건이 발발한 지 81주년이 되는 9월 18일, 중국에서는 50개가 넘는 도시에서 대대적인 반일 시위가 벌어졌다. 야나기조코 사건이란 당시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남만주철도를 일본군 스스로 폭파한 뒤 중국군에게 뒤집어씌운 사건을 가리킨다. 중국인에게 이 날은 국치일이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가 촉발한 중국인의 반일 행동은 일회성 시위를 넘어 일본 기업에 대한 공격과 약탈, 나아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번졌다. 실제 2012년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매출이 급감했고 항공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인은 일상 속에서 늘 항일의 기억을 곱씹으며 살고 있다. 중국 드라마의 최대 화두는 사랑이 아니라 항일이다. 대개의 드라마가 일본 침략에 맞서 싸우는 공산당의 활약을 음모와 배신, 액션을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황금시간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 드라마 속의 일본은 난징대학살, 일본군위안부, 731부대의 인체 실험 등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는 흉악한 적이다. 이렇게 중국인의 반일 정서는 일본과의 전쟁 경험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극대화된다.

1995년 8월 15일, 한국은 대대적으로 광복 50주년을 기념했다. 이 날의 키워드는 민족대화합이었다. 남북공동으로 8·15 대축전이 열렸고 통일축구가 열리는 경기장에는 한반도기가 물결을 이뤘다. 36년 간 일본 치하에서 받았던 고통을 상기하거나 일본을 경계하는 일은 부차적인 관심사였던 광복 50주년이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한 8월 15일을 그저 종전일로 기념할 뿐이다. 이보다는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서 완전 축출한 9월 3일을 항일승전기념일로 기념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치른다. 2005년 9월 3일에는 후진타오 주석의 주재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일승전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기념식에는 항일전쟁에서 싸웠던 한국, 북한,

러시아, 미국 등 20여 개국의 참전용사들과 200여명의 유족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그렇게 아직도 항일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면하며 오늘을 산다.

전쟁을 겪으며 일본과 적으로 맞섰고 항일승전을 기념하는 중국인, 식민을 겪으며 일본의 지배를 당했고 광복을 기념하는 한국인. 양자 모두 일본 침략 야욕의 피해자이지만, 반일 정서의 결은 전쟁과 식민의 경험의 차이 만큼이나 다르다. 중국인은 지금도 일본군에 의해 가족과 동족이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기억하고 치를 떤다. 중국인에게는 일본이 아직 '적'이라는 정서가 남아 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선진문물을 전해 받고도 노략질을 일삼고 왜란을 일으킨 일본을 배은망덕한 오랑캐로 여겨왔다. 근대 이후에는 일본이 근대화에 앞서면서 한일 간의 역관계와 선진문물의 전달통로가 역전되었다. 그로 인해 식민 경험은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과 저항의식이 결합된 반일 정서를 낳았다. 그렇게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반일 정서를 갖고 있다면, 중국인은 일본에 대한 적대 의식으로 충만한 '항일' 정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외견상 중국인의 반일 정서가 더 격렬하고 과격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일본이 패망 한 직후 중국과 한국의 최대 현안은 친일파(중국에서는 한간이라 칭함) 청산이었다. 중국의 친일파 청산에서는 그 당위성을 놓고 개인과 집단, 계급과 계층에 따른 이견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내 눈앞에서 가족과 동족을 죽인 적국 일본에 협조한 반역자는 응당 처단해야 마땅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감대에서 공산당과 국민당 모두 적극적으로 친일파 처벌과 재산 몰수에 나섰다. 반면 식민으로부터 해방된 한반도에서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에 친일파를 청산했고 남한은 결국 실패했다. 친일파 청산은 친일 행위에 대한 단죄와 함께 재산 몰수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아무리 인민의 친일파 처단 요구가 높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식민 경험 속에서 성장한 지주자본가 계급과의 계급투쟁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화를 추구한 북한은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조치 등을 통해 친일파의 물질 토대를 일소했다. 남한에서는 반공 이념으로 무장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친일파를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이 비호하면서 계급혁명은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는 친일파 청산의 좌절을 타하며 곧잘 프랑스의 철저한 과거 청산 사례를 거론한다. 그것은 프랑스 역시 중국처럼 전쟁 경험에 기원하는 과거 청산이었으므로 철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간과한 단순비교다. 경험이 다르고 그에 대한 기억 방식이 다르면 경험과 기억의 청산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중국과 한국의 반일 정서가 다르게 표출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 8. ‘휴전평화’의 비극, 한반도 분단

지금 세계의 역사교육은 근현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20세기 역사에 집중하는 추세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마다 한국전쟁을 언급한다. 냉전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열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냉전의 시대가 왔건만, 한국전쟁은 아직 종전과 평화를 선포하지 않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유일한’ 전쟁으로 기억한다.

한국인에게도 한국전쟁은 휴전 중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정전이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춘다는 뜻을 갖고 있다. 또한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기구가 개입하여 전투 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전은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강화조약 혹은 평화조약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쟁에서도 협정 체결로 전투 행위가 완전 중단되었으니, 정전협정이라 부르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휴전협정이라 부르고 있다. 휴전이 이승만의 호전적인 북진통일론에서 나온 이념적 개념이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953년 7월 27일, 그날로 돌아가 세상을 살피면, 분단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정서가 휴전이란 말에 고스란히 배여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37개월 간 한반도에 진동하던 포성이 멈췄다. 하지만,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다음날 정전협정 조인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의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 땅에 언제 통일이 오려는가?, 피의 대가는 굴욕적 휴전, 이제 눈물도 피도 마를 겨레의 비분.’ 서울 사람들은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을사조약을 떠올렸다.

굴욕적 휴전은 기어코 조인되었다. 원한의 날 4286년 7월 27일 오전 10시. 이날이 오지 않기를 위하여 전 국민들이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상이군인들까지도 목이 터지도록 눈물이 마르도록 외친 휴전반대 국민운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고난의 구렁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때마침 월요일 본사 숙보관 앞에 멈추는 시민 발자국은 무겁다. ‘굴욕적 휴전 협정 조인’의 여덟 글자를 보는 눈동자들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는다. 을사조약을 예상시키는 이날 수도의 슬픔은 한없다.

한국전쟁이 남북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전으로 확대되면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건만, 한국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울분이 느껴진다. 휴전 반대 운동을 단순히 이승만 정부가 주동한 관제 데모라고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동아일보>는 임시 수도였던 부산의 거리 소식을 전했다.

벽보 앞에 운집한 시민들은 휴전 조인 보도에 비상한 관심의 눈초리를 집중한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말았다는 허전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가 하면 이젠 환도(서울로 돌아감)의 보따리를 싸야 되겠다는 등을 중얼거릴 뿐 무표정의 그것에 별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아스팔트를 녹일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시내 송도해수욕장에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언제나 다름없이 전쟁도 잊은 듯이 바다를 즐기고 있었다. 국제시장을 비롯한 각 상가에서도 장거래가 활발히 계속되고 모든 생산공장에서도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에게도 못지않게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거늘, 오늘의 휴전평화는 앞으로 더 무서운 비극이 닥쳐올 지도 모르는 공포와 불안감을 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우리 민족이 희구하는 진정한 평화는 잃었던 강토와 잃었던 민족을 찾고 통일된 한국을 이룩함에서 시작된다. 우리 민족이 휴전 반대를 절규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러기에 앞으로 더 무서운 비극을 자아낼 절망 속의 휴전평화이기에 시민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세계인에게 정전협정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현상유지를 의미했지만, 한국인에게 언젠가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하는 불완전한 평화를 의미했다. 그래서 정전 ‘현상’을 휴전의 ‘정서’로 받아들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정전협정에 대해 근본문제의 해결을 잠시 유보한 것이라 평가하며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인도적이고 거대한 희생이 참으로 의의를 빛내려면 금후의 조치 여하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954년 4월에 한국전쟁의 후속조치로 남북을 비롯한 19개국 외상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을 논의했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충돌하고 유엔의 역할을 놓고 진영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 후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 한반도에는 불안한 휴전평화가 이어지고 있다.

## 9. 일장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심훈이 읊조렸듯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날’,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울려 퍼진 일본 쇼와 천황의 항복 방송에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건물 높이 휘날리던 일장기는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9월 10일에야 개양대에서 사라졌다.

한국인에게 일장기는 여느 나라의 국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거기엔 늘 일본의 식민 지배의 쓰라린 기억이 투사된다. 그 불편한 기억의 한편엔 일장기말소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1936년

8월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치러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 선수는 1등, 남승룡 선수는 3등을 차지했다. 이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 1936년 8월 25일 자에는 ‘조선의 피를 끓게 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이 실렸다. 가슴팍에 있던 일장기가 지워진 채로 말이다. 이 일장기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간 처분을 받았고 사회부장 현진건을 비롯한 8명의 사원이 구속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무엇보다 ‘조선이 일본에 승리하여 마치 조선 독립의 기초가 이루어진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음을 경계했다. 이 통쾌한 기억은 곧 일장기=일본의 식민 지배=악이라는 등식을 통념화하는데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

1960년 11월 6일 효창공원 안 국제축구경기장에서 한일 축구 국가대표팀 간에 월드컵 예선전이 벌어졌다. 1962년 칠레에서 열릴 제7회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예선전이였다. 애초 정부는 해방 이후 1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최초의 한일 축구전을 불허했다. 당시 한일 정부가 재일동포 북송 문제로 갈등하고 있기도 했지만, 식전행사의 일장기 계양과 일본 국가 연주가 민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결국 정부는 경기를 불과 1주일 앞두고 국무회의를 거쳐 친선경기가 아니라 국제대회의 예선전이란 이유로 개최를 허가했다. 경기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라는 조건이 붙은 까닭에 대한축구협회는 급히 좌석 공사에 착수해야 했다. 문제는 심판이었다. 국제축구협회가 요청한 필리핀 심판 3명이 한국의 초청이 너무 늦었다며 불참을 통고했다. 이 소동은 일본 축구팀이 3명 모두 한국 심판을 써도 좋다고 양해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어렵사리 열린 한일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전례 없이 비싼 입장료에도 1만 3천여 좌석은 만원사레였다. 경기장 밖 언덕 위에도 뻗뻗하게 1만 명이 몰려들었다. 각각 붉은 색과 푸른 색 선수복을 입은 한국팀과 일본팀이 입장하자, 대한축구협회장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개회를 선언했다. 마침내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일장기가 계양되는 순간이 왔다. 식민 지배를 기억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일장기가 계양되던 1분이란 짧은 시간의 정적과 긴장감,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경기는 한국의 2대1 승리로 끝났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것이다! 남다른 감회와 기쁨에 나라가 들썩였다.

당시 정부가 일장기 계양에 국민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두 달 전인 1960년 9월 6일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코사카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의 공식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공식 사절단이긴 하나, 여론을 이유로 정부는 김포공항에 일장기를 내걸지 않았다. 의전행사도 생략했다. 사건은 코사카 일행이 숙소인 반도호텔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다. 20대 청년 30여명이 트럭을 타고 나타나 “36년간의 침략행위를 사과하라”, “교포 북송을 중지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다가 코사카 외상이 탄 승용차의 일장기를 훼손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일회담반대투쟁이 한창이던 1964년과 이듬해에 시위대가 일장기를 소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일본정부에게 일장기소각사건은 직접 조사에 나설 만큼 예민한 문제였다. 한일 간에 국교

가 재개된 이후로도 공식적인 일장기 게양에는 여론을 살펴야 하는 수고로움이 뒤따랐다. 1945년 9월 10일로부터 딱 37년 4개월이 지난 1983년 1월 11일, 예전의 조선총독부 건물에 들어선 중앙청에 태극기와 함께 처음으로 일장기가 게양되었다.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공식 방한을 맞아 내건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전한 신문기자의 소회는 이렇다. ‘한국을 강제 지배하면서 그 상징으로 세운 중앙청에 또다시 그들의 국기가 나부끼는 것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가슴은 착잡하기만 하다.’

지금도 반일시위에서 종종 일장기를 불태운다. 중국의 격렬한 반일시위에서도 일장기가 소각되고 있다. 일본의 한류 열풍 못지않게 한국에서 일류(日流)가 유행하고 있지만, 일장기는 아직도 일본 국기라는 본연의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는 일본과 여전히 친일=악의 반일=의식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국, 누구 때문일까?

## 10. 일본의 역사세탁과 동아시아

2014년 12월 5일 자 뉴욕타임즈 사설의 제목이다.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일본의 우익 정치세력들은 아베 신조 내각에 고무되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수치스러운 역사, 즉 일본군이 수천 명의 여성들을 전시 위안소에서 일하도록 강제동원한 역사를 부인하기 위한 협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뒤이어 뉴욕타임즈는 일본 아베 정부가 전쟁 역사를 미화하는 우익에 영합하기 위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아베 정부와 우익의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역사세탁이라고 일갈했다. 2014년 12월 8일 자 워싱턴포스트에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다. 첫 대목이 “Japan is working hard at forgetting”로 시작되는 칼럼의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Will Japan’s habit of rewriting its history affect its future? 이 칼럼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잔학 행위를 지우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이런 역사 왜곡이 계속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언론에 이어 정치인도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지우기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2014년 12월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살아왔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변명의 여지는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아베 정부의 행보는 세계적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993년 일본의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은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과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아베 정부에 고노담화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 동원 자체를 부인하는데 있어 크나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아사히 신문이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보도가 오보였음을 고백했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요시다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고 있었기에 새삼스러운 것이 없는 발표였다. 하지만, 아베 정부에겐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었다. 아베 정부의 역사세탁 시도는 나라 밖까지 뻗어갔다. 일본 외무성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일본 인권 대사인 사토 구니는 1996년에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유엔 보고서를 작성한 쿠마라스와미를 만나 보고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쿠마라스와미는 충분한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고 작성한 보고서라며 이를 거부했다.

세계가 묻는다. 일본은 이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대답은 한결같다. 아베 정부는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 동원을 인정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지우지는 않겠으나 지우고는 싶다는 아베 정부의 모순적 행태는 그래서 불장난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2014년 12월 13일 일본이 세탁하고자 하는 또 다른 전쟁 기억인 난징대학살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잘라 말했다. ‘역사를 망각하는 것은 배신행위다.’ 일본의 역사세탁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공세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는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난징대학살과 관련해서는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14개 국가에서 7천여 건의 사료를 수집하고 자료집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는 난징대학살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3,361명이 유엔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의 역사세탁을 규탄했다.

## 11. 한중일 역사 대화가 남긴 의미

『미래를 여는 역사』에서 시작된 한중일 시민단체, 역사학자, 역사교사 간의 만남의 세월이 10년을 훌쩍 넘어섰다.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3국을 오가며 수십 차례의 국제 회의와 수많은 이메일을 통해 나눈 10여년의 역사 대화는 역사 인식의 바탕이 되는 각국의 역사 경험과 역사 정서의 차이를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들이었다. 동시에, 동아시아라는 틀 안에서 상호 역사 인식의 교집합을 찾아내려는 끝없는 모색의 나날들이었다.

그 성과를 정리하면, ‘만나야 친해진다’는 말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서 만남은 간단없는 역사 대화를 의미한다. 친해진다는 말은 역사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역사 대화란 곧 역사적 경험과 정서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 친해지는 과정인 것이다. 10여년을 만나는 동안, 중국 위원들과의 역사 대화에서는 오랜 세월 중화 문화권의 패자(覇者)로서 쌓아온 경험과 20세기 전반기 기다란 전쟁의 흔적, 그리고 최근 경제 부상이 가져온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일본 위원들과의 역사 대화에서는 근대 이후 제국(帝國) 형성과 그 붕괴의 격동적인 경험부터 오늘날 일본 시민운동의 경향까지, 나아가 작년 대지진의 충격의 영향도 느낄 수 있었다. 한국 위원들은 역동적인 역사 경험만큼 강렬한 열정으로 때론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고, 때론 갈등을 과감히 해결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러한 역사 대화의 경험은 넘지 못할 산 같아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 결국 넘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 즉,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역사 대화가 역사 인식 공유의 지평을 넓히는 데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를 여는 역사』에서는 삼국이 각자 자국 역사를 서술했다면,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는 각국이 장별로 나누어 집필하고 삼국이 공통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검토·수정하는 형식상의 진전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첫 만남의 성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전을 보이며 역사 인식 공유의 지평을 넓힌 사례들이 있을까. 두 번의 만남에 모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돌아보니, 3·1운동이 5·4운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란이 떠오른다.

『미래를 여는 역사』의 구상 단계에서는 목차에 3·1운동만 들어 있었다. 그 부분 말미에 3·1운동이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하자, 중국 측이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결국 논란은 초기 목차에는 없었던 5·4운동을 별도 항목으로 집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권에서는 3·1운동과 5·4운동 각각의 특징과 함께 3·1운동이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관련 자료를 제공한 측도 중국이었다. 이처럼 꾸준한 역사 대화를 통해 한중일3국공동역사위원회가 역사 인식 공유의 지평을 넓혀갔던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속적인 역사 대화의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사 혹은 민족사적 맥락에서만 이해하던 역사적 사건들을 동아시아사적인 안목, 즉 동아시아 관계사의 차원에서 재해석하도록 하는 역사의 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령, 현재의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도 한국사만이 아니라 과거 동아시아의 역사 경험 전체를 시야에 넣고 짚어 보게 되는 것이다.

아직 제대로 넘지 못한 산도 있다. 20세기 전반 식민과 전쟁의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 가해와 피해의 기억에 대해 하나의 역사상을 구성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생사의 기로에 섰던 아픈 경험에 대한 기억을 하나로 공유하는 것이 동아시아 역사 인식 공유의 핵심 의제요, 역사 대화의 최종 목표라는 사실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을 궁핍히 여기고 상대를 증오하는 역사 인식 속에 평화가 등지를 틀기 어렵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역사 갈등은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영토 분쟁과 역사 왜곡 논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청산 논란 등이 끊임없이 뉴스거리로 오르내리는 현실을 살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나라는 일국·일족 의식을 넘어 ‘우리’의 동아시아라는 역사 인식 공유를 모색하는 역사 대화는 곧 평화운동이기도 하다. 역사对话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경험하고도, 그 필요성에 심분 공감하는 것은 상대와 대화하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연대의식과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연대와 정체성은 동아시아 평화의 심리적 초석이다. 이렇듯, 역사 인식 공유는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역사 인식 공유는 지속적인 역사 대화에서 나온다. 고로, 더 많은 역사 대화 필요하다.

과거 분쟁의 경험을 가진 세계 곳곳에서 역사 대화이 이루어지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유럽의 역사 대화는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독일과 폴란드의 공동 역사 교과서 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역사 대화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10여년의 짧은 역사에 비해 적지 않는 성과를 냈지만, 동아시아 역사 전쟁의 파고는 높아만 간다. 어렵지만,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더 깊은 역사 대화에 나서기 위해 학자들이 모여 다시 머리를 맞대려 한다. 동아시아가 제각각 해방, 항전, 종전의 의미를 담아 ‘70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을 맞아 세 번째 공동 역사서를 내기 위한 한중일 역사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 불가능한 꿈이라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처럼 평화의 마중물로서의 역사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전근대 한일관계사

윤세병 (유성생명과학고)



# 전근대 한일관계사

윤세병 (유성생명과학고)

## 1. 총평

- 고대사 왜곡 심화(고대 한반도 식민지론) : 고대 중국의 지배 확대왜곡(한사군), 임나일본부, 고구려·신라의 일본 조공, 한국사를 타율적이고 정체적인 역사로 파악하는 식민사관이 노골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음.
- 메이지 시기 일본이 한반도를 선점해야 한다는 논리가 원의 일본 침략이라는 경험을 통해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진술(지유샤, 90쪽)
- 왜구는 현재의 국가나 민족의 태두리로 인식하기 힘든 집단이라는 일본 학계의 인식이 교과서 서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왜구 내 구성원에 대해서는 교과서 별로 편차를 보임.
-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선 침략'이란 단원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문 진술은 일본군을 '파견하였다'거나 '보냈다'라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음. 우익 교과서인 이쿠호샤나 지유샤의 경우에는 '조선 출병'이라는 단원명을 사용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성을 드러내지 않음(이쿠호샤 111쪽, 지유샤 119쪽). 지유샤의 경우에는 오히려 히데요시를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마저 보임(지유샤 119쪽).
- 조선통신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본 우위의 입장에서 사절을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교과서가 기술됨. 지유샤는 통신사가 '表敬 방문하였다'고 서술함(지유샤, 128쪽).

## 2. 내용 분석

### 1) 임나일본부

※ 지유사가 가장 노골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을 게재하고 있음. 다른 교과서의 경우도 영향을 받고 있음. 특히 지유사본은 검정신청본에서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수정지시를 받고 용어만 삭제하고 내용을 유지한 채 검정을 통과함.

- 임나일본부의 인정하거나 그 영향 하에 있는 교과서는 ‘임나’ 사용, 그렇지 않은 교과서는 가야 사용. 가야(가라)만 사용한 교과서는 8종 중 4개, 임나를 사용한 교과서는 2, 혼용한 교과서 2개사이다.

- 단원명 〈백제를 돕고 고구려와 싸우다〉 (지유사)

조선반도 남부에는 4세기경부터 다수의 나라가 분립한 지역이 있었다. 일본서기에는 任那, 조선 측의 칭호로는 加羅, 혹은 伽耶라 불리었다. 이 지역은 백제와 함께 일본 열도의 사람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任那는 철의 산지이며, 야마토 조정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을 수입하여 지방에 배분함으로써 국내를 통일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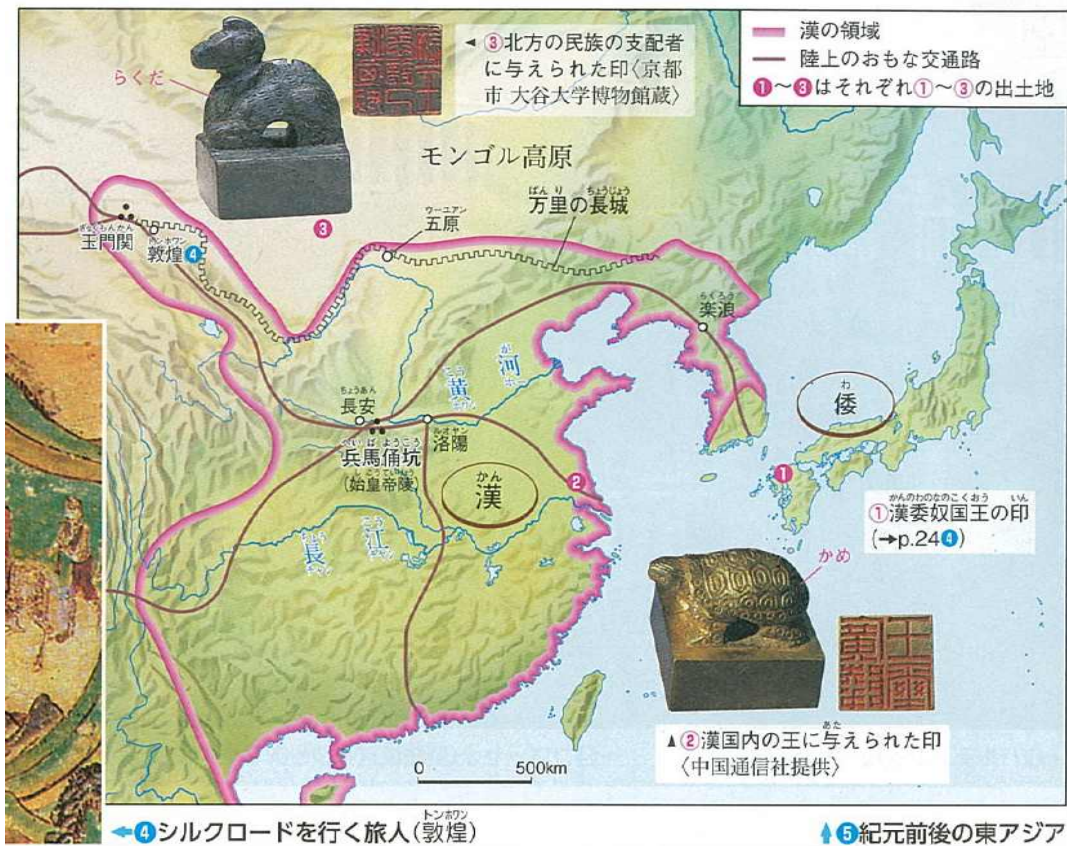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백제는 야마토 조정에 도움을 청하였다. 고구려의 광개토왕(호태왕)의 비문에는 왜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후 고구려왕이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야마토 조정은 고구려와 싸웠는데 차츰 상황이 불리해져 404년에는 조선반도로부터 철수하였다.

## 2) 고대의 영역

※ 기원전 3세기~8세기 경의 동아시아를 그린 지도에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중국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표기하고 있다. 이들 지도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 ○ 지도 〈기원 전후의 동아시아〉 (제국서원)

➔ 한의 영역이 경북 북부와 전남 서부 지역까지 영역으로 표시됨. (도쿄서적의 경우도 같은 영역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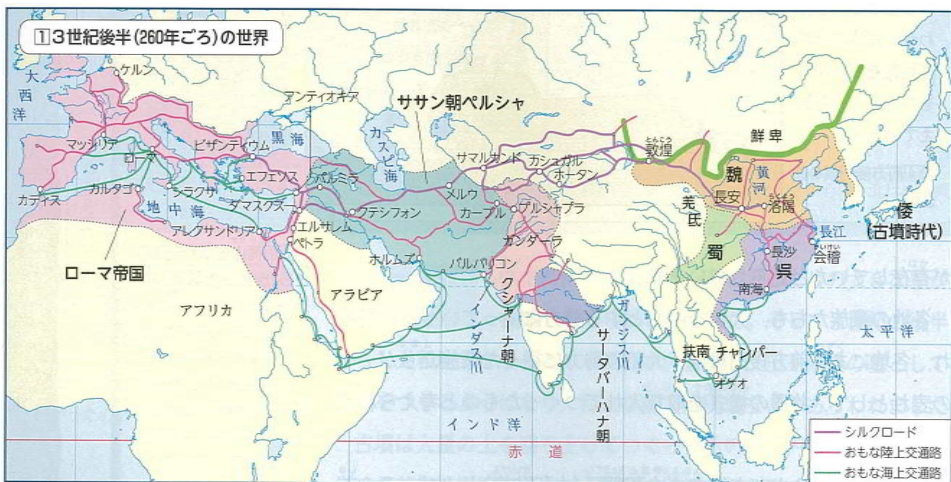
○ 지도 <3세기 경의 동아시아> (청수서원)

➔ 삼국 시대의 위가 한반도의 평안도와 황해도 경기도 일대를 장악한 것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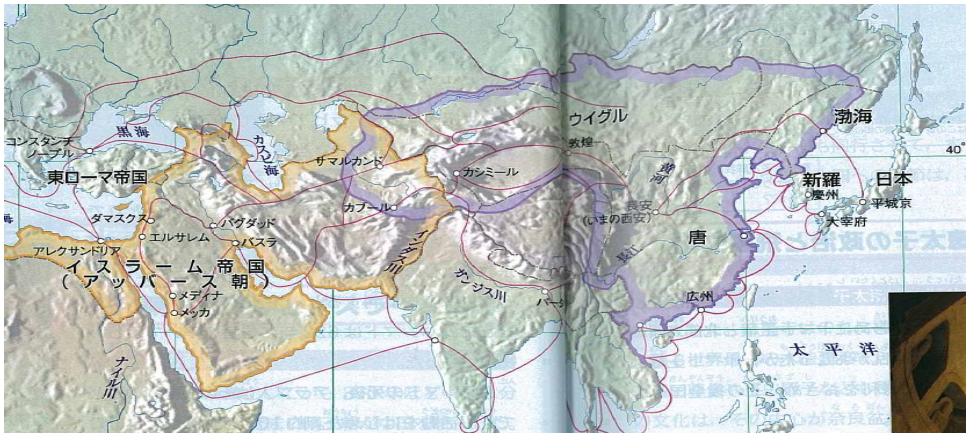
○ 지도 <3세기경의 동아시아> (이쿠호사)

➔ 삼국 시대의 위가 한반도의 평안도와 황해도 경기도, 충남 북부지역 일대를 장악한 것으로 표현됨. 고구려는 그 오른쪽에 위치함으로써 한반도의 삼남 이북 지역을 고구려(동)와 위(서)가 양분하는 모습으로 그려짐.



○ 지도 <이슬람 제국과 당 - 8세기 경의 세계> (청수서원)

- ▶ 발해의 영토와 당의 영토가 하나로 묶여 있음. 티베트의 토번은 별개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발해와 위구르는 당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



3) 만리장성 오기

- ※ 가장 진보적 서술로 평가받는 마나비사의 경우에도 진의 만리장성이 한반도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음. 기타 다른 교과서에도 비슷한 지도가 대부분 배치됨.



③ 秦の範圍(紀元前3世紀) / 万里の長城の位置と道路網。

#### 4) 몽골의 일본 공격

출판사	쪽수	내 용
교육출판	68	‘文永の役’, ‘弘安の役’ 설명. 두 차례의 원의 襲來(元寇) 용어 설명.
동경서적	76,77	‘文永の役’, ‘弘安の役’ 설명. 두 차례의 원의 襲來(元寇) 용어 설명.
이쿠호샤	78,79	‘文永の役’, ‘弘安の役’ 설명. 두 차례의 원의 襲來(元寇) 용어 설명.
일본문교출판	72,73	‘文永の役’, ‘弘安の役’ 설명. 두 차례의 원의 襲來(元寇) 용어 설명.
지유사	88,89	‘文永の役’, ‘弘安の役’ 설명. 두 차례의 원의 襲來(元寇) 용어 설명.
	90	<p><b>[심화학습] 元寇와 朝鮮半島</b></p> <p>● 조선반도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한 元寇</p> <p>고대로부터 조선반도는 대륙의 문화가 일본에 들어오는 커다란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반도로부터 대군이 공격해온 원구의 공포 체험은 일본인의 조선반도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후 메이지 시대에 정부는 ‘조선반도가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가면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라고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거기에는 원구의 체험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p>
제국서원	62,63	‘文永の役’, ‘弘安の役’ 설명. 두 차례의 원의 襲來(元寇) 용어 설명.
청수서원	73	‘文永の役’, ‘弘安の役’ 설명. 두 차례의 원의 襲來(元寇) 용어 설명.
마나비샤	73	<p>고려를 지배하에 둔 후, 원의 쿠빌라이 한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通交를 요구하였다. 조정·막부로부터의 답신이 없자 1274년 원은 약 3만명의 병력으로 쓰시마(키나가사키현)를 공격하고 규슈 북부의 하카다만(후쿠오카현)을 공격한 뒤 철수하였다. 원은 남송을 멸망시킨 뒤 1281년 다시 일본을 침략하려고 약 15만명의 병력을 보냈다. 한편 막부는 고케닌이나 그 밖의 무사도 동원하여 경비를 맡기고, 상륙이 예상되는 하카다만 일대에는 防壘를 쌓았다. 그래서 원군은 상륙할 수 없었다. 그리고 폭풍우에 의해 많은 선박이 침몰하자 원군은 철수하였다. 이러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막부는 교역선을 원에 파견하고 쿠빌라이 한도 교역을 허가하였다.</p> <p><b>【원을 공격한 가라후토(사할린)】</b></p> <p>가라후토에 진출한 아이누는 13세기 후반 40년 이상 원과의 전투를 거듭하였다. 가라후토에서 독자의 문화를 가진 선주민(기리아쿠시)이 아이누로부터 공격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자 원은 수천의 군사력의 공격하였다. 1297년에는 아이누가 역으로 바다를 건너 대륙을 공격해 원과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그 후 아이누는 원에 매년 진귀한 모피 등의 공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화약을 맺었다.</p>

**[특이사항]**

- ➡ 지유샤는 山縣有朋가 내건 ‘주권선’과 ‘이익선’의 논리를 연상시킨다. 일본의 ‘주권선’=국경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바깥 쪽의 ‘이익선’=세력권 즉 한반도를 적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 즉 조선 침략과 식민지화에 대한 합리화로 비추어질 수 있다.
- ➡ 마나비샤는 원에 의한 두 차례 공격을 설명하기는 하나 다른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文永の役’, ‘弘安の役’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일본 공격을 가리키는 ‘元寇’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방적인 침략 받은 사실만이 아니라 아이누가 원을 공격한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

**5) 왜구**

출판사	쪽수	내 용
교육출판	72	14세기에 들어서 일본과 원 고려의 국내가 혼란해지자 왜구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왜구는 마쓰라나 쓰시마, 이키(나가사키현) 등을 근거지로 조선반도나 중국의 연안을 습격하여 먹을 것을 훔치거나 사람을 잡아가지도 하였는데 이때의 왜구는 일본인이 중심이었지만 명이나 조선반도의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독특한 복장과 말을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날개) 왜구는 15세기가 되자 한때 약해졌지만 16세기에 다시 활발해졌다. 이때의 왜구는 중국인들이 중심이었다.
동경서적	80	원이 약해질 즈음부터 서일본의 무사나 상인, 어민 중에는 무리를 지어 무역을 강요하거나 배를 습격하고 대륙의 연안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이 나타나 왜구라 불렸다. (날개) 왜구 중에는 조선인이나 중국인 등 일본인 이외의 사람들도 많았다.
이쿠호샤	84,85	명을 괴롭힌 것은 대륙연안 일대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던 해적이었다. 그들은 왜구라 불렸다. (날개) 왜구는 전기(14~15세기)와 후기(16세기)로 나뉜다. 전기는 북규슈의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있으며 주로 조선반도에서 활동하였다. 후기는 그 다수가 중국인으로 규슈나 류큐를 근거지로 하면서 주로 중국의 남해안에서 약탈과 밀무역을 행하였다.
일본문교출판	80	일본에서는 남북조시대부터 규슈 북부의 섬들이나 세토나이의 무사, 상인 등이 조선과 중국이나 중국과의 무역을 하다가 때로는 해적이 되어 중국이나 중국 대륙의 연안을 습격하여 왜구라 불렸다. (날개) 왜구 중에는 조선이나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유사	96	왜구란 일찍이 원의 공격을 받은 쓰시마, 이키, 마쓰라 지방을 근거지로 하는 무장 무역 선단으로 일본인 외에도 조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때때로 수백 명에 이르는 선단을 만들어 조선반도나 중국 대륙의 연안에 상륙해 밀무역이나 약탈 행위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 대해 해적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날개) 조선 측의 사료에는 조선의 민이 일본인의 옷을 입고 무리를 지어 난폭한 짓을 하는 자가 많았으며, 왜구 안에 일본인은 10~20%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국서원	68	남북조의 내란이 지속되고 있던 14세기 중반부터 동중국해에는 왜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선과 중국을 괴롭혔다. 왜구는 마쓰라 지방(나가사키현, 사가현)이나 규슈 북부의 섬들을 근거지로 밀무역이나 해적행위를 하였다. 이때 왜구는 일본인이 중심이었는데 이 밖에도 조선인이나 중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청수서원	76	일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왜구라 불리는 집단이 조선반도나 중국의 연해 지역에 배를 타고 나타나 거래를 강요하거나 사람과 물자를 약탈하기도 하였다.
마내비사	76	<p><b>【'왜구'라 불리던 사람들】</b>  1380년 7월, 조선 서해안의 금강 하구에 무장한 한 무리가 나타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마을들을 약탈하였다. 집을 태우고 쌀과 재산을 약탈하면서 사람을 잡아갔다. 8월에는 내륙에도 침입하여 방어하던 고려의 장군을 전사시켰다. 고려와 명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왜구라 불렀다.  9월에도 왜구가 금강 상류의 산성을 공격하였다. 이중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阿只拔都라는 15~16세의 청년이었다. 아지발도는 상대가 싸우는 것을 피할 정도로 용감하였는데 고려의 무장 이성계의 강한 활에 의해 쓰러졌다. 이 청년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동중국해에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바다를 생활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다.</p> <p><b>【조선 왕조의 성립】</b>  14세기 후반은 왜구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였다. 남북조 내란의 영향도 있어서 유력한 영주나 惡黨 등도 약탈을 하였다. 이때 왜구의 일본에서의 주요 근거지는 규슈의 섬들이었다. 조선과 중국은 일본에 왜구의 단속을 요구하였지만 규슈지방에는 아직 무로마치 막부를 따르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p>

**[특이사항]**

- ➡ 교과서별로 왜구에 대한 서술의 편차가 있어 왜구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環 중국해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한 왜구라는 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 싶다.
- ➡ 제국서원이나 청수서원의 경우 왜구는 일본인이 중심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 ➡ 동경서적의 경우 전기 왜구와 후기 왜구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해 왜구는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인 못지않게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쿠호샤의 경우에는 왜구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으나 후기 왜구의 경우 대부분 중국인임을 명시하면서도 전기 왜구의 경우는 일본인과 함께 조선인도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 ➡ 지유샤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인이 더 주도적이었을 법한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 더구나 한국 측의 사료를 동원하여 왜구 중 일본인은 10~20%에 지나지 않고 조선인이 다수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 ➡ 마나비샤의 경우에는 왜구의 중심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잘 드러내지 않고, 국가나 국적의 범주를 벗어나 활동하던 사람들이라는 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단원의 명칭도 ‘경계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 6) 임진왜란

출판사	쪽수	내 용
교육출판	101	<p><b>【히데요시의 외교와 조선 침략】</b></p> <p>한편 명이나 인도 등의 정복도 계획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에 복종과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것을 거부하자 히데요시는 1592년 약 15만 명의 병력을 조선으로 보내었다. 가토 키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이끄는 일본군은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였는데, 의병이라 불리는 민중의 저항으로 비롯하여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명의 지원군에 의한 반격 등으로 담보 상태에 빠져버렸다. 히데요시는 명과의 강화교섭이 실패하자 다시 출병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히데요시의 병사를 계기로 모든 군대가 철수하였다.</p> <p>7년에 걸친 전쟁으로 조선의 토지는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고 일본에 끌려가기도 하였다. 일본에도 전쟁 비용 등의 무거운 부담에 무사나 민중이 고통받았고, 다이묘의 불만도 높아져 도요토미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였다.</p> <p>(날개)이때 조선으로부터 데리고 온(連れてこられる) 도공이나 학자, 특히 가져간 서적 등으로부터 자기나 인쇄술, 유학이 전해졌다.</p>
동경서적	109	<p><b>【해외무역과 조선침략】</b></p> <p>1592년(文祿 원년)에는 명의 정복을 목표로 모든 다이묘에 명해 15만명의 대군을 조선에 파견하였다(文祿の役). 일본의 군대는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고 조선 북부로 진격하였는데 구원하러 온 명군에 막혔다. 또한 각지에서 조선의 민중에 의한 의병이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조선의 남부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의 수군을 격파하였다. 그래서 명과의 사이에 강화 교섭이 시작되고 명의 사절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강화가 성립하지 않자 히데요시는 1597년(慶長2)부터 다시 전쟁을 시작하였다(慶長の役) 일본군이 고전하면서 1598년에 히데요시가 병사한 것을 계기로 전군이 철수하였다. 7년에 걸친 전쟁으로 전장이었던 조선은 황폐해지고 일본으로 연행된 사람도 많았다. 일본의 무사나 농민도 무거운</p>

		<p>부담에 시달리고, 다이묘 간의 대립도 일어나 도요토미씨가 몰락하는 원으로 되었다.</p> <p><b>【역사로의 접근】 아리타 도자기의 루트</b>  도조 이삼평 언급  (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선으로부터 끌려온 도공이 시작한 도자기. 히데요시는 히젠에 名護屋城(사가현)을 쌓고 조선에 보낸 군을 지휘하였다. 다이묘가 조선으로부터 데리고 온(連れてこられた) 도공은 규슈 지방이나 주고쿠 지방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현재까지도 그 지방이 명산지이다.</p>
이쿠호샤	111	<p><b>【대외정책과 조선출병】</b>  전국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국력이 쇠퇴해가고 있던 명을 대신해 일본을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 하였다. 필리핀이나 대만에 복속을 요구함과 동시에 명에 출병하려 하였다.  1592년(文祿 원년) 히데요시는 명으로의 안내 역할을 거부한 조선에 15만여명의 대군을 보냈다. 군대가 한때는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고 조선북부여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 패하고, 명의 원군도 참전하여 전세가 불리해지자 명과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군대를 철수하였다.(文祿の役).  1597년(경장 2년) 명과의 강화협상이 결렬되자 히데요시군은 다시 출병하였다. 그러나 지난 번 이상으로 고전하고 다음해에는 히데요시도 병사하자 전군이 철수하였다.(慶長の役)  이 전쟁은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남김과 동시에 출병한 일본의 다이묘에게도 무거운 부담이었다. 또한 출병의 실패는 도요토미씨의 정권이 약체화하는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날개) 조선 출병의 지도  (날개) 아리타 자기: 히젠(사가현) 아리타의 자기. 조선출병 시기에 데리고 온(連れてこられた) 조선의 도공에 의해 자기 기술이 전해졌다. 이삼평은 아리타 자기의 시조로 이야기된다.</p>
일본문교출판	111	<p><b>【동아시아의 무역】</b>  ...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구의 해적 행위를 금하는 한편, 무역을 진척시켰다. 그리고 국내통일이 마무리되자 무역의 거점인 필리핀, 대만에 편지를 보내 일본에 복종하고 무역을 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히데요시는 명을 대신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天竺(인도)까지도 정복하려는 생각을 하였다.</p> <p><b>【히데요시의 조선 침략】</b>  명을 정복하기 위해 무사를 한데 모으려던 히데요시는 조선에 일본에의 복종과 일본군의 명에의 통행 허가를 요구하였다. 그것이 거부되자 1592년 전국의 다이묘를 동원하여 규슈의 다이묘를 주력으로 하는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일본군은 조선 내부의 동요도 있어 곧 수도 한성과 각지의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침략에 저항하는 민중 등이 병을 조직해 각지에서 일본군을 힘들게 만들고 게다가 명의 원군이 가세하였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하자 일본군은 휴전하고 병의 일부만 남긴 채 철수하였다. 그런데 명과의 강화 협상이 결렬되자 히데요시는 다시 병을 보냈다. 그러나</p>

		<p>고전이 이어지고 히데요시의 병사와 함께 전군이 철수하였다.</p> <p>두 차례에 이르는 전쟁에 의해서 조선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그밖에도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기근이 지속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다이묘만이 아니라 군용품의 수송을 담당한 민중의 생활도 큰 타격을 입어 도요토미 정권의 몰락을 앞당겼다.</p>
지유사	119	<p><b>【조선출병】</b></p> <p>전국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명을 정복하여 도읍을 옮기고, 인도까지도 지배한다고 하는 장대한 야망을 품었다. 1592년(文祿 원년) 히데요시는 15만의 대군을 조선으로 보내었다(조선출병) 가토 키요마사나 고시니 유키나가 등의 무장이 이끄는 히데요시의 군대는 곧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조선 북부에게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조선 측의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 명으로부터의 원 군에 의해 밀리게 되고 명과의 화평 교섭을 위해 군을 퇴각시켰다.(文祿の役)</p> <p>1597년(慶長2) 명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히데요시는 다시 약 14만명의 대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명의 반격으로 이번엔 조선 남부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다음해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철병하였다.(慶長の役)</p> <p>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 의해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황폐해졌다. 또한 이 출병에 막대한 비용과 병력을 소모한 도요토미家の 지배는 동요되었다.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출병에 찬성하여 규슈까지 출정하였지만 바다를 건너지는 않았다.</p> <p>(날개) 조선출병으로 많은 조선도공이 일본에 끌려왔다(連れてこられた). 사쓰마 자기의 沈壽官, 아리타 자기의 李參平, 하기 자기의 李勺光 등이 도자기 기술을 일본에 전했다.</p> <p><b>【히데요시와 필리페 2세】 (칼럼)</b></p> <p>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을 이룰 무렵 스페인에는 국왕 필리페 2세가 이슬람 세력을 누르고 절정기에 있었다. 아시아에 파견된 스페인 선교사들은 중국의 무력 정복을 진언하고 일본의 이용가치를 편지로 필리페 2세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히데요시와 같은 해인 1598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정복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p>
제국서원	97	<p><b>【文祿慶長の役】</b></p> <p>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명을 대신해 동아시아를 지배하려고 생각하였다. 히데요시는 왜구를 단속하면서 해상의 지배를 강화하고 필리핀이나 대만 등에는 복속을, 조선에는 명을 정복하기 위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1592년(文祿 원년)에 15만명의 대군으로 조선을 공격하고 히데요시군은 수도인 한성 등 각지를 점령하였다.(文祿の役) 그러나 조선에서는 승려, 의병이라 불리는 민중의 저항 운동,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저항이 강하고 명의 원군도 합세하면서 궁지에 몰리자 휴전하고 병력의 일부를 철수시켰다. 1597년(慶長2)에 다시 출병하였는데(慶長の役) 고전이 이어졌고 다음 해에 히데요시의 사망에 의해 전군이 철수하였다. 7년에 걸친 전란으로 조선 각지의 마을이 불타고 사찰 등의 문화재가 소실되었으며 인구가 격감하였다. 한편 일본의 부사나 민중에게도 부담이 되어 도요토미家の 지배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되었다.</p>

청수서원	103	<p><b>【히데요시의 대외 정책】</b>          …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 후, 고아(인도)의 포르투갈 政廳, 마닐라(필리핀)의 스페인 정청, 高山國(대만) 등에 복속을 요구하였다. 또한 명에 대한 침략을 피하며, 조선에도 복종하여 함께 싸울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히데요시는 1592년 16만명의 대군을 조선으로 보내었다. 일본군은 한성에서 평양으로 진출하였는데, 명의 원군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조선 각지 민중의 저항 등으로 명을 침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명과의 강화교섭에 따라 퇴각하였다. (文祿の役) 1597년(慶長2) 다시 히데요시는 조선을 공격하였지만 다음 해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일본은 병을 철수하였다.(慶長の役) 이 두 번에 걸친 출병으로 다이묘나 민중이 받은 부담이나 타격은 컸으며 도요토미氏의 힘이 급속히 약화되었다.</p> <p><b>【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칼럼)</b>          7년간의 걸친 침략을 받은 조선은 국토나 문물이 황폐해지고 산업이 파괴되었다. 일반 민중을 포함한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또한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왔다(連れてこられた). 그중에 포함되어 있던 유학자나 도공에 의해 조선의 유학(주자학)과 도자기 기술이 일본에 전해졌다. 그중에서도 도자기 기술은 이후 하기 자기(아마구치현), 아리타 자기(사가현), 사쓰마 자기(가고시마현) 등 각지의 다양한 도자기로 발전하였다. 또한 조선을 공격한 무장 중에는 출병에 희문을 가진 자나 조선군에 협력하는 자도 있었다.</p>
마녀비사	104 105	<p>승려가 본 조선의 민중 -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중단원)</p> <p><b>【대군이 조선을 공격하다】</b>          1592년 4월, 부산 앞바다에 일본의 군선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섰다. 18,000여명을 제1진으로, 일본 전국에서 동원된 약 16만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 공격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을 통일하자, 다음으로 명 정복을 목표로 조선이 앞서 길을 안내할 것을 명하였다. 조선은 명과 조공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다. 그것에 대해 히데요시는 전국의 다이묘에 명하여 名護屋城(사가현)을 쌓아 침략의 기지로 삼고 조선 공격을 시작하였다.          조선은 혼란에 빠져 5월에는 도읍인 한성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북부의 평양도 점령당하자 조선은 명에 도움을 요청하고 명의 대군이 남하하였다.          이 전쟁에 의사로서 종군한 일본의 승려 慶念은 전장에서 보고들은 것을 일기를 써서 남겼다. “사람을 사고파는 상인이 일본군 뒤를 따라 다니며 조선인 남녀노소를 사서 모아 머리를 줄로 묶어 끌고 다녔다”, “소와 말을 끌고 짐을 나르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었다.”</p> <p><b>【조선 민중의 싸움】</b>          이때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도의 사회였다. 특히 최하층의 사람들은 노예같은 처지에 있었다. 여러 차례 저항하면서 신분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해 일어섰다. 일본군이 나타나면 조선의 관리들은 도망갔기 때문에 억눌려있던 사람들이 호적을 불사르고 자유롭게 되었다.          일본의 다이묘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령지에서 검지를 시작하였다. 조</p>

	<p>선의 관리에게 명하여 서류를 제출케하여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그것에 대해 조선의 농민들은 각지에서 한데 모여 일본에 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자 조선군에 있던 병사도 가세하였다. 이것을 조선에서는 의병이라 불렀다. 지리적 이점을 살린 작전으로 일본군을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p> <p><b>【일본군의 패배와 후퇴】</b></p> <p>조선 각지의 격렬한 저항으로 고립된 일본군은 성을 쌓고 농성하였다. 승려 慶念은 울산성의 격렬한 전투를 “아군은 마침내 물도 없고 식량도 떨어져 내일이며 성이 함락하지 않을까”라고 쓰고 있다.</p> <p>1598년 히데요시가 죽자 수세에 몰려 있던 일본군은 조선군명군과의 교섭을 성립시켜 휴전하고 철수하였다. 이렇게 7년에 걸친 전쟁이 종결되었다.</p> <p>전쟁이었던 조선에서는 농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다. 일본에서는 많은 백성이 짐의 운송 등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바다를 건너 일본군의 절반 이상이 규슈 등의 백성이었다. 명도 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p> <p><b>【조선의 무장이 된 사야카】(칼럼)</b></p> <p>전쟁 중 1만명에 이르는 일본의 무사가 조선 측에 투항하거나 도망하였다고 한다. 가토 키요마사의 가신이었던 무장은 조선 측에 항복하여 국왕으로부터 金忠善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일본 명은 사야카라 전해지며 화승총의 제작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일본군과 싸웠다.</p> <p>일본군이 퇴각했을 때 조선의 관리가 돌아와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 하였다. 그때 승려와 최하층 신분의 사람들이 지휘하여 민중 700여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김충선은 조선국왕의 명을 받아 탄압의 선두에 섰다.</p>
--	--

**[특이사항]**

- ➡ 교육출판, 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청수서원 등은 소단원의 제목을 ‘조선침략’이라 하면서 실제 본문의 진술은 ‘과격하였다’나 ‘보냈다’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모호한 어법이다.
- ➡ 이쿠호샤와 지유샤는 대개의 교과서들이 임진왜란을 ‘조선 침략’이라 표현한 것에 비해 ‘조선 출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침략성을 희석시키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 ➡ 지유샤는 히데요시의 계획을 ‘장대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을 ‘천하 통일’이라 표현하고 있다. 침략성을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히데요시와 필리페 2세를 비교하는 장면은 히데요시의 비교 우위의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침략 전쟁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혀 느낄 수 없다.
- ➡ 마나비샤의 경우에는 중단원의 제목에서부터 임진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려보려고 한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인다. 대개의 서술이 히데요시를 주어로 임진전쟁을 시작하고 묘사하는 데 비해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담아내려고 하였다. 抗倭인 사야카를 서술하였는데, 한국의 동아시아사에 서술된 내용과는 결이 다르다.

조선에 항복한 측면과 함께 조선 지배층의 입장에서 민중 봉기를 진압한 측면도 함께 그리고 있다.

- ➔ 마나비샤를 제외한 교과서들이 ‘文祿の役’, ‘慶長の役’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국서원의 경우에는 단원명이다. ‘인민을 징발해 치르는 전쟁’이란 의미의 ‘役(えき)’에는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는 관점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 ➔ 전쟁 당시의 이른바 ‘被虜人’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선으로부터 데리고 온(連れてこられる)’이란 표현이 여러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7) 조선통신사

출판사	쪽수	내용
교육출판	110 111	조선과의 국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이래 끊어졌지만 쓰시마번(나가사키현)의 宗氏 중재로 국교가 회복되었다. 조선의 부산에는 왜관이 설치되고 무역을 허가받은 쓰시마번은 목면이나 조선 인삼 등을 수입하였다. 또한 조선으로부터는 일본 쇼군의 교체될 때마다 통신사라 불리는 사절이 파견되어 宗氏의 안내로 에도를 방문하였다. (사진 캡션) 통신사는 에도시대에 12회 방문하였다.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 주변에는 구경나온 사람이나 한사주자학 등을 통한 교류를 원하는 문안학자가 모여들었다.
동경서적	118 119	에도막부의 성립 후 쓰시마번(나가사키현)의 노력으로 일본과 조선 사이의 국교가 회복되고 쇼군이 바뀔 때 등에 이것을 축하하는 사절(조선통신사)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300~500명에 이르는 통신사의 일행 중에는 최고의 학자나 예술가도 있어 각지에서 일본의 학자와 교류하였다.
이쿠호샤	121	조선은 1607년(慶長12) 우리나라에 조선 통신사를 보냈다. 이후 쇼군이 바뀔 때 축하의 사절로서 에도에 보내진 통신사는 동양 문화를 전하는 사절로서 각지에서 환영받았다. (날개) 조선통신사: 조선의 국왕으로부터 파견된 사절단. 1811년까지 총 12 차례의 사절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일본문교출판	120	<b>【조선과의 국교 회복】</b>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후 조선과의 국교는 단절되었지만 쓰시마번의 중재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기에 국교가 회복되었다. 그후 쇼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으로부터 조선통신사라 불리는 사절이 에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500인에 이르는 사절 중에는 학자가 있어 에도나 여정 도중의 각지에서 일본 학자와 교류를 거듭하였다. 또한 쓰시마번은 막부의 허가로 매년 부산에 배를 보내 조선과의 무역을 행하였다. 조선으로부터는 생사나 목면, 조선인삼을 수입하고 일

		본은 은이나 구리 등을 수출하였다. (날개) 통신사는 믿음(信)을 통하는 사절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유사	128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쓰시마 영주 宗氏를 매개로 히데요시의 출병으로 단절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였다. 조선으로부터는 소군이 교체될 때 조선통신사라 불리는 사절이 소군을 表敬 방문하였다. 종씨는 조선의 부산에 설치된 왜관을 활동의 거점으로 하였다.
제국서원	109	<b>【조선으로의 창구】</b> 쓰시마에는 막부와 조선의 국교 회복을 중개한 宗氏가 조선과의 무역을 담당하고 조선의 부산에는 무역 등을 행하는 왜관이 설치되었다. 쓰시마에는 은과 구리가 수출되고 조선 특산인 조선인삼이나 생사, 견직물, 목면이 수입되었다. 조선으로부터는 주로 소군이 바뀔 때 취임을 축하하는 외교사절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 사절은 조선통신사라 불리며 에도시대에는 총 12회에 걸쳐 방문하였다. 400~500명의 사절단 중에는 뛰어난 학자나 의사도 있어 일본의 학자나 문인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절의 행렬이나 그것을 흉내낸 춤 등으로 외국인의 모습을 알고, 그들은 각지에서 인기가 높았다.
청수서원	114	<b>【조선과의 관계】</b>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도쿠가와 소군과 조선국왕이 서로 상대방을 국가의 대표자로서 인정하고 편지(국서)를 교환하는 관계였다. 외교의 실무는 중세부터 조선과의 관계를 가진 쓰시마번의 宗氏가 담당하였다. 막부는 소군이 교체될 때마다 조선에 사절의 방문을 요청하고, 조선은 일본의 정세를 살필 목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조선통신사) 양국 간의 무역도 宗氏가 담당하였다. 조선의 부산에 役所가 설치되어 은, 구리, 후추를 일본으로부터 수출하고 중국산 생산, 견직물, 쌀, 목면, 약용 인삼 등을 수입하였다. 은은 조선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갔다. (날개) 조선통신사: 일행은 한성에서 쓰시마를 거쳐 세토나िका아요도가와를 배로 이동하고 교토부터는 육로로 에도를 향해갔다. 지금도 오카야마현이나 미에현 등에 통신사를 흉내 낸 춤이 전해지고 있다.
마니비사	124 125	에도로 가는 조선 통신사 - 조선·류큐와의 외교 <b>【한성에서 에도로】</b> 에도막부는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소군이 되자 축하하는 사자를 보내는 것처럼 쓰시마번을 통해 조선에 요청하였다.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1719년 조선은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정사와 부사에는 교양있는 고관이 임명되고 많은 예술가와 의사도 동행하여 사절은 전부 5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 일행을 쓰시마번의 관리가 안내하고 지나가는 번에서도 사람들이 보태져 전부 2000명에 가까운 대행렬이 되기도 하였다. 에도에 도착하면 정사들은 에도성에 들어가 소군이나 로주와 회견하고 국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치렀다. 각 번은 행렬이 통과하는 길을 청소할 것, 도로 주변의 집주인은 羽織을 입고 맞이할 것, 구경꾼이 무례한 행동이 없도록 할 것 등의 포고령을 내렸다. 통신사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도 접대의 부담이 요구되었다.

	<p>좀처럼 볼 수 없는 행렬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다. 또한 지방의 유학지는 숙소를 방문하여 한문을 사용하는 필담으로 가르침을 청하였다. 지금도 통신사를 맞이하였던 것이 축제나 인형으로 각지에 남아 있다.</p> <p><b>【申維翰과 雨森芳洲】</b></p> <p>이때 통신사의 서기관 신유한은 쓰시마번의 관리 아메노모리호슈와 빈년 이상을 함께 여행하였다. 두 사람은 조선말을 사용하며 속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다음 두 사람의 대화이다.</p> <p>아메노모리 “일본과 조선은 바다 하나를 경계로 한 나라로 국왕과 쇼군이 국서를 교환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책을 보면 우리나라를 倭賊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인가?”</p> <p>신유한 “그것은 임진란(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뒤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수라서 조선인이 이를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히데요시도 일본에서는 무언가 공적이 있지 않은가?”</p> <p>아메노모리 : “히데요시는 하늘의 재앙과 함께 독사가 낳은 것 같은 사람이다.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일족이 몰살당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히데요시의 천하 평정에 의해 전쟁의 시대가 끝났다.”</p> <p><b>【일본과 조선의 국교 회복】</b></p> <p>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의해 무로마치 시대 이래로 이어져 오던 통신사도 중단되었다. 조선은 일본이 국교의 재개를 원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승려인 松雲대사를 사절로 보냈다. 대사는 의병으로서 일본군과 싸운 적도 있었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후계자인 히데타다와 회견하고 전쟁 때 연행되었던 다수의 조선인을 데려왔다.</p> <p>그 후 일본과 조선은 국교를 회복하고 쓰시마번을 창구로 하여 외교나 교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막부는 조선을 일본에 조공하려 오는 나라로서 인식하였다. 한편 조선은 유교문화 등 자국의 문화가 높음을 일본에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p>
--	---

**[특이사항]**

- ➡ 청수서원과 마나비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도쿠가와와 쇼군이 바뀔 때마다 막부가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는 서술이 빠져 있어, 통신사 파견이 조선과 일본의 상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국교의 재개가 쓰시마 번의 노력으로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
- ➡ 자유사의 경우는 통신사가 ‘表敬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 마나비샤의 경우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 통신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신사의 일본 내 활동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유한과 아메노모리호슈의 대화를 통해 양국 간 역사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당시 막부가 통신사를 조공 사절로 인식하였다는 것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술하였다.

#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와 문화

김장구 (동국대)



#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와 문화

김장구 (동국대)

## 1. 머리말

### 1) 東아시아史의 다양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은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즉, 한국사는 대체로 중국, 일본과의 상호 소통과 교류, 경쟁과 대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화(中華)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을 뛰어넘는 폭넓은 이해는 부족했고, 오히려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아시아 여러 민족에 대해 ‘오랑캐’라고 멸시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이해와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자국 중심의 시각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면적이고 독단적인 자국 중심의 역사 이해와 연구는 주변국과 상호 역사인식의 불일치를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역사 충돌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종종 발견한다.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강대국인 경우 이러한 일방적인 역사 이해를 노골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에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장기간 함께 존속해왔다. 예를 들면, 한(韓)·중(中)·일(日) 삼국과 베트남(越南)을 제외하고도 티베트(西藏, Tibet), 위구르(維吾爾, Uyghur), 만주(滿洲, Manju) 등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는 역사문화 공동체인 ‘몽골국(Монгол улс)’이 있다.

## 2) 한국史의 다양성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국 중심의 ‘中華思想’이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시기는 16~19세기, 즉 조선 중후기에 지나지 않는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에는 중국 문화와 더불어 거란(契丹), 여진(女眞), 몽골(蒙古), 일본과의 활발한 접촉과 교류가 일상이었으며, 그 이전인 고대시기로 올라 갈수록 북방 유목수렵문화와 남방 해양문화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모습과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거나 중국 문화의 유행 속에서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알아볼 수 없을 뿐이다.

선사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고조선(古朝鮮)의 강역과 문화, 부여(夫餘)·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로 이어지는 혈통적 기원과 기마궁사(騎馬弓射) 문화, 고구려와 투르크(突厥)의 우호 관계, 신라(新羅)의 고분 축조 방식과 아랍인으로 보이는 무인석상(武人石像)과 로마에까지 연결되는 유리 문화, 서아시아와 관련한 금관과 보검 등 황금 문화, 가야(伽倻) 지역에서 출토되는 동북(銅鍔)과 철기 문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역사고고학적 증거들이 존재한다. 아울러 문학·언어·민속학 방면에서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 3) 북방 유목민과 세계사의 흐름

유라시아 대륙에는 아주 다양한 자연환경이 존재한다. 그 중 북부에는 동쪽의 만주 평원에서부터 서쪽의 헝가리 판노니아 평원까지 광활한 초원지대가 길게 펼쳐진다. 이 초원지대 바로 위에는 울창한 삼림지대인 타이가가 있다. 그 너머에는 순록유목민이 사는 동토지대인 툰드라가 있다. 그리고 초원지대 아래에는 고바·타클라마칸·아라비아 사막 등이 나란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 사막지대 아래에 기원전 2000~1000년경 ‘유목(遊牧) 사회’라는 생산경제가 생긴 이래 대립과 항쟁을 지속해 온 정주 농경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 정주민은 유목민이 생겨난 후부터 17~8세기까지 대략 3~4천년 동안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정주민은 늘 유목민의 위협과 침략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오랑캐’ 유목민에 대한 기록을 끊임없이 남겨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유목민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세우기도 했으며, 때로는 유목민을 제압하려 시도하거나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유목민들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왜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오늘날에도 세계사 교과서와 책은 정주민들이 쓰고 있고, 또 대부분 서구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몽골을 비롯한 유목민들이 세계사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주민들도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가까운 예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일본제국 관동군 731부대의 생체 실험과 난

정(南京) 대학살,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그리고 제 1차, 제 2차 세계대전은 모두 ‘문명 정주민’이 일으킨 것이다.

유목민들은 더 좋은 초원을 차지하고 유목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전쟁에서 패배한 유목민족의 일부는 승리한 지배집단에 복속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초원의 주변으로 쫓겨났다. 이런 유목민의 이동은 주변 정주민의 역사에도 깊은 영향과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흉노(匈奴), 투르크(突厥), 몽골(蒙古) 등 유목민족이 주변으로 확산됨으로써 훈족(Huns)의 동유럽 정복, 중앙유라시아의 투르크화와 이슬람화, 몽골제국의 성립과 새로운 민족(우즈베크, 카자크 민족 등)의 탄생 등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와 영향으로 몽골 시대에 동서양이 일체화되어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되었다.

#### 4) ‘흉노(匈奴)’는 누구인가?

역사학자들은 주로 정주 농경민의 역사를 연구해 왔다. 그 중에서도 유럽과 중국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세계사를 국사·동양사·서양사로 나누어 이해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중앙유라시아 유목민들의 역사세계는 늘 관심 밖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가끔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유목민들은 정주세계를 위협하는 야만적인 ‘오랑캐’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잘못된 인식은 흉노, 투르크, 몽골인 등 유목민과 그들의 역사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 보자. 할리우드에서 만든 ‘물란(Mulan)’이라는 만화영화가 있었다.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야만족’ 흉노(匈奴)가 ‘선량한’ 한족(漢族)을 일방적으로 침략하고 괴롭히는 악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과연 이 시가는 진실일까? 한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진실일 것이다. 그러면 흉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 아마도 그 반대일 것이다. 한족은 군사력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곡식, 비단과 보석 등으로 흉노 세력을 이간질하여 그들의 분열을 꾀했다. 한족이 제공하는 물자에 현혹된 일부 흉노인들은 만리장성(萬里長城) 근처로 옮겨가서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족(漢族)의 앞잡이가 되어 북방에 있던 형제인 ‘야만인’ 흉노를 공격하였고, 결국 흉노 세력은 모두 약화되어 흩어지거나 중국에 복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흉노제국사(匈奴帝國史)’ 연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들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흉노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은 대부분 남쪽 이웃인 중국인들이 남긴 것이다. 지금까지 흉노연구는 중국 측 문헌기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흉노와 적대관계

에 있던 중국인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국 중심의 인식에서 바라본 흉노에 대한 부정적이며 편견에 사로잡힌 서술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는 흉노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만 가치를 갖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흉노인들이 문자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과 유적을 많이 남겨 놓은 것이다. 따라서 흉노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역사기록에 대한 치밀한 비판적 연구와 더불어 고고학 발굴을 통해 얻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목민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역사학 연구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학문 분야는 고고학 연구이다. 특히 중앙유라시아의 초원은 유목민의 삶의 터전이자 또한 역사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흉노 고고학은 정주민이 남긴 기록으로는 알 수 없는 유목민의 참된 모습을 확인하는 지름길이다. 러시아의 코즐로프(P.K. Kozlov)가 발굴한 것으로 유명한 노인 울라(Noin Ula, 노용 울) 흉노고분군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흉노연구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흐름으로 기존의 정주민의 시각이나 중국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흉노 입장에서 기존의 사료를 재해석하려는 흐름이다. 다른 하나의 흐름은 흉노와 서방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삼국은 오랜 동안 흉노문화가 중국 것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흉노 역사세계에 우수한 중국문화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은 정주민의 문화가 유목민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흉노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은 중국 제품뿐 아니라 멀리 그리스 기원의 ‘그리핀(Griffin) 도상’ 카펫도 함께 출토되었으며, 최근 발굴에서는 서방에서 직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은제원반이 출토되어 흉노가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대몽골국과 칭기스 칸

### 1) 대몽골국의 성립과 북아시아

흉노의 뒤를 이어 북아시아에는 선비(鮮卑), 유연(柔然), 투르크(突厥), 거란(契丹 [遼]), 탕구트(黨項 [西夏]), 여진(女眞 [金]) 등 유목半유목 세력이 활약하다가 사라지곤 했다. 이후 몽골이 통일할 때까지 북아시아 초원은 오랜 동안 힘의 공백지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테무진(Temüjin), 훗

날의 칭기스 칸(Chinggis qan)이 '대몽골국'을 건립한 1206년까지 계속되었다.

1227년, 일생을 유목세계 통일과 정복전쟁으로 보낸 칭기스 칸이 죽고 1229년, 셋째 아들인 우구데이(Ögödei)가 대칸[qa'an]으로 선출되었다. 우구데이는 금(金)과 고려(高麗)를 정복하기 위해 원정군을 파견하였고, 1234년에는 금 왕조를 멸망시켰다. 그런 다음 카라코룸에 도성과 궁전을 세워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한편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역참(驛站, 몽골어 jam)을 재정비하여 세계 각지에서 몽골제국의 수도로 올 수 있게 하였다. 카르피니, 루브룩, 마르코 폴로 등 중세 유럽의 여행자들은 바로 이 길을 따라 몽골제국의 중심으로 안내되었던 것이다.

## 2) 카라코룸(Qara qorum, 和林)의 고려인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세계 제국으로 응비하고 있던 대몽골국의 수도인 카라코룸에는 다양한 이방인들이 존재하였다. 위구르, 거란, 여진, 북중국 출신의 한인(漢人) 등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 카르피니처럼 몽골에 대해 알기위해 온 동서양의 다양한 사신들, 여행자, 정복전쟁에서 노예로 끌려온 수공업자, 기술자, 농민 등 포로들이 있었다.

특히 언급해야 할 것은 교황이 보낸 사절인 카르피니가 『몽골인의 역사 Ystoria Mongalorum』에서 솔랑기(Solangi, 高麗)와 그 나라 수장에 대해 여섯 차례나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 한 두 개의 기록만 살펴보자. “이 나라 동쪽에는 키타이 사람들의 나라와 또한 솔랑기(Solangorum)라는 나라가 있고 ……”,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소집된 장소에 갔을 때, 서기인 칭카이는 우리의 이름을 적었고, 솔랑기(Solangorum)와 다른 나라의 수장들의 이름을 적고나서 황제와 모든 고관들 앞에서 큰소리로 불렀다.” 1246년 당시에 대몽골국에 수장을 보낼 수 있는 ‘솔랑기’라는 나라는 고려 이외에는 찾을 수 없다. 금 왕조는 1234년에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르피니가 언급한 ‘솔랑기’는 고려(高麗)를 대표하여 구육의 즉위식에 참석한 고려 왕족출신 외교 사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몽골인은 한반도의 왕조와 국가를 지속적으로 ‘솔롱고스(Solonγos)’라고 불렀다.

카르피니가 다녀간 몇 년 후, 1253년 몽골을 방문한 루브룩(William of Rubruck)도 『여행기 Itinerarium』를 남겼다. 특히 루브룩은 ‘Caule[高麗]’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이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는 카르피니의 『몽골인의 역사』였다. 이후 유럽은 지속적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세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상인이었던 아버지와 숙부를 따라 몽골제국의 대칸이 거주하는 칸발릭(大翻)을 향해 갔다. 이후 쿠빌라이에게 등용되어 몽골이 지배하던 중국 각지를 17년 간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남긴 기록이 바로 저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다.

### 3) 글로벌 제국의 세계 정복과 그 유산

1241년 갑작스런 우구데이의 사망으로 서유럽은 몽골의 침략을 면할 수 있었고, 이후 몽골을 비롯한 주변세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공백기를 거쳐 1246년 구육이 즉위하지만 1248년 사망하고, 칭기스 칸의 가문은 둘로 나뉘어 대칸위 쟁탈전을 치르고 1251년 몽케(Möngke)의 등극으로 이후 몽골의 대칸 자리는 칭기스 칸의 막내아들 툴루이(Tolui) 집안에 국한되어 버린다. 몽케 또한 남송(南宋) 정복과정에서 1259년 사천(四川)에서 사망하고, 이제는 몽케의 두 동생 간에 대칸위 쟁탈전이 벌어져 마침내 쿠빌라이(Qubilau qa'an, 몽골어 Sečen qa'an, 중국에서는 元世祖)가 즉위한다.

몽골의 세계정복으로 인해 인류역사에 부정적인 면도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에 못지않게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슬람 정주문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지만, 한편으로 무슬림을 중용하여 몽골치하에서 주역으로 활약하게끔 했다. 역설적으로 이슬람의 확산과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확대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이슬람의 천문학·의학·음악 등이 전래되고 인쇄술·나침반·화약·그림도자기 등이 각지로 수출되어 인류문화발전에 공헌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중에서 인쇄술의 서방전파는 지식의 보급, 나침반은 장거리 항해를 가능케 하여 마침내 지리상의 발견을 이끌었다. 게다가 화약의 보급으로 중세의 견고한 성채가 파괴됨으로써 유럽의 중앙집권화를 촉진시켜 근대문명을 유발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 3. 몽골 유목민과 문자

한평생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부(富)의 축적'을 알지 못하는 유목민에게 문자생활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뛰어난 기억력과 이야기 전승 관습으로 조상의 지혜와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물론 문자의 발명과 지식의 기록이 인류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임에는 틀림없다. 흉노인들이 문자를 사용했다는 분명한 기록과 유물은 아직까지 없다. 유목민 중에서 처음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투르크(突厥)인이다. 물론 일반 유목민이 아니라 지배계급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다. 뒤를 이은 위구르인들도 소그드(Sogd, 粟特) 문자를 바탕으로 '위구르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많은 기록과 유물을 남겼다.

몽골인은 처음에는 문자가 없다가 칭기스 칸의 대몽골국이 형성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위구르 문자’를 빌어 ‘(위구르식) 몽골 문자(몽골 비칙, Mongol bichig)’를 만들어 썼다. 몽골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기록은 ‘칭기스 칸 비석’(1225년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중국을 정복한 쿠빌라이 카안(재위 1260~1294년)이 티베트 승려 파스파(八思巴)에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게 했는데, 즉 파스파 문자(일명 네모 문자)이다. 이 파스파 문자는 몽골이 중국을 통치하는 동안 일부 사용되다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위구르식) 몽골 문자’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소음보 문자’, ‘토드 문자(일명 오이라트 문자)’, ‘바긴드라 문자’ 등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위구르식) 몽골 문자’의 지위를 위협하지는 못했다. 1930년대에는 라틴 문자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곧바로 폐지되었다. 마침내 1941년 소련의 영향으로 러시아 알파벳인 ‘키릴 문자’를 도입하게 되었고, 1946년부터 지금까지 몽골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다.

## 4. 한국과 몽골의 관계

### 1) 전근대 한국과 몽골의 관계

한국인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북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였다. 북아시아에서 흉망을 거듭하면서 이름을 남긴 대표적인 민족으로는 흉노(匈奴), 선비(鮮卑), 유연(柔然), 투르크(突厥), 위구르(回鶻), 거란(契丹), 여진(女眞), 몽골(蒙古), 만주(滿洲)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시기의 왕조들은 북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깊고 다양한 교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발해(渤海)는 새로 흥기한 거란에게 일격을 당해 926년에 멸망하였다. 거란을 몽골의 한 분파로 본다면, 995년(成宗 14)에 고려 어린이 십여 명을 거란에 보내 그 나라 말을 배우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 기록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이미 천여 년 전부터 넓은 의미에서 몽골~거란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는 태조가 북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북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교류와 항쟁을 거듭하였다.

1218년에는 고려 경내로 난입한 거란군을 고려와 몽골 군대가 협공하여 궤멸시키고, 1219년 형제맹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고려와 몽골의 본격적인 최초의 접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224년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를 고려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대몽골국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후 7년 간 관계가 단절되었다. 대몽골국의 제2대 카안으로 즉위한 우구데이는 1231년에 군사를 보내 고려 침략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는 본거지를 강화도로 옮기면서까지 30여 년에 걸쳐 항쟁했지만 결국 항복함으로써 고려는 몽골의 광범위한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

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삼별초(三別抄)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저항을 계속하다가 최후의 항전지였던 탐라(제주도)에서 1273년 여몽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몽골에 항복한 이후에 고려의 왕은 몽골 공주와 혼인함으로써 몽골 대칸의 사위가 되었고, 고려는 대몽골국의 부마국(駙馬國)이 되었다. 쿠빌라이 카안은 1276년 남송(南宋) 정복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를 전초기지로 삼아 두 차례(1274, 1281년)에 걸쳐 대군을 파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 왕조와 백성은 군사와 군량을 조달하고 배를 건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한편 이 시기에 고려와 몽골 간에는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려양(高麗樣)’, ‘몽골풍(蒙古風)’이라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유행이 나타났다. 쿠빌라이가 몽골제국의 수도를 ‘칸발릭’으로 옮기기 전에도, 그리고 옮긴 후에도 고려와 몽골은 밀접한 교류를 지속하였다. 아울러 『고려사』에는 1295년(충렬왕 21)에 몽골(元)에서 이망고대(李忙古大)를 고려로 보내 몽골어를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다. 한편 고려의 인재들도 몽골(元) 조정에서 실시한 과거에 응시하여 그 중에 몇몇은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몽골국의 마지막 대칸이었던 토곤 테무르(順帝)는 제위에 오르기 전 대청도(大靑島)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대칸이 된 후에는 고려에서 끌려온 공녀 출신의 기씨(奇氏)를 황후로 맞이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사역원(司譯院)에서 만주어[淸], 중국어[漢], 일본어[倭]와 더불어 몽골어[蒙]를 가르쳤으며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몽골어회화 교습에 사용했던 교재로는 현재 ‘몽학삼서(蒙學三書)’라고 부르는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몽어유해(蒙語類解)』, 『첩해몽어(捷解蒙語)』가 남아 있다.

## 2) 몽골시대 이후 실크로드

13~4세기 몽골시대 동서 문화교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것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양과 서양이 서로 문화접촉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몽골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제국을 성립하면서 그때까지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14세기 후반 몽골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실크로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이전의 활기를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양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오던 유럽은 새로운 길을 찾아 바다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유라시아를 잇는 육로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전의 기억은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었고, 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인과 외교사절, 기술자들은 계속 이 길을 따라 왕래했다.

고려시대에는 대륙 뿐 아니라 이랍, 페르시아, 인도, 동남아 등 바다를 통한 대외교류가 활발했다. 이를 통해 이랍의 우수한 수학, 과학, 의학, 천문학, 지리학 등이 고려로 유입됨으로써 조선 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 초(1402)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地圖)’이다. 아울러 한글과 달력, 그리고 천문관측기구, 의학과 농업 기술과 종이, 먹, 붓 등을 포함한 인쇄술의 발달은 도리어 중국은 물론 몽골을 통해 서아시아, 유럽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육로를 통한 교류는 거란, 여진, 몽골 등과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와 항쟁을 거듭하면서, 그들의 군사 기술 즉, 갑옷과 무기, 말(馬)과 사냥 기술 등과 더불어 육식 문화의 보급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 조선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내왕하고 있었음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수 없이 등장하는 회회인(回回人), 색목인(色目人)과의 접촉 사실, 『몽어노걸대』와 『박통사(朴通事)』 등 몽골어 교본 등이다. 또 하나는 한글 창제 시 신숙주 등의 십 수 차례의 외유와 주변에 있던 문자 습득, 한글 창제 시 위구르식 몽골문자 및 두르벨진(파스파) 문자의 영향이다.

## 5. 몽골초원과 유목민의 삶

### 1) 몽골의 자연

이렇게 땅이 넓기 때문에(150만km<sup>2</sup>) 자연 환경도 아주 다양하다. 남쪽에는 고비(Gobi) 사막이 있는데, 해발 고도가 아주 높다. 인구밀도는 희박하지만 고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낙타와 염소를 키우며 살아간다. 고비사막 위쪽으로는 초원지대(Steppe)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몽골인이 유목하기에 가장 좋은 자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말 그대로 몽골인의 삶의 터전이다. 그 중간 중간에는 산맥과 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들이 ‘아름다운 초원’을 적시며 흘러 북쪽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바이칼 호’로 들어간 다음, 약 400년 정도 머물다가 앙가라(Angara) 강을 지나 예니세이(Yenisei) 강을 통해 북극해로 나아간다. 초원의 위에는 삼림지대(Taiga)가 있다.

### 2) 유목민의 생활

흰 구름이 떠있는 파란 하늘과 푸른 초원, 그리고 초원에 황금 단추처럼 박혀 있는 몽골인의 전통 주거인 ‘게르(Ger)’, 그 주변에는 말을 탄 몽골 유목민이 긴 울가미를 들고 수백에서 수천

마리에 이르는 양과 염소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몽골에도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수도 울란바타르)가 있으며, 아파트와 자동차는 몽골인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몽골의 인구는 300만 명 정도(2015년 현재)이며, 영토는 156만 km로 어림잡아 한반도의 7배가 넘는다. 몽골 초원에는 역사적으로 1~2백만 명 정도의 유목민들이 삶을 이어왔다. 가축은 대략 그 열 배에서 스무 배 정도(2016년 현재 5,000만 마리)이다. 그러나 '유목遊牧(Nomadic Pastoralism)'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무데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형태가 아니다. 그들의 이동방식은 각 계절마다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일정한 초지로 옮겨가는 순환하는 모습이었다.

유목민에게 초지는 '삶의 기반'이었다. 초지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다. 초지가 황폐화되어 황무지 사막으로 바뀌면 가축이 살지 못하고, 가축이 살지 못하면 인간도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아들은 아버지가 되어 다시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은 자라 다시 제 자식에게 '초원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수 해주었다. 이들의 이동 유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었다. 가축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풀 뿌리까지 먹어치워 다음 해에는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바람이 잘 불고 시원한 산등성이에서,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들고 매서운 북서풍을 막을 수 있는 산의 남사면의 양지 바른 곳에서 가축을 유목하였다. 몽골 초원을 여행하다 보면 산의 남사면에 폐가처럼 보이는 가축우리를 볼 수 있다. 겨울에 가축을 일시적으로 몰아 가두어두는 겨울 축사이다.

풀이 있는 곳이라면 곧 물이 있게 마련이다. 풀과 마찬가지로 물에 대한 몽골 유목민의 생각도 아주 깊고 조심스럽다. 물웅덩이나 개울을 만났다고 해서 물에 뛰어들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즉 먹을 감거나 방뇨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이러한 생각은 몽골인의 자연에 대한 신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풀과 물이 있는 곳에 가축을 유목하고, 유목민은 그 가축을 식량으로 삼아 삶을 유지해 나간다. 유목민에게 식량은 가축의 고기와 우유 및 유제품이기 때문에 가축은 유목민이 광활한 초원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몽골인은 가축의 고기를 주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고기를 많이 먹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곤 한다. 그러나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과 식량을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먹는다. 게다가 몽골 양고기는 초원에서 자라는 야생의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다.

### 3) 몽골 초원의 자연 재해

• **홍수** : 몽골초원에도 비가 온다. 그래서 초원이 푸르고 강이 흘러 초원을 적셔준다. 그런데 몽골 초원은 온대지방의 땅과는 아주 다르다. 지표가 30~50cm밖에 되지 않고, 그 아래에는 고운 밀가루 같은 흙이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데 비는 딱딱한 지표만 적실 뿐 그 아래 흙은 적시지 못한다. 내린 비는 지표를 내달리듯이 흘러 낮은 곳에 모여 일시적인 호수를 이루다가 증발해버린다. 그런 호수의 생명은 몇 시간에서 길어야 며칠이다. 초원에서 비를 만나면 피할 곳이 없다. 게다가 천둥 번개와 바람까지 세차게 불면 그 두려움은 몇 배가 된다. 시골의 유목민들이야 아직까지 전통 유목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경외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 **가뭄** : 겨울 한 철을 간신히 견뎌낸 유목민들에게 봄 가뭄은 커다란 재앙이다. 몽골인은 이런 큰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하르 조드(khar zud=검은 재앙)'라고 부른다. 겨울철의 눈 속에서 짝을 내밀 준비를 하던 풀들은 봄비가 내려야 푸른 초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몽골의 봄은 유목민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다. 우리는 2월말에서 늦어도 3월이 되면 봄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몽골의 봄은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이 돼야 느낄 수 있다. 심지어 5월 중하순에도 눈이 내리기도 한다. 이런 추위에 비가 오지 않아 초원이 누렇게 불그스레한 색을 띠면 겨우내 삐쩍 말라있던 가축은 더 야위게 되고, 죽기도 한다. 그러면 유목민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게다가 먼지폭풍까지 불면 그야말로 천지는 암흑의 세계로 변한다. 몽골에서는 매년 5~10% 정도의 가축이 자연 도태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겨울처럼 자연재해가 심할 경우에는 이삼백만 마리의 가축이 죽기도 했다.

이러다가 한 차례 비가 내리면 초원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죽음에서 깨어나 푸른 색깔로 바뀌며 야생화들이 피어난다. 고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고, 이 때 황사가 바람에 실려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온다. 몽골 속담에 '봄 처녀는 낙타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은 정말 힘든 계절이다.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가축도 사람도 여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바람** : 초원과 사막에서 만나는 비바람도 힘들지만, 모래바람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몽골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저 멀리서 회오리바람이 몰려오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운전수는 차를 멈추고 유리 창문을 꼭 걸어 잠근다. 운전을 하다가 바람을 만나면 차가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차례 바람이 지나가면 차 안은 온통 흙먼지로 가득 찬다. 그때서야 문을 열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초원에서 바람에 맞서는 것들은 전부 쓰러지거나 부서진다. 그러나 유목민의 주거인 게르의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르가 둥그렇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는다는 진리가 새삼 생각난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고마울 때도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내린 후에 부는 바람이다. 몽골의 가축은 추운 겨울에도 초원에서 방목을 하는데 눈이 쌓이면 풀을 찾기 힘들데 바람이 불어 눈을 치워주어야 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 **눈** : 몽골에서 눈은 늦으면 5월에도 내리고, 빠르면 9월부터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가 겨울이라고 보면 된다. 나머지 6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이다. 물론 몽골 사람들은 봄과 가을이 있다고 우긴다. 몽골 독립을 기념해서 전국적인 축제인 나담(naadam)이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그런데 그때 몽골인은 이미 '나담이 지나면 가을이지요!'라는 인사말을 한다. 이런 인사는 조금 있으면 가을이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짧은 가을이 지나면 바로 겨울이니 서로 겨울을 대비하지는 무언의 긴장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몽골의 겨울눈은 오면 서 얼어붙기 시작한다. 많이 내리면 가축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온다. 이것을 몽골인은 차간 조드(tsagaan zud=하얀 재앙)라고 부른다. 이 때 바람이 필요하다. 그 차갑고 무서운 겨울바람... 우리나라 겨울에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대륙성 한랭 고기압대가 맹위를 떨치는 기간이다.

#### 4) 몽골인과 오종(五種)가축

몽골인에게 가축은 삶이요 생명 그 자체이다. 망망한 바다와 같은 초원에서 홀로 수많은 가축을 돌보며 자유로워 보이지만 고독한 일생을 반복해온 그들에게 가축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다. 몽골인은 말, 양, 염소, 소, 낙타를 '타반 호쇼 말(tavan khushuu mal, 오종 가축)'이라고 한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렵지만 유목민이 가축을 기르는 것도 농사 못지않게 힘들다. 유목민이 가축을 키우는 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목의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마(騎馬)', 즉 말타기이다. 몽골 말은 길들여진 채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동안 망아지를 훈련시켜야만 사람을 등에 태우게 된다. 다른 하나는 '착유(擠乳)', 즉 젖짜기이다. 하루에 두 번 제 때에 맞춰 수백에서 수 천 마리의 젖을 짜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마지막 하나는 '거세(去勢)', 즉 불끼기이다. 초원의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수한 품종을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가축은 거세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외에도 가축이 좋아하는 풀과 독초를 잘 알아야 하며, 가물이 들었을 때 가축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겨울 추위와 폭설로부터 어떻게 가축을 보호해야 하는지, 가축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맹수는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홀로 티득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목민의 삶이 한가롭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한 순간도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다.

• **말(mori)** : '몽골인은 말 위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와 같이 몽골인과 말을 떼어 놓고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유목민이 말 위에 올라타게 되면서 비로소 광활한 초원에서 유목이라는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군사적으로 정주민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서

유목사회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자를 얻기 쉬워졌다. 칭기스 칸의 몽골제국도 장거리 원정을 가능하게 해준 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 **양(honi)** : 몽골 유목민에게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양이야말로 몽골인의 생명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동물입니다. 여름에는 뜨겁고 건조한 초원에서, 겨울에는 그 무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자는 시간만 빼면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어야만 '구절양장(九折羊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것도 크고 풍부한 초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듽성듬성 나있는 키 작은 풀을 먹고 살을 찌웁니다. 몽골인은 여름에는 주로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 그리고 유제품만으로 한 철을 지냅니다. 양고기를 먹는 계절은 주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가 김장을 준비하듯 양을 잡아 겨울용 양고기를 준비해서 저장합니다. 겨울에 몽골인과 악수를 해보면 우리들 손은 얼음장처럼 차디찬데 몽골인의 손은 휴대용 난로처럼 따뜻하거든요. 몽골초원의 양은 몽골인에게 정말 생명과 같고 빛나는 보석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 **염소(yamaa)** : 염소는 몽골인에게 양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목을 할 때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습니다. 그래야만 겁이 많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양이 풀뿌리까지 캐먹지 못하고 덩벙대는 염소를 따라 이리저리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혹시 여행관련 프로그램에서 보았을지 모르지만, 염소는 '보오독(boodog)'이라는 요리를 해서 먹는데 이것도 별미입니다. 염소를 잡아 가죽을 찢지 않고 고기를 꺼내서 작게 자릅니다. 그런 다음 염소가죽에 다시 고기와 양념을 넣고 불에 달군 뜨거운 돌을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고기가 익는 것과 동시에 겉 부분도 불에 그슬리면, 초원에서 아무런 그릇이나 장비 없이 작은 칼만 가지고도 훌륭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습니다.

• **소(ükher)** : 몽골에도 소가 아주 많습니다. 소는 주로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곳과 강이나 호수가 있는 곳에서 많이 키웁니다. 몽골인은 양고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소는 주로 수레를 끌게 하거나 젖을 짜기 위해 키웁니다. 또 몽골 소고기는 조금 질기거든요. 그리고 몽골에는 소 말고도 소와 야크 교배종인 '사를락', '하이낙'이라는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소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 운송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 **낙타(temee)** : '사막의 배'라고도 불리는 낙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봉낙타(Camelus dromedarius)와 쌍봉낙타(Camelus bactrianus)인데, 몽골 낙타는 모두 혹이 두 개인 쌍봉낙타입니다. 몽골에는 주로 고비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비(Gobi)'는 모래사막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자갈사막입니다. 여기에서 몽골인이 가축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아볼까요? 몽골에서는 가끔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제 새끼가 아니면 젖을 주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제어미가 죽은 새끼낙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요? 살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몽골 유목민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낙타와 다른 어미 낙타를 같은 말뚝에 묶어 놓고 ‘모린 호르(Morin khuur, 마두금)’로 슬픈 노래를 연주하면 어미 낙타가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은 다른 어미가 낳은 새끼 낙타에게 젖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어미를 잃은 새끼낙타는 고비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낙타 가족 중에서 특히 목 가족은 몽골 ‘게르’에도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게다가 몽골 유목민은 일 년에도 몇 차례 이사를 하는데 주로 낙타가 짐을 주로 운송합니다. 말없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사막의 배’라는 표현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 5) 몽골 유목민의 의식주

### (1) 몽골인의 의복

\* **텔(deel, 옷)** : 몽골의 자연 기후에 맞게끔 발전해 온 몽골인의 전통 복장입니다. 여름에는 비단으로 만든 비교적 얇은 ‘텔’을 입고, 겨울에는 솜을 넣어 누빈 옷이나 아주 추울 때에는 가죽과 털을 넣은 따뜻한 텔을 입는다. 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팔이 아주 긴 것이 특징이다. 몽골 ‘텔’은 말을 탈 때에도 가장 편안한 옷이다. 우리가 즐겨 입는 바지도 실은 유목민의 유산이다. 요즘 몽골인도 양복 등 서양의 옷을 많이 입지만 겨울에는 아직도 ‘텔’을 더 많이 입는다. 텔은 몽고의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최상의 옷이기 때문이다.

\* **허리띠(büs)** : ‘텔’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büs, 부스)’이다. 몽골인에게 허리띠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허리띠를 두름으로써 배 부분은 큰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되며, 또 허리띠에는 칼, 부싯돌, 찜질 등 다양한 도구를 매달 수 있다. 몽골어에는 ‘여자’를 ‘허리띠가 없는 사람(büsgüi, 부스구이)’이라고 부른다.

\* **신발(gutal)** : 몽골인이 신는 신발은 ‘고탈(gutal)’이라고 부른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장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무릎까지 올라오는 고탈은 말을 탈 때 꼭 필요하다. 정강이뼈나 허벅지가 등자나 말 등에 쓸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고탈의 다른 특징은 신발 굽이 없다는 것이다.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등자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말을 등자에 걸거나 뺄 수 있다.

\* **모자(malgai)** : ‘텔’을 입고, ‘부스’를 두르고 ‘고탈’을 신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라가이(malgai)’를 쓰면 외출 준비가 끝난다. 요즘에는 주로 중절모를 쓰지만, 전통적으로는 남자는 ‘장진(장군) 말라가이’를, 여자는 아주 높은 ‘복탁’ 모자를 주로 썼었다. 몽골인에게 모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곳에 두거나 모자를 넘는 행위 등은 용서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다. 또 뒤집어 놓아서도 안 된다.

## (2) 몽골인의 음식

• **고기(makh)** : 가축을 키우는 몽골인에게 그 가축의 고기는 최상의 음식이다. 우리가 ‘밥’이 없으면 안 되듯이 몽골인은 고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고기만 먹거나 많은 양을 먹는 것도 아니다. 몽골인의 음식 예절은 아주 중요하다. 그 집안의 어른이 칼을 들고 고기를 베어 주는 대로 받아먹어야 한다. 아무나 칼을 들고 고기를 베어 먹거나 먹고 싶은 부분만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다. 우리는 몽골에 가면 ‘손님’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어른은 제일 먼저 외국인인 우리에게 고기나 음식을 주게 된다. 그러면 공손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 먹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내려놓으면 된다. 설날(Tsagaan sar, 차간 사르) 음식으로 만두(buuz, 보오쯔)가 있다. 우리가 평소애 많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여섯 개를 접시에 담게 되면 다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게 된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양고기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골에는 원래 꼬치구이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가 없었다. 고기는 기본적으로 삶아 먹는 것이었다. 아니면 원정 시에는 말려서 빵은 고기인 보르츠(borts)를 끓여 먹는 것이 전투식량이었다.

• **유제품(süü~süün bütégdeekhün)** : 오종 가축(五種家畜, tavan khushuu mal)의 젖은 몽골 초원에서 최상의 음료이다. 그리고 우유를 끓이면 온도에 따라 수십 가지의 유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요구르트인 ‘타락(tarag)’은 조선시대 임금만이 드실 수 있는 타락죽으로 대접을 받았으며, 타락을 만들던 동대문 근처의 산 이름도 타락산(tarag山)이었다. 지금은 줄여서 낙산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자로 된 이름인줄 알고 있다. 우유(süü), 요구르트(tarag), 치즈(tsötsgii), 버터(byaslag), 아룰(aaruul) 등 유제품이 유명한 곳은 대부분 유목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목민이 만든 유제품이 유명하지 않은 것은 정주민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몽골인이 가장 많이 즐겨 마시는 수태차(süütei tsai)는 벽돌모양의 ‘전차(磚茶)’을 넣고 물을 끓이다가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이다. 무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수태차를 마신다.

• **음료(undaa), 술(arkhi)** : 몽골 음료 중에 유명한 것이 ‘아이락(ayirag)’ 즉 마유주(馬乳酒)라고 알려진 것이다. 6월에서 9월 정도까지 마실 수 있는데, 시큼털털한 맛이 나는데, 마실수록 맛있는 알코올 5~6도의 음료이다. 여름에는 아이락만 10~20 리터씩 마시기도 한다. 아마도 겨우내 먹었던 고기의 독을 제거하는데 좋은 모양이다. 고기가 주식인 몽골인이 비교적 오래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름에 주로 우유와 유제품을 상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아이락에는 다양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몽골의 뜨거운 여름에 알맞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아이락을 소초고리로 종류하게 되면 ‘시밍 아르히(shimiin arkhi)’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맹물처럼 별 맛이 없다. 그런데 조금 마시고 나면 정신은 멀쩡한데 온 몸의 힘이 빠지게 되어 일어설 수 없을 지경이

된다. ‘아르히’는 우리나라 안동소주(아라히~알랭이)의 기원이기도 하며, 그 기원이 아랍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 (3) 몽골인의 주거 : 게르(Ger)

• **게르 짓기** : 몽골인은 자식이 자라면 분가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게르(Ger)’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빛이 들어오고 통풍이 되는 지붕(토노, toono), 지붕을 받치는 기둥(bagana)과 서까래(oni), 접이 벽(hana), 접이 벽 연결을 위한 낙타 목 가죽, 문(haalaga), 깔개인 두꺼운 펠트(에스기, esgii), 화로(gal golomt), 침대(오르, or), 농(아브다르, avdar), 부엌 용구 등을 미리 하나하나 준비한다. ‘게르’는 몽골인에게 우주 그 자체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한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의 게르에서 이루어진다. 초원에 있는 게르는 멀리서 보면 마치 파란 융단위에 박힌 황금빛 단추(altan tobči)처럼 보인다. 바람이 많은 초원에 서 있는 게르는 마치 온갖 외세에도 넘어지지 않는 몽골인의 강인함처럼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땅에 달라붙는 이치라고 할 수도 있다.

• **게르 해체** : 그러나 몽골인의 숙명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동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 년에도 몇 차례나 이사를 해야 한다. ‘게르’를 짓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은 더 쉽고 빠르다. 몇 년에 한 번 이사하는 것도 힘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삶이다. 따라서 유목민에게 많은 이삿짐은 불필요하며, 무언가를 저장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옛날에는 이웃 부족의 침입이라도 받게 되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거대한 부(富)’는 오히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 물론 유목은 부의 축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사를 하려면, 먼저 얼마 되지 않는 가재도구를 꺼내고, 지붕과 벽을 싸고 있던 흰 천과 두꺼운 펠트를 걷어버리면 ‘게르’의 뼈대를 이루는 벽과 지붕만 남게 된다. 지붕과 벽을 연결한 서까래를 하나씩 내리고 천정을 내린 다음에 벽을 해체하면 이사 준비는 끝난다.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수레나 낙타 등에 균형을 맞추어 짐을 싣고 다음 숙영지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다. 자연을 경외하는 몽골인은 반드시 이동하기 전에 기둥을 세웠던 곳을 다시 흙으로 메우고 우유나 우유차(süütei tsai, 수태차)를 뿌려 ‘어머니’인 땅을 달랜 다음 출발한다.

# 문화로 본 일본 근대사

박삼헌 (건국대)



# 문화로 본 일본 근대사

박삼헌 (건국대)

## 1. 메이지유신과 문명개화정책

### 1) 관적봉환과 폐번치현

- '5개조 서문'을 발표하여 개국 방침과 공의 여론에 따른 통치 우너칙을 밝히고, 고대의 태정 관제를 바탕으로 정부 기구를 조직했으며,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고 천황을 도쿄로 옮겨 새로운 수도로 삼음.
  -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 실시 : 시간을 천황이 지배함.
- 1869년 보신 전쟁이 마무리되자, 정권의 핵심인 사쓰마·조슈·도사·히젠의 번주들을 설득하여 이들이 세습적으로 지배해 온 토지와 인민에 대한 권리를 정부에 반환하는 관적봉환을 단행했으며, 다른 번들도 이를 따름.
  - 번주는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번지사가 되고, 접수한 막부령에는 부·현지사가 임명됨.
- 신분제도를 개혁하여 다이묘와 상층 귀족은 화족, 일반 무사는 사족, 농공상민은 평민으로 정함.
  - 더불어 사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민의 성씨 사용, 신분 간 결혼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허용함.
- 1871년 번들을 통폐합하여 현을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임명한 지사를 각 현으로 파견하는 폐번치현이 단행됨.
  - 이로써 막번체제는 완전히 해체되고 전국의 중앙집권화가 완성됨.
  - 신정부의 대외적 과제는 바쿠후가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것.
    - 막부가 서구 열강과 맺은 조약의 개정 기한은 1872년 5월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871년 11월에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대표로 하는 대규모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으로 파견함.

-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등 당시 정부 실력자들을 포함한 사절단 인원 46명에 유학생과 수행원 약 60명을 포함해 총 100명을 넘는 규모.
- 사절단의 목적은 첫째 조약 체결국 원수에게 국서(國書) 전달, 둘째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교섭, 셋째 서구 각국의 제도·문물 조사였지만, 이 가운데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교섭은 첫 번째 교섭국이었던 미국에서부터 실패함.
- 하지만 사절단은 2년 여 동안 미국과 유럽 각지를 순회하며 근대화 정책의 방향을 시찰하고 귀국함.

## 2) 중앙집권 정책의 실시

### (1) 1873년 징병령 실시 : 일반 국민을 기초로 한 근대적 군사제도 탄생

- 1872년 국민개병의 원칙을 담은 징병고유를 발표하고, 1873년에는 징병령을 공포함.
- 더불어 1872년에는 병부성을 폐지하고 육군성과 해군성을 설치하여 군제를 정비함.

### (2) 1873년 지조개정 : 조세제도의 근대화

- 정부는 막부의 연공징수권을 계승했지만, 연공 수취가 쌀값 변동과 작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 정부는 토지세제 개편을 목적으로 1871년 법적으로 금지되어 온 토지소유권과 매매권을 인정하고 토지권리문서인 지권을 교부함.
- 이어서 1873년 지조개정조례를 공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지조를 지가의 3%로 정하고, 이를 지권 소유자가 매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었다.
- 이로써 정부는 매년 일정한 세수가 확보되어 재정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됨.  
즉 예산 편성이 가능하게 됨,

### (3) 1872년 학제 :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는 국민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완비

- 전국을 여덟 개 대학구로 구분하고, 소학교·중학교·대학교와 시범학교 등의 제도 설치
- 6세 이상 남녀의 소학교 진학 의무화
- 소학교 설치비와 수업료는 민간이 부담해야했기 때문에 민중의 불만을 샀.

## 3) 기타 문명개화정책

1871년 단발령 : 천황이 직접 단발하는 예를 들어 서양식 두발이 유행함.

1871년, 우편 규칙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우편제도 정비

1872년 태음력을 폐지하고 태양력을 채택함과 동시에 1일을 24시간으로 통일함.

→ 1872년 12월 31일이 1873년 1월 1일로 변경됨.

1872년 신바시(新橋)와 요코하마(横浜)를 잇는 최초의 철도를 부설함.

1874년 아오모리(靑森)-도쿄-나가사키 사이에 전신 설치

1876년 화족과 사족에게 지불되던 녹봉의 특권 폐지

→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무사의 봉건적 특권 폐지를 명분으로 내세움.

→ 수년 분의 가록(家祿)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청산하고, 패도령(廢刀令) 등의 사족 특권을 폐지하면서 평민과 사족의 구분을 사실상 없애 버림.

→ 이러한 조치로 일부 부유한 화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하급 사족은 몰락하였고, 관리나 경찰관, 학교 교원으로 직업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사 계층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었다. ← 불평 사족의 등장

● 평민들 사이에서는 문명개화정책 반대 잇기가 끊임없이 발생함.

● 이 같은 상황에서 서양을 소개하는 다양한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그중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1866)은 초판이 15만 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 《서양사정》의 경이적인 판매 부수는 근대 일본의 역사인식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화이질서적 관점에서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의 진보와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크게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 이후 후쿠자와는 세계가 ‘혼돈’에서 야만과 ‘미개’를 거쳐 ‘문명’으로 나아간다는 문명 발전 사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으며, 이러한 역사인식의 전환은 메이지 정부가 ‘문명개화’를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 1869년 메이지정부는 아이누의 땅이었던 곳을 홋카이도(北海道)라 명명하고 개척사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사업을 추진함.

→ 홋카이도 개척은 1880년대에 10여 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죄수 노동에 의한 도로와 철도 건설, 광산업, 목공, 제강에서 맥주회사, 제당산업 등 식품 가공업 외에도 홋카이도 농업학교를 세워 서양식 농법을 이입시킴.

→ 홋카이도 개척 당시 인구는 아이누 2만 명, 일본인이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이누는 철저한 동화정책에 의해서 말살되어졌고, 1904년 불평사족과 평민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둔전병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약 4만 명이 개척에 종사함.

## 2. 입헌체제 수립과 근대천황제

### 1) 입헌체제의 수립과정

- 당시 최고 실력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1882년 3월 유럽 헌법 조사단을 이끌고 18개월에 걸쳐 유럽 주요 나라를 방문함. 그 결과 독일식 헌법을 채택하기로 함.
  - 1886년부터 이토의 지휘 아래 독일인 헤르만 뢰슬러, 알프레드 모세를 고문삼아 헌법 초안 작성이 시작되었고, 1886년 6월 추밀원 심의를 거쳐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헌법 (이하 제국헌법)'이 천황에 의해서 공포됨. ← 흥정헌법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제국헌법은 제정 과정에서 민의를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자유민권운동의 요구보다 국가권력의 강화라는 정부의 의도에 충실했다는 한계를 지님.
- 천황은 신이면서 동시에 군주라는 이중적 성격을 부여받으면서, 초헌법적 존재이자 헌법 기관으로 규정됨.
- 제국헌법 발표이전에 정부 형태는 1885년에 태정관제에서 내각제로 바뀜.
  - 내각은 각 국무대신의 임면권을 가진 천황에게 종속됨. ← 의회로부터의 초연내각
-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 귀족원은 황족, 화족 출신의 세습직과 천황에 의해서 임명되는 칙선의원으로 구성되어 내각의 방패 역할을 함.
  - 중의원은 선거로 구성되는데, 국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자신가들의 대변인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음.
-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 선결권이었지만, 의회의 반대로 예산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시행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두어 의회의 영향력을 제한함.
-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재판소가 그것을 행한다'라고 규정된 것처럼, 천황을 내세운 내각의 행정권에 종속된 면이 많았음.
- 제국헌법 제정은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님. 무엇보다도 헌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고 중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 점은 입헌체제의 형식적 완성을 보여줌.
  - 하지만 제국헌법에 의해 수립된 근대일본의 국가체제는 천황 중심의 전제적 성격이 두드러짐.
  - 1890년 충효라는 유교도덕을 강조한 교육칙어의 공포는 천황주의를 국가이념의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임.

## 2) 메이지천황의 초상과 시각 정치



1872년 촬영



1872년 촬영



1888년 제작(어진영)

## 3) 메이지 문화의 발달

### (1) 교육의 보급

- 1872년 학제의 보급 이후 1879년에는 교육령이 공포되었고, 소학교 보급 노력에 힘입어 의무 교육 취학률이 높아짐,
- 1886년에는 학교령이 공포되었고, 1890년에는 심상 소학교 314년간의 의무교육제가 정착되었으며, 1907년에는 6년간으로 연장됨.
- 1866년 소학교 재학생은 학령기 아동의 46%, 1895년에는 60%, 1900년에는 90%, 러일전쟁 이후에는 95%에 달했으며, 점차 남녀의 취학률도 거의 비슷해짐.
- 1890년에 반포된 '교육칙어'는 충군애국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1903년부터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됨.
- 고등교육 : 도쿄대학은 1866년에 도쿄제국대학으로 개칭되고, 이후 제국대학은 교토(1897년), 도호쿠(東北, 1907), 규슈(1910)에 각각 설치됨.
- 한편 민간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의숙(慶應義塾), 도시샤영어학교(同志社英語學校), 오쿠마 시게노무(大隈重信)의 도쿄전문학교(東京專門學校, 早稲田大学)등 사립학교가 설립됨.
- 1899년에는 고등여학교령이 공포되어 '양치현모'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여자사범학교, 고등여학교 등을 만들었고, 사립학교로는 일본여자대학교, 여자영학숙(女子英學塾, 나중에 津田塾女子大学) 등이 설립됨.

## (2) 도쿄의 변모

- 도쿄시의 초기 인구는 약 110만 정도였는데, 1908년에는 210만 정도가 되었고, 19세기 말에는 도로와 상수도를 중심으로 수도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져 감.
  - 마차는 전차로 바뀌고, 1911년에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으며, 19124년에는 도쿄역이 완성됨.
  - 도쿄역에서 황거(皇居)에 이르는 마루노우치(丸の内)에는 미쓰비시(三菱)가 토지를 불하 받아 빌딩을 잇달아 지었고, 1911년에는 제국극장이 준공됨,
  - 이 무렵에는 전등이 절반 정도의 세대에 보급되었고, 1903년에는 히비야(日比谷) 고원이 개원됨.

## (3) 이름의 변화

- 이름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보여 주는데, 일본 여성의 이름 끝 자로 가장 많이 쓰이는 '~코(子)라는 이름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거의 없었고, 메이지 말기에 이르면서 '명문가의 따님'들에게만 쓰였던 '~코'라는 이름짓기가 유행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코'가 무척 늘어나게 됨.
- 남자의 경우에도 러일전쟁을 전후로 현(現), 학(學), 수(秀), 민(敏), 영(英), 지(智) 등의 학력이나 학식을 중요시하는 이름과 승(勝), 군(軍), 무(武), 용(勇), 맹(猛), 극(克) 등 용감함과 강건성을 뜻하는 이름이 늘어남.

## 3. 다이쇼 이후 도시문화와 대중문화

- 1차 세계대전시기 무렵 일본은 공업화가 더욱 진전되었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발달함.
- 1918년 대학령 발표로 종합대학 이외에도 단과대학과 공립 및 사립대학들이 생겨나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는 인구가 수만 명으로 증대되면서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관리가 되거나 회사에 취직하여 봉급생활자가 됨.
  - 이들은 와후쿠(和服) 차림의 상인이나 직인들과 달리 양복 차림을 하고 샐러리맨 사회를 형성했고, 여성들의 경우는 양복을 금기시했는데 직장 여성들이 제복으로 양복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보급되기 시작함.
- 종종 발생하는 쌀값 폭등 등으로 인해 육군이 대용 식품으로 빵을 먹게 되면서 빵 소비량이

증가했고, 카레라이스나 고로케, 돈가쓰 등이 일본제 양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아직 비싼 육류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양식 메뉴였음.

- 주거 환경은 대도시 교외에 '문화주택'이라 불리는 서양식 소시민용 주택이 많이 세워짐.
-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문화의 특색은 교육과 저널리즘(대중매체)의 발전에 힘입어 대중문화가 국민적 확대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음.
  - 신문과 잡지의 경우, 독자층이 대중화되면서 1924년 국민 대중잡지를 표방한 『킹(キング)』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발행부수 100만 부를 넘는 신문들도 나타나기 시작함.
  - 1926년 가이초샤(改造社)가 현대일본문학전집을 권당 1엔의 저가로 발행하는 '엔폰(円本)'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1927년에는 이와나미(岩波) 문고의 간행이 시작됨.
  - 1925년부터 시작된 라디오 방송은 뉴스 속보와 표준어의 전국적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함.
  - 이 시기에 지금의 고시엔(甲子園)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의 전신인 '전국 고등학교 우승 야구 대회'가 인기를 끌기 시작함.
  - 전국적 영화도 인기를 모으면서 상영이 확대되었으며, 미쓰코시(三越)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한 모던한 소비생활이 확대됨.

#### 4.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의 사상적 특성

##### 1) 일본 파시즘사상과 그 이데올로기적 특성

###### (1) 황실주의(일본정신과 일본주의)

- 일본의 국체(国体), 즉 천황제의 존엄을 의식하고, 국체를 배반하는 것을 일체 거부하며 일본정신, 일본문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일본국체의 정화(精華)", "일본건국의 정신", "대일본의 도(道)"를 일본내외에 발양할 것을 강조.
- 일본의 국가구조의 근본적인 특질은 가장(家長)으로서, 국민의 총본가(總本家)로서의 황실과 적자(赤子)로 구성된 가족국가(家)가 국가원리로 주장됨 ← 일본만의 특징

###### (2) 농본주의(反자본주의)

- 국가권력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에 의하여 산업·문화사상 등 모든 면에서 강력한 통제를 가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거꾸로 지방농촌의 자치에 주안을 두고 도시의 공업적 생산력의 신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농본주의적인 특색에서 기인.

- 1933, 34년에 있었던 초유의 흉작으로 농촌경제가 전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는 당시 농촌출신의 병사들이 주축이었던 군대조직의 기강확립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 ← 군대의 중간 관리급에 의한 정부비판 및 국가개조의 등장

### (3) 대아시아주의

- 일본을 아시아 민족의 맹주로 삼고 백인종, 특히 앵글로 색슨의 세계 제패에 대해 유색인종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국익을 철저히 관철하는 대외팽창적 외교노선의 이론적 기반.
- 1930년대 일본우익들은 대아시아주의라는 명분으로 외교정책의 중점을 중국과 만몽지역에 두고 그 지역에서 일본의 권익확보를 주장 ← 만주국

## 2) 일본 파시즘운동의 형태적 · 주체적 특징

- 독일,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달리 독자적인 대조직을 갖지 못했던 일본의 우익은 “국가개조”라는 쿠데타의 단행을 위해서는 군인, 군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음.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국민에 대한 권위를 획득하려고 함.
  - 일본의 군대는 천황 즉 대원수가 직접 통수하는 “천황의 군대”임을 자랑하며, 천황의 권위를 절대시함.
  - 군대는 엄격한 계급구별과 상급자에 대한 절대복종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동시에 군대 밖에서의 지위고하, 빈부차별이 일체 용납되지 않으며 국민이 하나같이 ‘폐하의 수족’으로서 병역에 종사하는 ‘국민개병’의 방침이 세워져 있었음.
- 군대는 一君과 만민을 직접 연결하는 고리이며, 국체의 본체가 바로 군대에 있다는 사고방식이 생김. 즉 군대는 이상사회이고, 군대 밖의 사회는 군대용어로는 ‘지방’ 또는 ‘사파(娑婆)’라 부르며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취급함. 또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승리의 역사가 국민에 대한 군대의 권위를 높여줌.
- 일본 파시즘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이룬 것은 소공장주, 토건청부업자, 소매상업주, 소지주 및 상층 자작농, 학교교원, 동회직원 등으로 형성된 실질적인 국민의 중견층.
  - 이들은 당시 사회의 전체적인 구도상이나 생활양식상 자기수하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피지배층이었음에도 그들의 “소유주(小宇宙)”에 있어서는 소(小) 천황적 권위를 가진 지배자(이른바 명망가)였으며, 온갖 진보적 동향에 대해 가장 완강한 저항자들임.
- 이러한 파시즘의 특징은 대체로 ①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가족적 전통주의 ②농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반(反) 자본주의 ③아시아의 해방이나 군부와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군사적 민족주의 등 세 가지 사상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다는 점이다.

## 5. 전후 고도 경제 성장과 대중 소비 사회

### 1) 1960년대 고도 경제 성장

- 기시 내각을 이어받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은 요시다 수상이 키워 낸 관료 출신의 수상이 주도하던 내각으로, 이들은 60년 안보 투쟁을 계기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경제 성장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 이것이 이른바 '소득 배증 계획'으로 10년간 국민의 실질 소득을 두 배로 늘려 국민의 정치 불만을 경제력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에 힘입어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중엽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을 매년 10%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함.
  - 1964년 10월 10일 개막된 도쿄 올림픽은 전후 일본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세계에 선전 공간이었다. 참고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이어서 1940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쟁으로 무산됨. 또한 10월 1일 도쿄 올림픽의 개막에 맞춰 신칸센(新幹線)이 개통됨.
  - 1970년에는 오사카에서 아시아 최초의 만국박람회(EXPO)가 개최됨.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오사카 만국박람회는 우주개발 경쟁국인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공수된 인공위성을 전시하는 등 연인원 6400만의 관람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함.

### 2) 1970년대 대중소비 사회의 성립

- 고도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일본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1970년대에 농업인구 비율은 20% 이하로 급감했고, 도시 인구는 72%를 넘어섬.
  - 도시화의 진행은 '핵가족'의 비율을 증가시켜, 1960년대에는 핵가족의 비율이 70%를 차지하게 되고 1970년대에는 '전업주부'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여 변화된 가족 형태를 반영함.
  - 가족형태의 변화는 고도성장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데, 1950년대에 이른바 '3종의 신기(神器)'라 불렸던 흑백TV, 세탁기, 냉장고의 보급에 이어, 1960년대 후반에는 컬러TV, 에어컨, 승용차가 일반화되기 시작함. 특히 1959년 황태자(현 천황) 부부의 결혼 퍼레이드 TV중계는 대중매체로서의 TV의 위상을 확립시킴.

→ 1968년 일본의 GNP가 영국과 서독을 앞지르는 가운데 식생활도 윤택해져서 육류와 유제품 소비가 늘고 인스턴트식품과 외식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함. 참고로 1971년 닛신(日清) 식품회사가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라면 생산함.

- 하지만 1970년대에는 연속적인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가 발생했고, 이는 일본의 고도성장을 멈추게 만든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 정치권에 '신보수주의'가 등장하는 배경도 만들었으며, 이리 가운데 히로히토 천황이 죽은 2년 뒤인 1991년부터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장기불황의 나락으로 추락함.



# 조선과 동아시아의 전쟁

강석화 (경인교대)



# 조선과 동아시아의 전쟁

강석화 (경인교대)

## 1. 16세기말-17세기초의 동아시아 정세 변동과 전쟁

### 1) 16세기말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세 변화

- 명: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 내정: 기강 문란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중과세에 저항하는 농민 반란 빈발.
  - 북로남왜(北虜南倭): 몽골족의 난, 여진 세력의 흥기, 왜구의 침입.
- 조선: 훈구세력 쇠퇴. 사림 득세. 여진세력에 대한 통제력 약화.(1583년 이탄개의 난 등), 을묘왜변, 삼포왜란 등 왜인들의 소요 진압. 특별한 대외적 위기의식 부재.
- 일본: 전국시대 마감. · 신무기 조종 도입 및 활용.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달성.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 기도.

### 2) 임진왜란의 발발과 전개

- 일본의 조선 침공 위협
  - 조선의 항복 요구: 정명가도(征明假道) 표방.
  - 조선의 대응: 전쟁을 막으려는 대마도주의 주선에 응하여 정세 파악을 위한 사절 파견.  
내부적으로 원견대립은 있었으나 일본의 침공 예상, 방비태세 점검.  
왜구의 침공이나 기존 왜변 정도의 규모로 예상. 대규모 침공에 대한 효과적 대응 태세를 갖추지 못함.
- 개전과 쏜선의 초기 대응 실패
  - 부산성 · 동래성 전투: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을 이기지 못함.

- 상주전투: 일본군은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상도 병력 격파.
- 충주 전투: 일본군 조총 부대의 공격에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 주력 궤멸.
- 조선 조정의 후퇴: 예상보다 빠른 일본군의 공격 속도에 국왕 선조와 조정은 도성 한양을 버리고 북상. 개성,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후퇴.
- 일본군 일부 병력은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
- 의병과 수군의 활동
  - 의병의 봉기: 각 지역에서 의병 봉기. 일본군의 보급선 공격. 전라도 지역 침공 저지. 일본군은 조선 전역을 장악하지 못함.
  - 수군의 활동: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동으로 일본군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남해안을 따라 진출하지 못함.
  - 일본군은 평양까지 점령하였으나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못하고 고착됨.
- 명군의 참전과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의 성격 변화
  - 명은 조선의 요청에 응하여 지원군 파병.  
일본군이 중국 침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전쟁을 일으켰으므로 명으로서의 자국 영토를 침범당하기 전에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려 하였음.
  - 평양성 전투와 전세 역전: 조·명 연합군의 공격으로 일본군은 평양 포기. 한양으로 철수.
- 명·일본의 협상 추진과 결렬
  - 참전의 주요 목표를 달성한 명군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은 남해안 지역까지 군대를 물리고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 함.
  - 일본의 입장: 조선의 남부지역 할양, 명과 무역관계 요구.
  - 명의 입장: 일본군 철수 요구. 도요토미 히데요시 책봉 제안.
- 정유재란과 질본군 철수
  - 협상 결렬 후 일본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재차 공격.
  - 명군은 추가 파병으로 대처. 조·명군은 직산 전투에서 일본군 저지.
  - 원군이 이끈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에서 궤멸적 피해를 입었으나 다시 지휘권을 가지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 격파.
  -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군 후퇴 시작.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 종식.

### 3) 동아시아 국제 전쟁의 영향

- 조선: 막대한 피해를 입음(인명 피해, 문화재 피탈 등). 전쟁으로 경작 인구가 줄고 농토가 황폐해져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농지는 전쟁 전에 비해 1/3로 감소. 경복궁을 비롯한 궁

결과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약탈당함. 노비 대장과 토지 대장이 불타 국가의 재정 수입 대폭 감소. 정부에서는 재정 수입을 보충하고 전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명첩 발급 시작, 그 결과 신분제의 근간 동요. 그러나 전쟁중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등 향촌 사회를 지키려 한 양반사대부 중심의 사회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들의 지배력은 더 강화.

- 군사부분의 변화: 명과 일본의 발달된 군사 기술 수용(명의 불랑기, 일본의 초총 기술). 조총이 조선군의 주력 화기로 자리잡게 됨.
- 원군을 보내준 명에 대한 보은 관념 확산. 재조지은(再造之恩), 대명의리로 발전.
- 일본: 조선의 선진 문물 수용 계기. 목판 및 활판 인쇄술, 도자기 제조 기술 발전.
- 명: 파병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어 농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 이에 저항하는 농민 반란 발발. 세력 쇠퇴. 만주지역 여진세력의 성장을 저지하지 못함. 결국 농민반란으로 명 멸망.

#### 4) 17세기초 동아시아의 정세

- 일본: 내전에서 이긴 도쿠가와 이에야쓰가 새로운 권력자가 되어 에도에 막부를 열게 됨.
  - 인진왜란 참전자가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과 국교 재개. 통신사 요청.
  - 조선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여전했으나 후금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교 회복. 통신사 파견.
- 만주지역 여진의 세력 성장과 후금 건국
  - 여진인들의 상황: 몽골이 금을 멸망시킨 후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별로 분산 거주. 명과 조선은 무역권이나 관직을 이용하여 부족 간 대립 조장, 역량 강화 방지.
  - 누르하치의 등장: 명의 쇠퇴로 만주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자 여진의 부족장 누르하치가 군사를 모아 주변 부족 규합.
  - 후금 건국: 임진왜란으로 명과 조선이 약해지자 누르하치는 힘을 더욱 키워 1616년에 후금 건국.
- 사르후 전투와 후금의 세력 확대
  - 후금의 선전 포고: 후금은 명과 단교 선언, 푸순 지역 공략.
  - 명의 징벌 결정과 조선 원병 요구: 명은 군대를 보내 징벌하기로 결정하고 조선에게 원병 요구.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 조선을 지켜주었으므로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
  - 조선의 파병: 당시 조선의 국왕 광해군은 후금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 파병을 거부하려 하였으나, 명의 거듭된 요구와 대다수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1만여 군사 파견.

- 사르후 전투: 조·명 연합군은 후금군의 기습을 받아 참패. 요동 지역에서 후금의 세력 확대.
- 인조반정(1624)
  - 광해군의 실정(失政)을 명분으로 서인세력 주도의 쿠데타 발생.
  - 친명정책 강화: 가도에 주둔한 명 요동 유격 모문룡 부대 적극 지원.
- 영원성 전투(1626)
  - 명 원숭환이 수비하는 영원성을 공격하다가 후금군 참패. 누르하치 사망.

### 5) 정묘호란(1627)

- 후금의 조선 침공
  - 홍타이지 즉위 후 나라의 위신을 회복하고 명과 싸우는데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 침공.
  - 의주, 안주를 거쳐 황해도 평산까지 도달
- 조선의 대응
  - 조정을 강화도로 옮겨 장기전 준비.
  - 하삼도의 병력 동원
- 강화의 체결
  - 후금의 강화 제안: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금의 강화 제안
  - 조선의 승낙: 국내외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형제의 맹약을 맺는 조건으로 강화에 응함 (상호 형제 관계, 개시를 열어 물자 공급 등).  
2개월 만에 전쟁 종식.

### 6) 병자호란(1636)

- 후금의 군신관계 요구
  - 정묘호란 후 후금의 세력 확대. 조선에 군신관계 요구.
- 청 건국(1636)
  - 후금을 청으로 개칭. 홍타이지는 후금 황제에서 청 태종으로 다시 즉위식 거행.
  - 조선에 축하사절 요구 및 군신 관계 재차 요구. 명을 공격하기 전에 조선을 완전 굴복시키려는 의도.
- 조선의 대응
  - 청의 요구에 대해 강경책(척화)과 온건책(주화)이 대립하였으나, 결국 앞서 맺은 형제의 맹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무리한 요구에 반발. 군신 관계 거부.

- 청의 침공과 조선의 항복
  - 1636. 12. 청군 침공. 신속한 진격에 국왕과 조정은 예정대로 강화도에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에서 농성.
  - 포위된 남한산성에서는 출성 항복과 저항 계속을 두고 논쟁.
  - 몇차례 공방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나, 청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여 왕실 가족을 포로로 삼자 인조와 조정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음.

## 7) 병자호란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

- 새로운 사대관계
  - 조선은 청과 사대 관계를 맺음.
  - 청의 입장: 동아시아 대외 관계에서 기존에 명이 가지고 있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요구.
  - 조선의 입장: 무력에 굴복하여 사대 관계를 맺게 된 것에 불만.
- 청의 중국 장악
  -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반란군이 북경을 점령하고 명황제가 자결하여 명이 망하자, 산해관을 지키던 명 장수 오삼계가 청군을 인도하여 이자성 축출. 북경을 장악한 청군은 강남지역 까지 차지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지배권 확보. 천명을 내세워 중원 지배 합리화.
- 조선 중화주의 등장
  - 명에 대한 숭배의식 유지. 군사적 우위를 내세워 복종을 강요하는 청을 의도적으로 무시.
  - 명의 문화를 조선이 계승하였다는 소중화의식, 조선만이 중화문화의 정수를 간직하였다는 조선중화주의로 발전.
- 일본: 임진왜란 이후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겨루었다는 의식.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무위를 해외에 떨쳤다고 인식.
  - 신국(神國) 일본은 국토와 모든 것이 진에 의해 보호받으며, 타국이나 타국민에 비해 일본이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발전. 근대 군국주의의 이념적 바탕 형성.

## 2. 동아시아 전쟁에 대한 이해

### 1) 명칭

#### - 임진왜란

- 조선 - 임진왜란, 일본 文祿慶長の役, 중국 - 항왜원조전쟁(抗倭援朝戰爭)
- 각국의 입장만 내세움.
- 새로운 제안: 조일전쟁(임진왜란→제 1차 조일전쟁, 정유재란 → 제 2차 조일전쟁)  
임진전쟁(The Imjin War: 조선, 일본, 명 등 동아시아 각국이 모두 관련되었다는 점 부각)

#### - 호란: 정묘호란→제1차 조청 전쟁, 병자호란→ 제2차 조청 전쟁

### 2) 임진왜란

#### - 의병의 역할과 의미

- 인식의 형성과정

임진왜란 종전 직후: 명나라 원병의 역할 강조, 이순신과 원균을 제외한 관군, 의병 역할 미미.

조선후기: 의병과 열녀의 역할 강조. 의병장에서 일반 의병까지 확대.

20세기: 식민 지배기 일본에 대한 저항의 상징.

해방 후 국난극복사를 강조하면서 국난 극복의 주체로 상징.

- 의병의 성격

임란 초기 패배는 군사동원체제의 문제나 군사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술적 취약성 때문.

의병의 주력은 단순한 농민이 아니라 낙오된 산졸(散卒)

관군과 협조 관계. 관민 합동 조직.

#### - 해전에 대한 이해

- 조선 수군의 승전 요인: 우수한 전선(판옥선), 화약무기 사용의 전통, 지휘관의 능력
-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 정유재란 초기 칠천량 해전의 참패는 두 수군 지휘관 사이의 갈등 이라기 보다는 현장 상황을 잘 몰랐던 선조와 조정 관료들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

### 3) 병자호란

#### - 광해군과 인조대의 정치·외교적 상황

- 광해군의 ‘중립외교’론 이해

광해군의 정책: 후금을 제어하고 충돌을 막으려 함.

강홍립의 항복: 함께 출동한 명군이 궤멸되고 후금군 기마대와 조우전에서 참패하였기 때문.

광해군대 후금의 입장: 조선과 전면적 대립으로 들어갈 단계가 아니었음.

- 인조반정 후의 외교정책

친명을 표방하였으나 노골적인 배금 정책을 편 것은 아니며 관계도 유지.

광해군대와 인조대는 외교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랐음.

반정의 명분은 광해군의 패륜이었으며, 事大不實은 반정 당시에 제기된 명분은 아니었음.

- 호란의 원인

- 일반적 인식: 조선의 정책 변화(중립외교→친명배금정책)로 인한 침략 자초.

- 정묘호란: 모문룡 부대 제거, 영원성 전투 후 사기 진작, 물자 확보 등을 위한 침략전.

- 병자호란: 인조 정부가 척화파의 정책에 따라 청을 도발한 것이 아님.

형제관계의 맹약을 깨고 군신 관계라는 청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자 청이 침략한 것.

-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문제

정묘호란: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선의 대응. 그러나 조기 강화를 둘러싼 논쟁 시작.

병자호란: 침공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산성 중심 방어 구상과 피난 계획, 강화도 방비, 수도권에 병력 집중 동원 실패

- 주화론과 척화론 이해

- 논쟁의 시작: 정묘호란시 조기 강화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

- 주화론: 협상 및 명분을 세워주는 시도 제안.

- 척화론: 의리 고수 강조.

- 남한산성 농성시의 입장

주화론: 조기 강화(항복)가 조선에 유리할 것.

척화론: 끝까지 저항해야 이후의 무리한 요구를 막을 수 있을 것.

- 평가의 문제: 조선시대의 의리명분론에 대한 이해.



**역사속의 독도:  
세계지도 제작의 역사와 극동의 발견**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속의 독도: 세계지도 제작의 역사와 극동의 발견

이상균<sup>1)</sup> (동북아역사재단)

**요약:**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지리정보는 18세기 초, 청나라에서 제작된 「황여전람도」가 프랑스로 전해졌을 때, 그 안에 포함되어 비로소 서구의 세계지도 제작에 반영되었다. 18세기 후반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동해상을 항해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보와 탐험을 통해 새로 발견된 정보가 지도상에 공존하기도 하고, Argonaut와 같은 가상의 섬이 지도상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지도 제작의 역사를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외부세계에 알려지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19세기 일본의 세계지도 제작 과정에 울릉도와 독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추적하였다. 19세기 중엽, 일본은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일본식으로 모사하는 과정에서 큰 오류를 범하였다. 즉, 기존에 일본에서 인식했던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 명칭을 서구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독도가 빠진 Argonaut와 Dagelet)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松島(독도)는 다즐레(울릉도)에 비정되었다. 한편, 일본은 서구에서 제작된 지도를 통해 알게 된 리앙쿠르 명칭을 한 동안 따라 쓰다가, 1904-5년 무렵, 지도상의 아르고노트를 울릉도 북쪽 연안으로 옮겨 그리면서, 아르고노트에 부여되었던 일본식 명칭(竹島)을 리앙쿠르 암 명칭에 오버랩시켜 오늘날까지 독도를 竹島로 부르고 있다. **주요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다즐레, 독도, 리앙쿠르, 울릉도, 아르고노트, 「조선왕국도」, 「황여전람도」

Abstract: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about Ulleungdo and Usando in Joseon came to be reflected in Western world cartography when it was contained in 「Huangyu quan lan tu」 made in Ching Dynasty and was introduced into France early in the eighteenth century.

1)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kyigeo@gmail.com)

Since the late eighteenth century, such countries a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have sailed the East Sea of Korea and found Ulleungdo and Dokdo; consequently, both the existing information and the new one obtained through the exploration were contained in the maps, or an imaginary island, Argonaut, was found on the map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way Ulleungdo and Dokdo become known to the world by tracing the history of how world maps were produced in modern tim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resentation of Ulleungdo and Dokdo in the world maps drawn by some Japanese cartographers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Japan made an enormous error in copying the world map made in the United Kingdom: the name, Matsusima(Dokdo), was replaced with Dagelet(Ulleungdo) when they uncritically placed the names, Dakeshima(Ulleungdo) and Matsusima(Dokdo), as recognized by the Japanese people, in the Western frame(Dagelet and Argonaut, with Dokdo omitted). Japan used the name, Liancourt, from the maps made in the West; then, in 1904 or 1905, they relocated Argonaut near the northern coast of Ulleungdo on the maps and overlapped the Japanese name, Dakeshima, which had been given to Argonaut, with the name of Liancourt rocks; since then, they have called Dokdo Dakeshima. Key words: Argonaut, Dagelet, Dokdo, Fanling tao, 「Huangyu quan lan tu」, Tchian chan tao, Liancourt, Ulleungdo

## 1. 서론

15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새로운 세계와 문명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해외 식민지 개척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던 스페인은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까지 진출하였으며, 1571년에는 필리핀 제도를 점령하였다. 반면, 16세기 초, 인도 서해안을 점령함으로써 동아시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포르투갈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명으로부터 마카오를 할양받아 동아시아 무역의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7세기 후반, 프랑스 과학원이 국가 지형도 제작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지도를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국과의 삼각망 연결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지의 좌표를 수집해야만 했는데, 이는 지도제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국가들과의 식민지 경쟁 및 상업적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었다. 루이 14세는 동방에 대한 관심과 지도제작에 필요한 세계의 좌표를 수집할 목적으로 선교사

가 아닌 과학자를 중국에 파견하였다(정인철 2014, 586-588).<sup>2)</sup>

한편, 17세기 중엽, 러시아가 흑룡강 방면으로 진출해 오며 따라,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강희제때 청나라는 러시아에 패하였고,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국경을 획정하였다. 청나라 제4대 황제 강희제는 몽골과 티벳 원정 등 몸소 전쟁을 지휘하면서 정확한 지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후, 프랑스 선교사 제르비용(Gerbillon, 중국명 張誠)<sup>3)</sup>으로부터 유럽에서 제작된 아시아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 지도에 포함된 중국의 지리정보는 상세하지 않았다. 이에, 강희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도제작의 필요성을 깨닫고, 서양의 측량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전도 제작을 기획하게 되었다. 10년간의 실측작업 끝에 1717년, 결국, 지도를 완성하고, 강희제는 이 지도를 「황여전람도」라 명명하였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완성한 「황여전람도」는 선교사들의 본국인 프랑스로 보내졌으며,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은 새로운 지리정보가 포함된 세계지도를 제작하여 유럽과 전 세계에 보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와 조선에 관한 지리정보 또한 「황여전람도」에 포함되어 세계 지도제작에 반영되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울릉도와 울릉도의 부속도서들은 이때부터 서구에서 제작되는 세계지도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서구 세계로 전파된 한반도와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지리정보는 라페루즈의 탐험(1787) 이후 점차 수정·보완되었다. 19세기 전반부까지는 울릉도와 주변 섬들에 관한 지리정보가 부정확한 상태로 유통되었지만, 후반부 동안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정보가 신속하게 수정되고 새롭게 정착되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대응하여 영토주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논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외부세계에서 바라본 울릉도와 독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울릉도/독도 관련 연구<sup>4)</sup>는 주로 조선 및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 한정되다보니 자칫 자의적 해석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학술적인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러한 틀을 넘어서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그리고 극동에 관

2)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의 신분이 과학자였던 이유는 당시 동방에서의 교회보호권(padroado)을 가지고 있었던 포르투갈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프랑스 왕실에서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교류 및 중국에 관한 지리정보 수집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왕실 수학자 자격으로 중국에 파송되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정인철의 연구(2014)를 참조할 것.

3)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당시, 프랑스 선교사 제르비용이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강희제의 신임을 받아 결국 프랑스 선교사들이 청나라의 지도제작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이명희, 2011).

4) 이찬, 1978, 한국고지도에서 본 독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연구, 한국사학회 ; 양보경, 2005,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 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북방사논총 7, 7-46. ; 호사카 유지, 2005, 일본의 관인 고지도와 '울릉도 외도'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일어일문학연구 55, 433-454. ; 오상학, 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78-101. ; 호사카 유지, 2006, 임자평도와 독도, 일어일문학연구 58, 220-237 ; 김화경, 2008, 한국의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 : 후나스기 리키노부의 한국 고지도 분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5, 29-68.

해 잘 모르던 시기부터 탐험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해가는 전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서구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외국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울릉도, 독도를 분석한 연구(국토지리정보원, 2007), 프랑스 왕실 과학원이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가 유럽에 보급되었던 역사적 정황을 밝힌 연구(정인철, 2014), 동해의 해양사를 서구 탐험가들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연구(이진명, 2010 ; 서정철·김인환, 2010) 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도제작의 측면에서 동서양 지리정보 교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의 위치 비정문제 등 일부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울릉도와 주변 섬들이 서구지도에 처음으로 등장하던 시기로부터 탐험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바로 잡히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등 세계지도 제작의 역사를 통해 이들 섬에 대한 외부 세계의 인식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계지도 제작에 반영된 19세기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구의 세계지도 제작과정과 그들의 지도제작 전통이 일본의 세계지도 제작에 미친 영향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초,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 특히 한국과 동해상의 섬들에 대한 지리정보가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황여전람도」를 통해 서구세계에 알려진 한국에 관한 지리정보가 라페루즈 등과 같은 탐험가들이 실제로 항해를 하면서 왜곡된 지리정보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둘째, 독도가 서구의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되고, 한동안 지도상에 표현되었던 섬 Argonaut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던 시기에 울릉도와 주변 섬들이 세계지도에 정착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9세기 동안에 일본이 제작했던 세계지도에 독도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인식했던 松島 명칭이 다즐레(울릉도) 섬에 적용되었던 때로부터 1904-5년 무렵, 竹島(아르고노트) 명칭이 현재의 랑코도(독도) 명칭에 오버랩되었던 순간까지 전 과정을 파악하는 작업으로서 이 연구의 핵심이자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세기 일본의 지도제작에 영향을 미친 서구의 지도제작 전통을 밝히기 위해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부까지 약 300년간의 동서양 지도제작의 계보를 한국과 동해상의 섬들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예컨대,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지도들을 분석하면서 서로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도제작의 변천과정에서 드러나는 울릉도와 주변 도서들의 실체는 위치, 모양, 크기, 명칭, 거리 등 다섯 가

지 본질적인 준거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분석작업은 최대한 상식적이고 현실성있는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극동을 사례로 한 지도제작의 변천과정을 통해 지리지식의 세계화 과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2.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의 유럽 전파

울릉도는 한국의 동해안으로부터 130여 km 떨어져 있다. 울릉도의 부속도서로는 울릉도의 북동 해안에 육지의 일부처럼 보이는 관음도(섬목, 목항)와 울릉도 북동쪽 2km 해상에 위치해 있는 죽도(땃섬), 그리고 울릉도 동남방 약 87km 해상에 독도가 있다(그림 1). 한국의 동해상에 위치해 있는 울릉도와 독도를 과거 서구인들은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또한 서구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본 장에서는 18세기 초, 중국에 체류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하여 프랑스로 전해진 동아시아에 관한 지리정보가 서유럽에서는 어떻게 전파·보급되었는가를 울릉도와 독도를 사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서구의 세계지도에 포함된 울릉도와 우산도

중국의 「황여전람도」가 프랑스로 전해진 직후, 프랑스에서는 당빌(J. B. B. D'Anville)에 의해 극동 세계가 더 정확하게 표현된 세계지도가 제작되었다. 당빌의 「조선왕국도(1735)」를 보면, 중국에서 건너간 「황여전람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이 두 지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강원도 평해 앞바다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를 보면, 울릉도는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해상에 표현되었는데, 중국에서 재구성된 지도에는 해안쪽으로 근접하게 표현되었다. 이들 섬의 명칭은 조선에서 불리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울릉도(鬱陵島)의 경우, 반릉도(磬陵島)로 표기되었고, 따라서 프랑스에서 제작된 지도에서는 반릉도(磬陵島)를 중국식 발음으로 읽은 “Fan ling tao”로 표기되었다. 우산도의 경우,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표기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중국식 발음인 “Tchian chan tao”가 프랑스 지도에 표기되었다.



그림 1. 울릉도와 부속 도서 (구글 위성영상,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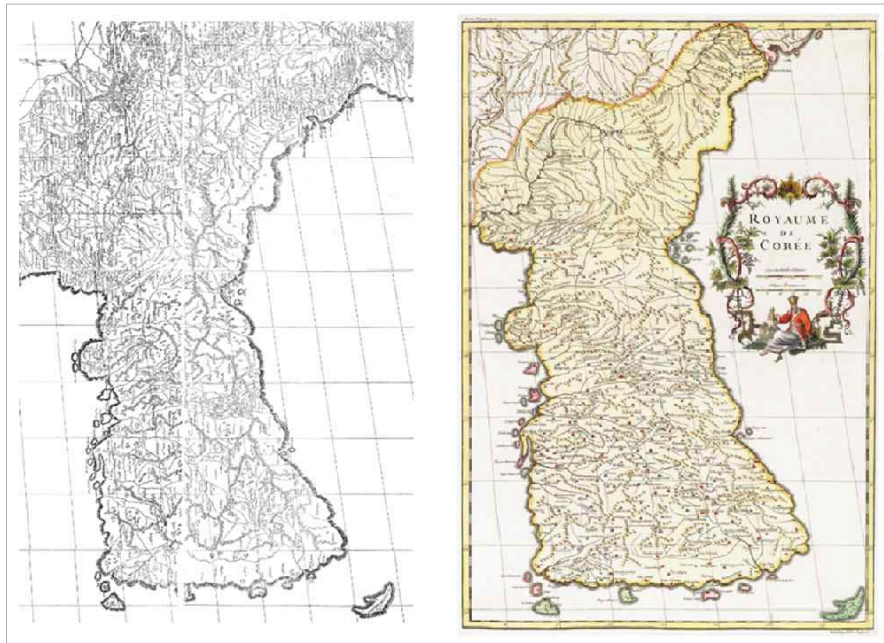


그림 2. 「황여전람도(1717)」의 한반도 부분과 「조선왕국도(1735)」

출처: (좌) 황여전람도 한반도 부분(汪前進 외, 2007)

(우) 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1735, Royaumes de Coré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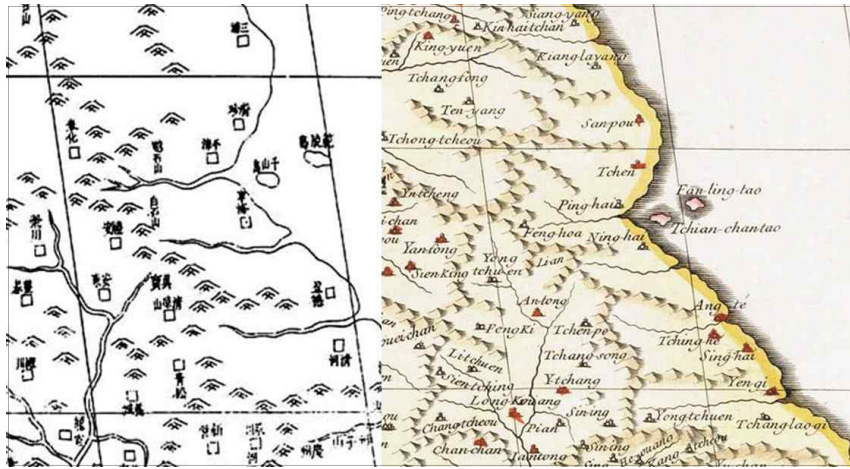


그림 3. 「황여전람도」와 「조선왕국도」의 울릉도·우산도 부분



그림 4. 세계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우산도 부분 : 1700년대

출처: (A) Jacques Bellin, 1750(이태리) ; (B) Jan Bernard Elwe, 1792(네덜란드) ;  
 (C) Johann Tobias Mayer, 1749(독일) ; (D) Robert de Vaugondy, 1750(프랑스) ;  
 (E) Robert Laurie & James Whittle, 1794(영국).

프랑스로 전래된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는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따라서 1700년대 동안에 유럽 세계에서 제작된 한국 관련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강원도 동해안의 평해 앞바다에 “Fan ling tao”와 “Tchian chan tao”로 표기되었다(그림 4).

## 2) 탐험을 통한 지리정보의 정교화

1700년대 초, 중국에서 프랑스로 전해진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는 반세기 이상 전 유럽에 전파되었는데, 1700년대 중·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프랑스의 탐험가 라페루즈(Jean-François de Galaup, Comte de Lapérouse)는 1787년 5월 29일에 울릉도를 발견하고, 같은 배에 동승했던 천문학자 다즐레의 이름을 본따 울릉도를 다즐레(Dagelet)라 명명하였다. 라페루즈의 탐험도를 보면, 이들이 탄 배는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울릉도 서쪽 해상을 돌아 멀리 북동쪽 해상으로 항해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이 지도에서 흥미로운 것은 라페루즈가 발견한 섬 Dagelet(울릉도)가 동해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는데도, 평해 앞바다에는 여전히 구버전 울릉도(Fan ling tao)가 표현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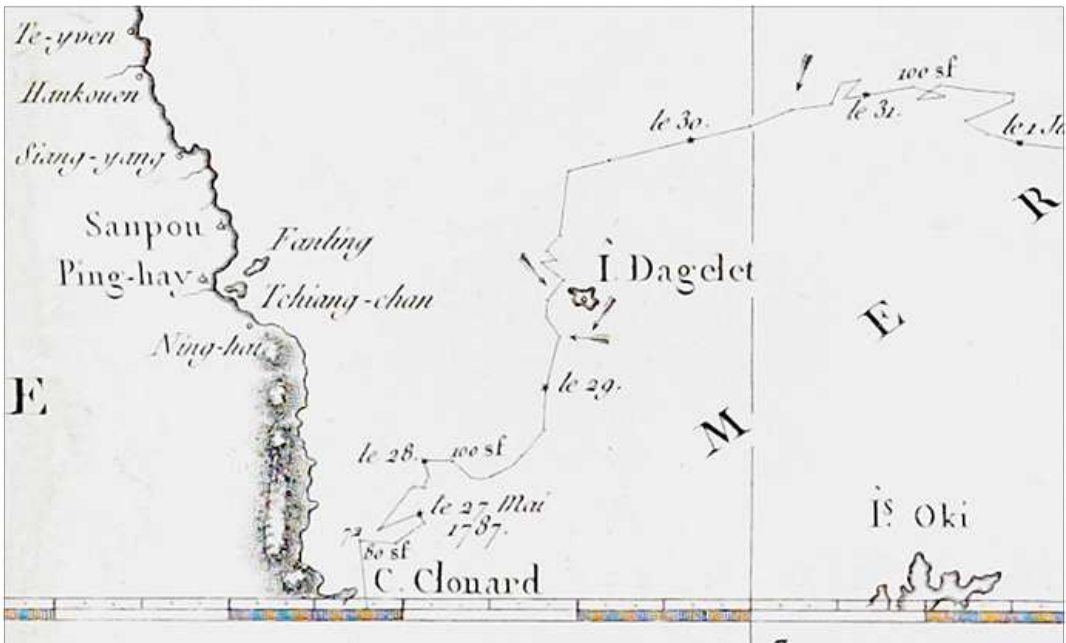


그림 5. 라페루즈의 항해경로와 울릉도(Dagelet) 발견 : 강원도 동해안 및 울릉도 부분

출처 : La Pérouse, 1787, 『Carte des découvertes faites en 1787 dans les mers de Chine et de Tartarie』, France.

1797년, 라페루즈의 『세계탐험기』와 『지도집』이 출간됨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제작했던 동아시아 지도에는 다즐레 섬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영국의 해군 제독 콜넷(James Colnett)은 1789년 4월 26일부터 1791년 11월 3일까지 해양자원 탐사선 아르고노트(Argonaut)호를 이끌고 극동에 대한 탐험을 하면서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를 탐사하였다. 콜넷은 귀국 후 그들의 탐사기록을 영국 해군수로부에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 인근 해상에 그들이 새로 발견한 섬<sup>5)</sup>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그때 이후로 지도상에서 이 섬은 Argonaut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탐험대가 발견한 Dagelet와 Argonaut 섬의 존재는 곧 바로 세계 지도 제작에 반영되었으며, 따라서 19세기 전반부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 그리고 다즐레와 아르고노트가 지도상에 모두 표현되는 등 신규 지리정보의 혼동기로 볼 수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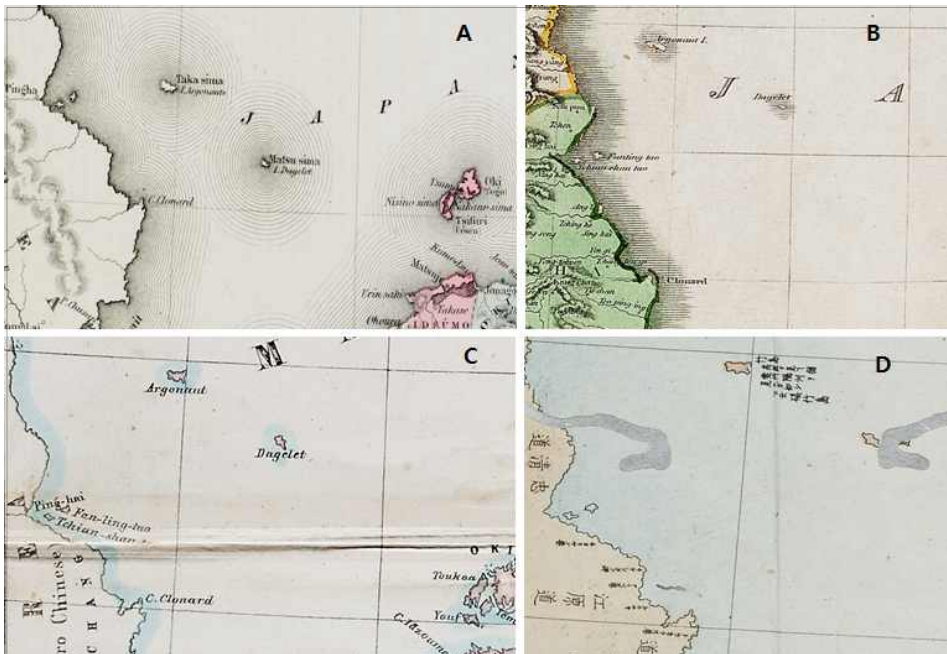


그림 6. 신규 지리정보의 혼동기 : 울릉/우산 +Argonaut(竹島)/Dagelet(松島)

출처: (A) Joseph Hutchins Colton, 1855(미국) ; (B) John Thomson, 1817(영국) ;

(C) John Arrowsmith, 1847(이태리) ; (D) 우치다 신사이, 1872년(일본).

5) 콜넷이 발견한 섬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북위 38도, 동경 129도 되는 곳에서 거대한 바위를 보았다.” 기록에 나타난 이 섬의 특징과 후에 지도제작 과정에서 드러나는 섬의 모양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섬은 울릉도 북동부 해상에 위치한 죽도(땃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콜넷이 탐험하기 훨씬 이전에 프랑스 탐험가였던 라페루즈가 이미 Dagelet를 발견하고 보고하였으며, 그러한 정보를 근거로 콜넷은 탐사를 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르고노트가 표현된 지도는 수 십년 동안 제작되었는데, 이진명은 아르고노트가 등장하는 최초의 지도가 1813년에 제작된 영국 존스(E. Jones)의 『일본도』로 추정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과 미국에서 제작된 지도 및 지리정보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주로 영국의 지도를 모사하면서 신규 지리정보를 그대로 채택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국으로부터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독일<sup>6)</sup>과 일본으로부터 일본식으로 변환된 영국발 극동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여 Argonaut와 다케시마를, Dagelet와 마쓰시마를 병기하기 시작하였다(그림 6).

그 무렵, 영국의 브로튼 선장은 군함 Providence호를 이끌고, 청진, 원산 앞바다를 거쳐 한반도의 동해안을 남하하여 부산 초량 앞바다까지 동해 연안을 탐사한 결과, 해안가에 근접해 있는 어떠한 섬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극동에 관한 지도제작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700년대 초부터 평해 앞바다에 표현되었던 두 섬(울릉도, 우산도)에 대한 존재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그 후, Fan ling tao와 Tchien chan tao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의 크루젠스틴(Krusenstern)은 1803년부터 1806년까지 세계일주 항해를 하였으며, 1809년과 1813년 사이에 2권의 여행기와 1권의 해도집을 출판하였다. 그 후, 1827년에 출판된 『태평양해도집(Atlas de l'Océan Pacifique)』에서 다즐레 및 아르고노트에 대해 “일본에서 말하는 Takasima(竹島)는 Argonaut와 같고, Matusima(松島)는 Dagelet와 같은 섬일 것”이라고 기록하였다.<sup>7)</sup> 사실, 크루젠스틴은 1804년 10월부터 6개월간 일본 나가사키에서 조석(潮汐)을 조사했는데, 당시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본학자들을 통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아르고노트와 다즐레 지명에 각각 병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전반부 동안에는 탐사를 통하여 실재하지 않는 정보가 폐기되고, 새로 발견된 지리정보가 지도상에 정착되었다(그림 7). 그러나 이때까지도 독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지도상에도 표현되지 않았다.

- 
- 6) 독일인 의사이자 박물학자였던 Philipp Franz von Siebold(1796-1866)는 세계지도 제작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시볼트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본인 지리학자 高橋景保(다카하시 가게야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일본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입수하여 독일에서 출간함으로써 극동에 관한 당시의 지리정보를 유럽과 전 세계로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1853년에는 미국 동인도 함대를 이끌고 일본으로 향하는 Matthew Calbraith Perry(1794-1858) 제독에게 시볼트의 저서가 제공됨으로써 일본 및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는 독일을 경유하여 미국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영우·김부성, 2009). 한편, 이른바 시볼트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의 김정호에 비견될 수 있는 일본의 위대한 지리학자 다카하시는 옥사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Klinghoffer, Arthur Jay, 2006, pp. 30-31).
- 7) 국토지리정보원(2007), p.191 ; 서정철·김인환, 2010, 지도 위의 전쟁, 동아일보사, p.308.
- 8) 아르고노트와 다즐레 섬의 위치에 일본식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명칭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러시아측 실수로 인하여 울릉도(다즐레)의 일본식 명칭이 마쓰시마로, 아르고노트는 다케시마가 되는데 절대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도제작 주체들 사이에서 실체와 명칭간의 혼동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일본은 1904-1905년 무렵에 이르러 이들 섬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바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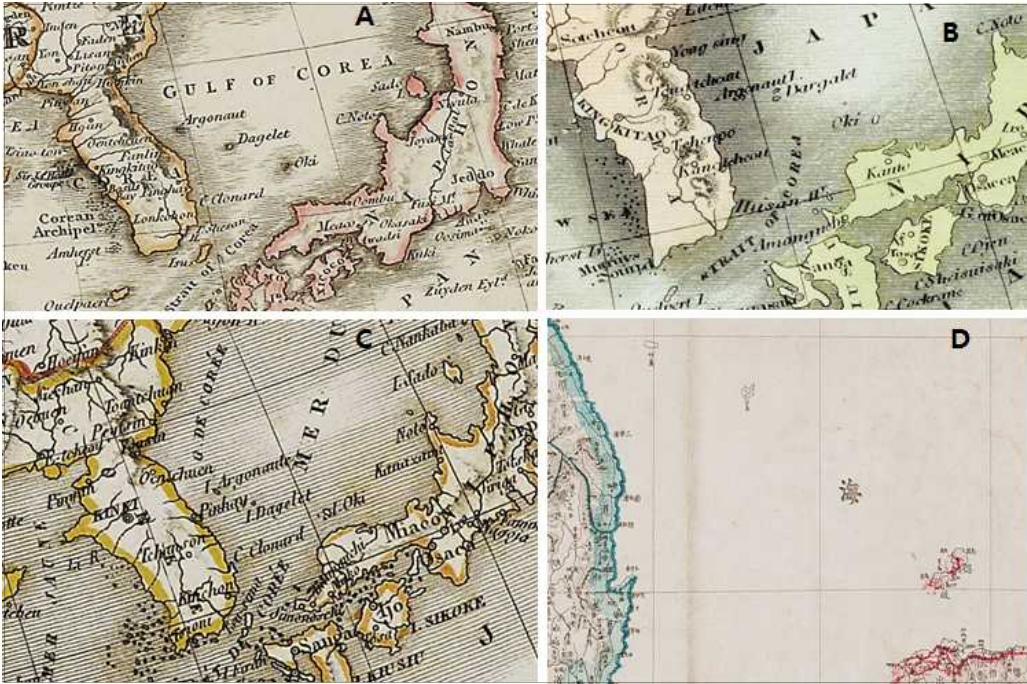


그림 7. 19세기 전반부 동해 부분도: Argonaut(竹島) +Dagelet(松島) +Oki 島

출처: (A) James Wyld, 1827(영국) ; (B) David Burr, 1835(미국) ; (C) Ambroise Tardieu, 1821(프랑스) ; (D) 육군참모국, 1875(일본).

### 3. 독도의 발견과 Argonaut의 폐기

고지도에 남아있는 독도에 관한 명칭은 주로 프랑스식 명칭(Liancourt)과 영국식 명칭(Hornet)이지만, 실제로 독도를 목격했던 증언들은 더 다양하게 존재한다. 국토지리정보원(2007)의 연구에 의하면, 먼저, 제이콥 클리브랜드(Jacob L. Cleaveland) 선장이 이끌던 미국의 포경선 체로키(Cherokee)호가 1848년 4월 16일에 독도를 발견하고 이를 항해일지에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도상에 없는 두 개의 작은 섬을 보았다.” 이어서, 미국의 포경선 윌리엄 톰슨(William Thompson)호가 1849년 3월 18일에 독도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울릉도 동남쪽 40마일쯤 떨어진 해상에서 어떤 해도에도 없는 3 rocks를 보았다.” 1849년, 미국의 포경선 윌리엄 톰슨호가 독도를 목격하기 직전인 1월 27일,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독도를 발견하

고, 1850년 4월에 항해보고서를 해군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이때부터 독도는 섬을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딴 리앙쿠르 암으로 명명되었고, 세계지도에 표기되었다.<sup>9)</sup> 같은 해 4월 29일, 캄브리아(Cambria)호는 항해일지에 “해도에 없는 the small islands를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1853년 4월 18일에는 헨리 니랜드(Henry Kneeland)호가 독도를 목격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울릉도와 Seal rock을 보았으며, Seal rock에 상륙하여 물개 7마리를 잡았다.” 1855년 4월 25일에는 포시트(Forsyth) 함장이 이끄는 영국 군함 호넷(Hornet)호가 독도의 위치를 측정하고, 호넷 섬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프랑스가 영국보다 더 먼저 이 섬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영국 수로지와 해도에도 독도를 “Liancourt Rocks”로 기록하였다. 1857년 3월 27일에는 플로리다(Florida)호가 독도를 목격하고 항해일지에 독도를 “Dagelet Rock”으로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독도를 울릉도(Dagelet)의 자도(子島)인 것처럼 기록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한편, 같은 해, 러시아의 해군성 수로국에서는 「조선동해안도」를 제작하였는데, 이 지도가 제작되기 전, 러시아에서는 푸치아친(E. V. Putiatin)이 팔라다(Pallada)호를 이끌고 1854년 4월, 한반도 동해안과 일본열도 서해안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고 이 섬의 이름을 각각 올리부차(Olivoutza)와 메넬라이(Menelai)로 명명하였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의 동해상에 표현되었다. 한편, 1862년, 일본은 러시아가 이미 제작했던 「조선동해안도」를 모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독도를 조선의 동해상에 표현하였다.

---

9) 서양지도에 리앙쿠르 암이란 명칭이 표기된 시기는 1853년으로 추정된다. 1853년에 프랑스 해군수로부에서 제작한 해도 「태평양 총도」에 울릉도는 Dagelet가 아닌 마쯔시마로, 독도는 Liancourt로, 그리고 아르코노트는 점선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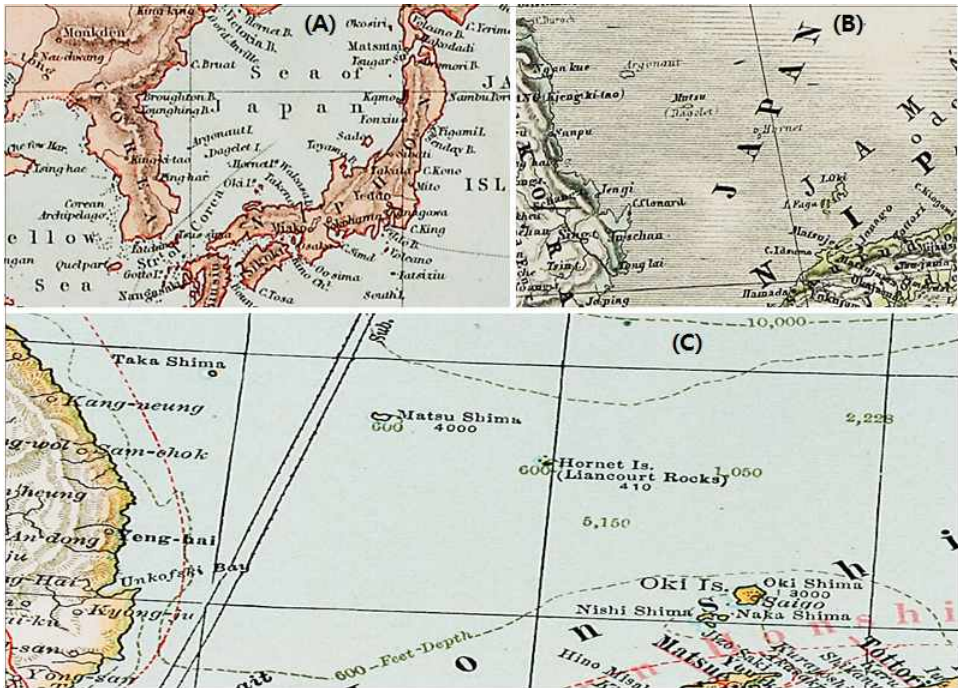


그림 8. 독도가 포함된 동해 부분도: Argonaut +Dagelet +Liancourt(Hornet) +Oki

출처: (A) John Bartholomew, 1879(영국) ; (B) Weimar Geographisches Institut, 1886(독일) ; (C) The Century Co. New York, 1911(미국).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독도를 발견한 이후, 독도가 세계지도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세기 중반이며, 이 시기에 독도의 존재는 대부분의 세계에 광범위하게 알려진다. 일본은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일본식 버전으로 모사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일본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세계지도에는 독도에 해당하는 리앙쿠르나 호넷은 없으며, 다만, 1867년에 제작된 「대일본국연해약도」에는 독도의 존재가 표현되어 있으나 일본식 고유 명칭이 아닌, 리앙쿠르 발음을 일본어로 옮긴 정도에 불과하다. 「대일본국연해약도」는 영국의 지도(영국해군수로부, 1863, 「Japan and Korea」)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Argonaut는 竹島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9). 이 지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서구인들이 탐험을 통해 발견한 Argonaut, Dagelet, Liancourt(Hornet) 섬은 19세기 후반 지도에 모두 반영되었다(그림 8). 이 시기에 제작된 지도에는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지도제작 국가들이 발견한 지리정보가 모두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기에 Argonaut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지도에 그대로 표현되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새로 발견된 지리정보를 비판없이 수용

하였지만, 항해와 탐사를 통하여 섬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르고노트는 해당 지점에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지도제작 주체들은 이 섬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지만, 이 섬의 존재를 지도에서 한꺼번에 지우지 않았으며, 우선 점선으로 남겨두었다(그림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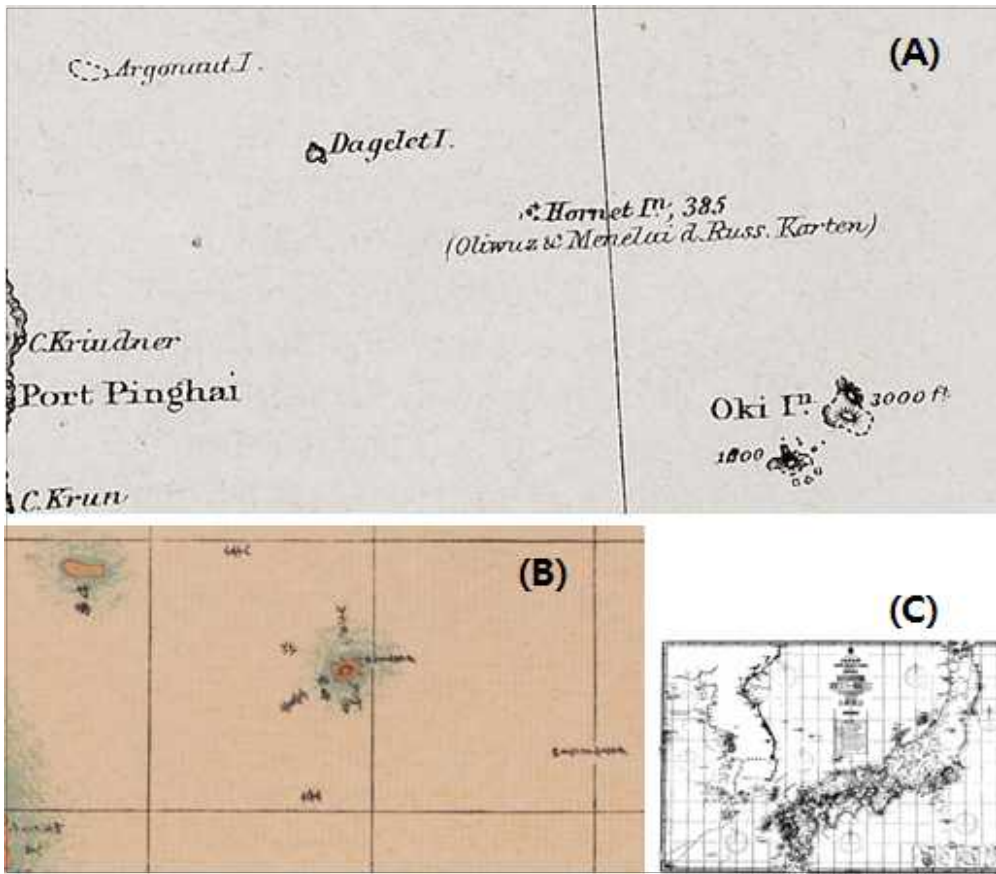


그림 9. Argonaut 섬의 존재에 대한 의심단계 (1)

출처: (A) Augustus Petermann, 1858(독일) ; (B) 가쓰가이슈, 1867(일본) ; (C) 해군수로부, 1863(영국).

1852년 7월 25일, 프랑스의 호끄모렐(Roquemaurel) 대령은 군함 카프리시외즈(Capricieuse)를 이끌고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북상하면서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던 아르고노트 섬 부근을 두 번이나 지나갔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호끄모렐 대령의 탐사 결과는 1854년에 제작된 해도에 반영되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07). 즉, 울릉도는 Dagelet로 독도는 Liancourt로 표현된 반면, 울릉도 북서쪽 해상에 표현되었던 Argonaut는 점선으로 나타내는 등 이 섬의 실체에 대한 의심 정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10. Argonaut 섬의 존재에 대한 의심단계 (2)

출처: (A) 육군참모국, 1876(일본) ; (B) Alexander Keith Johnston, 1884(영국) ; (C) Mikhail Alexksandrovic von Pogio, 1895(러시아).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아르고노트, 다즐레, 리양쿠르 등 모든 섬들이 지도상에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후반부에는 실체가 불명확했던 아르고노트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울릉도와 독도의 2도 체제가 정착된다(그림 11).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일본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일본에서 세계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마쓰시마) 또한 일반화되었다.<sup>10)</sup> 그러나 독도명칭은 일본식 명칭이 아닌 리양쿠르로 통용되었다. 요컨대, 18세기 초에 중국을 통해 프랑스로 건너간 한반도와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지리정보는 탐험과 재발견의 과정을 거쳐 19세기 중반 이후 정교화 되었으며, 섬의 위치, 모양, 크기 등이 실제로 가깝게 지도에 표현되었다(그림 11).

10) 시볼트는 일본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일본발 지리정보를 유럽으로 유통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840년 무렵에는 이미 아르고노트와 다즐레 명칭이 세계지도에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리정보의 유통에 영향을 미친 시볼트의 역할에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시볼트가 제작한 일본번역약도(1832)에는 마쓰시마가 위에 표현되었고, 아래에는 다케시마가 표현되었다. 반면, 1840년에 제작된 「일본전도」에는 위쪽에 다케시마를 표현하고 아래쪽에 마쓰시마를 표현하였다. 이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아르고노트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마쓰시마는 라페루즈가 발견한 다즐레로 표기되어 있다. 요컨대, 시볼트의 1832년 지도의 지리정보는 전혀 근거없는 엉뚱한 정보였던 반면, 1840년의 지도는 당시에 유통되었던 지리정보를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마쓰시마)이 세계화되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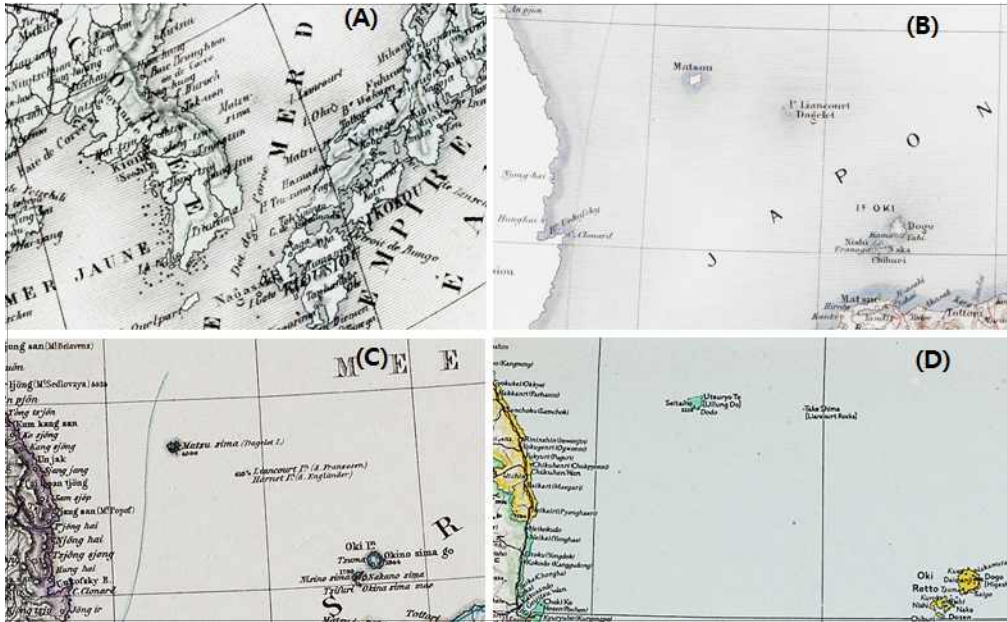


그림 11. 울릉도/독도 인식의 원성단계 : 19세기 후반

출처: (A) J. Migeon, 1885(영국) ; (B) G. Lorisignol, 1885(프랑스) ;

(C) Augustus Herman Petermann, 1886(독일) ; (D)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45(미국).

#### 4. 19세기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지금부터는 일본의 지도제작과 울릉도, 독도 인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일련의 세계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주변 섬들에 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서구의 지리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리지식을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주변 섬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대일본국연해략도(1867)」나 「아세아동부여지도(1875)」를 보면, 동해상의 섬들은 竹島(아르고노트)와 松島(울릉도, 다즐레)의 프레임이거나 竹島(아르고노트), 松島(울릉도, 다즐레), 리앙쿠르암의 프레임으로 배치되었다. 여기서 리앙쿠르암은 오늘날의 독도인데,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해 그들만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구인들이 제작해 놓은 지도를 그대로 따라 그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세기 중반 무렵, 서구 지도제작자들의 대다수가 지도상에 의문을 표현했던 아르고노트 섬의 정체에 대해, 일본인들 또한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부정확한 지도제작을 답습하였다(그림 9, 10). 그러나 서구인들이 이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지도에서 폐기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이 섬의 정체에 대해 달리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섬은 울릉도 북동방향 2km 해상에 실존하는 섬(죽도, 땃섬)으로서 단지 지도상에 잘 못 표현되었을 뿐, 가상의 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한동안 잘 못 표현되었던 이 섬(아르고노트)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동시에, 이 섬에 부여되었던 명칭(竹島)은 당시에 리앙쿠르 암으로 불리던 오늘날의 독도에 오버랩 시켰던 것이다. 잘못되었던 지리정보를 수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1904년에서 1905년으로 그리 길지 않았다.<sup>11)</sup> 일본인들이 의문의 아르고노트 섬을 울릉도 인근 해상에 실존하는 섬으로 인식하고 지도정보를 수정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그림 12). 아르고노트 위치에 있던 竹島를 울릉도의 북동 해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과 실제 크기로 축소시켜서 울릉도 북쪽 연안에 밀착되게 표현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이 과정에서 울릉도와 죽도(←아르고노트)는 그 모양이나 크기가 실제로 가깝게 수정되었는데, 이때, 竹島(다케시마) 명칭은 탈락되고, 대신에, 오늘날의 독도인 리앙쿠르 명칭에 오버랩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이 시기는 러일전쟁 중이었으며, 따라서 동해상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2) 그러나 그림 12의 네 번째 지도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죽도는 실제로 울릉도의 북쪽이 아닌 북동쪽 연안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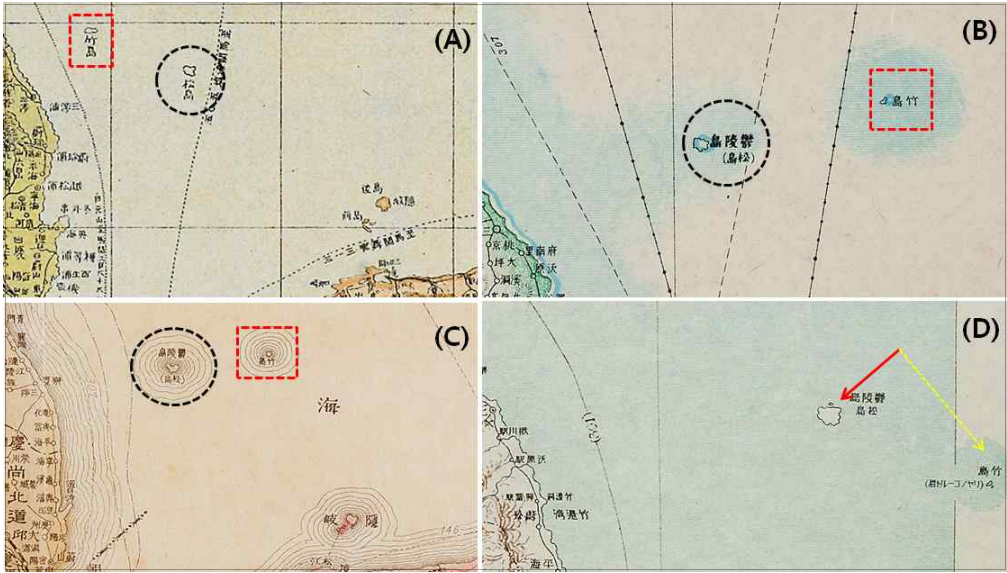


그림 12. 竹島 명칭의 오버랩 과정(아르고노트/竹島 → 竹島/리앙쿠르)

출처: (A) 하마모토 이사부, 1904 ; (B) 이토 마사조, 1904 ; (C) 호사카 슈이치, 1904 ;  
(D) 사이키 히로나오, 1905.

그림 12를 통해 밝혀진 결과에 대해, 일본인들은 본래 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지도제작상의 오류로 인하여 울릉도 북서쪽 해상의 아르고노트 자리에 잘못 표현했다가 나중에 이를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명조차 제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인들이 서구에서 제작된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사실과, 같은 지도에서 아르고노트 위치에 竹島라는 명칭의 섬을 분명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인들이 독도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그림 13의 첫 번째 지도를 통해 확인되며<sup>13)</sup>, 그 나머지 지도들에는 독도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13) 이 지도(勝海舟, 1867, 대일본국연해약도)에서 일본인들이 독도를 제대로 인식한 것은 아니며, 단지 영국지도(영국해군 수로부, 1863, Japan and Korea)를 무비판적으로 모사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17세기 중엽, 일본 시마네현 일대의 로컬 수준에서는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竹島 도해금지 조치 및 竹島 外 1島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태정관 지령(187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오랫동안 이들 두 섬은 일본인들의 인식 밖에 있었던 관계로, 19세기 말엽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일본이 세계지도를 제작할 때 독도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으므로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모사하면서 리앙쿠르 암을 따라 그리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지금까지는 서구의 세계지도 제작의 역사와 그들의 지도제작 전통이 일본의 세계지도 제작에 미친 영향관계를 통하여 19세기 일본의 세계지도에 반영된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천사를 검토하였다. 사실,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 1). 첫 번째 유형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지도제작의 영향이 반영된 아르고노트(竹島)+다즐레(松島) 계통이며, 두 번째 유형은 조선지도의 영향으로 같은 지도에 울릉도가 두 번 표현된 계통이며, 세 번째 유형은 일본의 로컬 수준에서 인식했던 전통적인 일본식 인식구조가 반영된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지도를 기죽도약도 계통의 지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표 1〉 19세기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유형

유형	특징	내용	지도 사례
A	아르고노트+다즐레(竹島)+松島) - 서양지도의 영향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일본식으로 모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본에서 인식했던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 명칭을 서구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독도가 빠진 아르고노트와 다즐레)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松島(독도)를 다즐레(울릉도)에 비정	아세아동부여지도(육군참모국, 1875)
B	울릉도가 두 번 표현된 지도 - 조선지도의 영향	조선의 우산국(울릉도)과 일본의 다케시마(울릉도)가 같은 지도에 동시에 표현	삼국접양지도(하야시 시헤이, 1785)
C	기죽도약도 계통 지도 - 일본의 전통적 인식들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를 조선의 영토(부산지역)와 마찬가지로 일본영토 범위 밖에 그려 놓은 지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나가쿠보 세키스이, 1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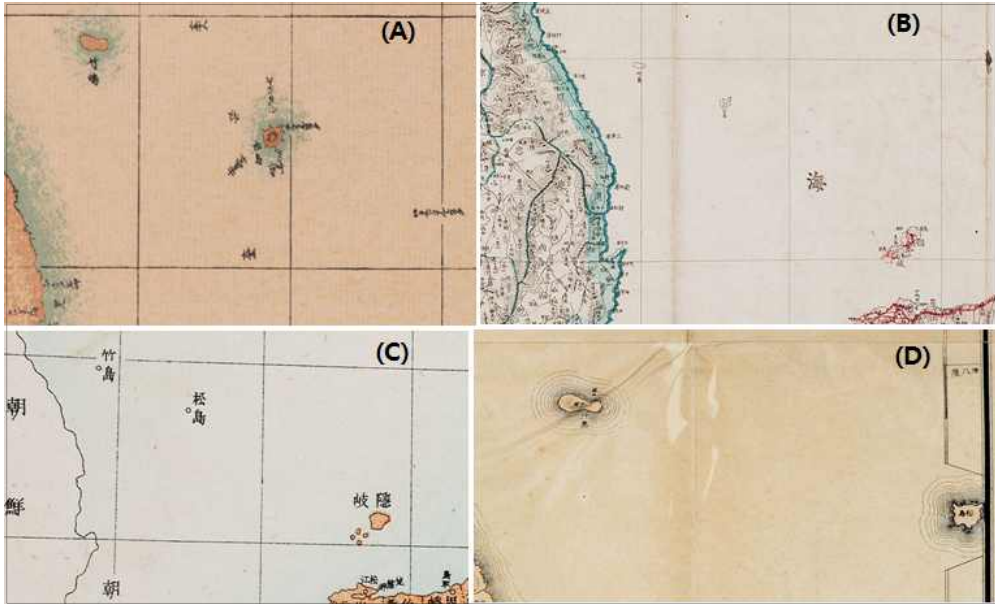


그림 13. 일본의 울릉도와 부속도서 인식의 변천 : 19세기 후반

출처: (A) 가쓰 가이슈, 1867, 대일본연해약도 ; (B) 육군참모국, 1875, 아세아동부여지도 ;  
(C) 오노 에니노스케, 1893년, 대일본국전도 ; (D) 시미즈 미츠노리, 1895, 조선여지도.

18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 중후반까지 약 1세기 동안 일본에서 울릉도와 부속도서에 관해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이는 표 1의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선지도의 영향으로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의 동해상에 조선 영토로서의 우산국(울릉도와 우산도)과 그들의 관점에서 알고 있었던 竹島(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현했던 사례이다(그림 14). 즉,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지도상에 두 번 표현하였으며, 이들 섬을 모두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sup>14)</sup> 이들 지도에서 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일본인들이 표현한 섬들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들이 제작한 지도에 독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단, 그림 14의 지도 D는 조선의 지도와 서구지도, 그리고 일본지도가 결합된 것으로서 이 지도에 표현된 竹島와 松島는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인식했던 울릉도와 독도로 볼 수 있다.

14) 「삼국접양소도」(하야시 시헤이, 1785, 오사카 시립 중앙도서관 소장)와 「삼국접양지도」는 18세기 중후반 무렵, 일본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지도이며, 「Carte Trois Royaumes」(세 왕국도)는 프랑스에서 발간된 클라프로트(Klaproth)의 『삼국통란도설』(San Kokf Tsou Ran To Sits)에 수록된 지도로서 이들 지도는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선의 우산국(울릉도)과 일본에서 인식했던 竹島(울릉도)가 같은 지도에 모두 표현되는 등 정확한 지도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4. 조선지도의 영향 : 울릉도(우산국) + 竹島(울릉도)

출처: (A) 하야시 시헤이, 1785(일본) ; (B) 모리 후사이, 1863(일본) ;

(C) 율리우스 클라프로트, 1832(프랑스) ; (D) 우치다 신사이, 1872(일본).

울릉도/독도에 관한 19세기 일본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그림 13의 첫 번째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 울릉도 북동 연안에 있는 죽도(땃섬 ← 아르고노트)를 서구의 제 국가들이 가상의 섬으로 오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왜곡된 상태로 지도상에 표현하였으며, 독도에 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영국의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지만, 외부자의 관점에서 지극히 피상적으로 리앙쿠르 명칭을 따라 적는데 그치는 수준이었다.

## 5. 결론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는 18세기 초, 청나라에서 제작된 「황여전람도」의 프랑스 전래를 계기로 전 세계 지도제작에 반영되었다. 프랑스를 경유하여 전 세계에 보급된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는 18세기에 제작된 세계지도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는데, 이때, 조선에 관한 지리정보, 이를테면, 울릉도와 우산도는 지도상에 각각 Fan ling tao와 Tchian chan tao로 표기되었다. 18세기 후반부 동안에는 프랑스와 영국 등의 탐험으로 새롭게 발견된 지리정보가 기존에 제작된 세계 지도에 추가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지리정보는 19세기 전반부까지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지리정보인 Fan ling tao와 Tchian chan tao 뿐만 아니라 새로 발견되어 추가된 Argonaut(Take-shima)와 Dagelet(Matsu-shima)가 혼재되어 표현되었다.

18세기 후반부에서 19세기 전반부까지는 탐험국들에 의하여 지리정보의 집중적인 확인작업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조선 동해안에 대한 탐사 결과, 기존의 지도에 표현되었던 울릉도(Fan ling tao)와 우산도(Tchian chan tao)는 실재하지 않는 섬으로 드러남에 따라, 18세기 초에 청나라를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던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정보는 19세기 전반부 동안에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반면, 동해상에는 새로 발견된 Argonaut와 Dagelet가 명확하게 정착되었다.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프랑스의 포경선과 영국의 군함 등에 의해 독도의 존재가 외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점차 세계지도에 표현되었다. 반면, 영국의 해양자원 탐사선 아르코노트에 의해 발견되어 전 세계 지도제작에 이미 반영되었던 Argonaut 섬은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19세기 후반부를 지나면서 차차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울릉도와 독도는 「태평양지도」(프랑스, 1881), 「인도, 중국, 인도차이나, 일본」(영국, 1885), 「중국, 한국, 일본도」(독일, 1886) 등을 시작으로 점차 실체에 가깝게 인식되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19세기 내내 독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19세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일반적으로 竹島와 松島가 표현되었는데, 이들 두 섬은 각각 서구에서 제작된 지도의 아르코노트와 다즐레(울릉도)의 프레임에 무비판적으로 비정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 지도제작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도 아르코노트의 실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독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시기부터 명확하게 알아가는 과정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일본은 19세기 동안에, 영국에서 제작된 지도를 일본식 버전으로 모사하였으며, 영국에서 설정해 놓은 프레임에 일본식 명칭을 적용하여 아르코노트는 竹島(Take-shima)로, 다즐레는 松島(Matsu-shima)로 표기하였다. 독도에 관해서는 서구 지도로부터 채택했던 리앙쿠르 암 명칭을 한 동안 따르다가, 1904-1905년 무렵, 아르코노트(←땃섬)를 울릉도 북쪽 연안으로 옮겨 표현하면서, 아르코노트에 부여되었던 竹島 명칭은 리앙쿠르 암 명칭에 오버랩시켜 독도의 일본식 명칭은 오늘날까지 竹島(다케시마)로 정착되었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에서 제작된 지도만을 단순 비교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칫, 자의적인 해석에 머물거나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또한 특정 시기의 일부 지도만을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동해상에 있는 섬들이 서양 지도에 최초로 등장했던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울릉도와 독도가 외부세계에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은 독도영유권의 근거논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독도연구를 위한 대안적인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
- 김학준, 2012, 독도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남영우·김부성, 2009, “독일 지도학자 Siebold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지,” 9(1), 1-12.
-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 서정철·김인환, 2010, 지도 위의 전쟁, 동아일보사.
- 汪前進·劉若芳, 2007, 清廷三大實測全圖集, 外門出版社.
- 이명희, 2011, “청 강희 시기(1662-1722) 전국지도 제작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3(3), 104-118.
- 장상훈 역(개리 레드야드 저), 2011, 한국 고지도의 역사, 소나무.
- 정인철, 2014, “프랑스 왕실 과학원이 18세기 유럽의 중국지도제작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9(4), 585-600.
- 정인철·Pierre-Emmanuel Roux,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 연구, 7, 146-179.
- Klinghoffer, Arthur Jay, 2006, The power of projections : how maps reflect global politics and history, Praeger.
- Li, Jin-Mieung, 2010, Dokdo : a Korean island rediscovered,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Yi, Saangkyun, 2013, Une discipline entre nation et empires, PAF.

## 〈지도자료〉

- Alexander Keith Johnston, 1884, 「China and Japan」, England.
- Ambroise Tardieu, 1821, 「Carte de L'Asie」, France.
- Augustus Herman Petermann, 1886, 「CHINA(ÖSTL.THEIL), KOREA UND JAPAN」, Germany.
- Augustus Petermann, 1858, 「Die aufnahmen der süd Küste der MANDSCHUREI」, Germany.
- David Burr, 1835, 「Chinese Empire and Japan」, USA.
- G. Lorsignol, 1885, 「Japon」, France.
- Jacques Bellin, 1750, 「Carte du katay ou Empire de Kin」, Italy.
- James Wyld, 1827, 「Asia」, England.

Jan Bernard Elwe, 1792, 「Partie de la nouvelle grande carte des Indes Orientales, contenant les Empires de las Chine & du Japon, les Isles Philippines, Couchin, & les Isles Marianes」, Netherland.

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1735, 「Royaume de Corée」, France.

J. Migeon, 1885, 「Inde, Chine, Indo-Chine et Japon, England.

Johann Tobias Mayer, 1749, 「Carte général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ee royaumes de Corée et de Iapan」, Germany.

John Arrowsmith, 1847, 「IMPERO DEL GIAPPONE」, Italy.

John Bartholomew, 1879, 「Oceania and Pacific Ocean from Admiralty Surveys」, UK.

John Thomson, 1817, 「COREA AND JAPAN」, UK.

Joseph Hutchins Colton, 1855, 「Colton's Japan : Nippon, Kiusiu, Sikok, Yesso and the Japanese Kuriles」, USA.

La Pérouse, 1787, 「Carte des découvertes faites en 1787 dans les mers de Chine et de Tartarie」, France.

Mikhail Alexksandrovic von Pogio, 1895, 「KARTE von TIO-SIONJ oder KOREA」, Russia.

Robert de Vaugondy, 1750, 「L'Empire du Japon」, France.

Robert Laurie & James Whittle, 1794, 「The Empire of Japan divided into seven principal parts and sixty-six kingdoms with the Kingdom of Corea」, England.

The Century Co. New York, 1911, 「JAPAN AND KOREA」, USA.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45, 「JAPAN AND KOREA」, USA.

Weimar Geographisches Institut, 1886, 「DAS SÜDÖSTLICHE ASIEN, ODER CHINA, JAPAN UND HINTER-INDIEN mit dem INDISCHEN ARCHIPELAGUS」, Germany.

가쓰가이슈(勝海舟), 1867, 「대일본연해약도」, 일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779,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일본.

모리 후사이(森楓紮), 1863, 『강호대절용해내장(江戸大節用海内蔵)』의 「조선국도(朝鮮國圖)」, 일본.

사이키 히로나오(齊木寬直), 1905, 「한국전도(韓國全圖)」, 일본.

시미즈 미츠노리(清水光憲), 1895, 「조선여지도(朝鮮輿地圖)」, 일본.

오노 에니노스케(小野英之助), 1893,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 일본.

우치다 신사이(內田晉齊), 1872, 「대일본부현지도(大日本府懸地圖)」, 일본.

육군참모국, 1875, 「아세아동부여지도(亞細亞東部輿地圖)」, 일본.

육군참모국, 1876, 「조선전도(朝鮮全圖)」, 일본.

율리우스 클라프로트(Julius Heinrich Klapproth), 1832, 「Carte des Trois Royaumes」, 프랑스.

이토 마사조(伊藤政三), 1904, 「한국전도(韓國全圖)」, 일본.

하마모토 이사부로(濱本伊三郎), 1904, 「극동일로청한사국대지도(極東日露淸韓四國大地圖)」, 일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85, 「삼국접양소도」, 일본.

해군수로부, 1863, 「Japan and Korea」, 영국.

호사카 슈이치(穗坂秀一), 1904, 「극동전요지도(極東戰要地圖)」, 일본.



# 중국 초등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 2016 동아시아속의 한국사 - 중국 초등교과서의 한국사서술 -

- 동아시아사 교육의 필요성
- 동북아역사재단의 동아시아사 연구-연수
- 중국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내용
- 한중관계의 변화

## 동아시아사 교육의 필요성

- 2012년부터 한국에서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교육되기 시작
- '동아시아사'는 2006년 12월에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확정
- 직접적인 배경은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 일본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 일본의 우익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걸쳐서 벌인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서양의 식민지로 전락한 동아시아 인민을 해방시킨 전쟁이었으며, 전쟁과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고 주장
- 이러한 관점에서 집필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2001년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 그리고 2005년 공민교과서까지 출판
- 이 교과서가 발행되자, 한국과 중국 등 과거 피지배와 피침략 국가들은 일제히 반발
-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들 우익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날날이 지적하고, 채택 저지운동을 전개

## 중국의 동북공정

- 2002년에는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
-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내용 포함
- 한국의 격렬한 항의 끝에 양국 정부는 외교 교섭을 통해 미봉
-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응책 마련

## 한중일 역사 교류와 공동연구

- 역사갈등을 평화롭게 극복하고자 2000년 이후 한일-한중일 학자와 역사교육자들간에 역사 교류와 대화가 꾸준히 진행
- 공동 연구의 결과가 속속 책으로 출간
- 2005년에는 한중일 3국의 학자와 교사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미래를 여는 역사』, 『마주보는 한일사』, 『한일교류의 역사』 등 여러 종류의 공동 역사 부교재 출간
- 상대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려고 노력한 이들의 성과는 동아시아사에 관한 관심을 증대

## 역사교육계의 반성과 요구

- 자국 중심주의 역사교육의 반성
- 중등학교에서 '자국사'와 '세계사'로 나누어 역사교육. 이러한 점은 한중일 3국이 동일
- 세계사 속에는 한국사가 포함되지 않고 한국사 교과서에도 세계사는 거의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배울 기회 없음
- '동아시아사'는 한국사가 포함된 지역의 세계사를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과목이 될 수 있음.
- 내셔널리즘적 '국민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으로 전환의 필요성과 자국사와 세계사의 소통 강조

### 동아시아사 교과목 개설

-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사' 교과목 개설하기로 결정
- 과도한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에 입각한 일국사적 관점이 역사를 왜곡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 동아시아의 역사를 지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르칠 필요
- 객관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를 진작시키는 것이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

- 2006년 9월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은 동아시아 역사 연구 및 역사 대화의 중심기관으로서, 동아시아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 동아시아사 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 국내외 교사와 시민, 청소년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출간하고 배포
  - '동아시아사' 개설 준비과정에 참여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2009) '동아시아사 관련 참고자료집'(2010) 등 발간
- 2008년부터 전국의 역사교사 대상 "동아시아사 교원연수"를 개설, 교사의 전문성 향상 도모, 역사 교사 해외 교환 수업 지원

### 온라인 교육 교재와 동북아역사넷 데이터베이스

- 재단은 2010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위한 '역사현안 온라인 강좌' 개발 ([http://www.historyfoundation.or.kr/on\\_media/index.html](http://www.historyfoundation.or.kr/on_media/index.html))
-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활용하도록 개발한 PPT 형태의 교육교재, 학생들에게 역사 현안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 동아시아의 미래지향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체 구축에 기여한다는 목표
-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자료실
- 한중일의 역사교과서 등 동아시아사 교육교재 체계적 정리

### 중국 초등교과서의 한국사관련 내용

- 한-중-일 3국의 역사갈등 이면에는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이 존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 역사교과서는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2005년 이후 공동역사교과서를 출간, 역사 화해 시도
-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11월 한-중-일 3국 공동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
- 공동역사교과서 발간의 첫걸음은 각국의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 『품덕과사회』 교과서 5학년 상하, 6학년 상(인민교육출판사와 북경사범대학출판사)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 관련 내용 소개

### 중국의 교과서 개관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교육부 산하의 인민교육출판사가 교과서 독점 공급, 계급투쟁 강조 경향
-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 이후 지역 차이를 고려한 교과서 출판, 1990년대부터 인민교육출판사의 독점이 깨지고,
  - 계급투쟁 서술이 약화되고 중화민족 서술 강조 경향
- 1990년대 말부터 새 교과서 체제로 전환- 개괄적인 방향만 제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특징
- 새 교과서 체제가 서술 내용을 개편하고 책의 분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사 서술 비중 소략하거나 삭제, 특히 일본에 비해 한국 비중 낮추어 서술함
- 5-6학년 『품덕과사회』의 주변국가 설명에서도 일본에 비해 한국 내용이 소략하거나 빠져 있음.

### 인민교육출판사 『품덕과사회-5학년 상책』



1. 나는 성실 신의(誠信)를 따른다
2. 우리의 민주생활
3. 나는 조국의 국토를 사랑한다
  - 나의 조국은 넓고 크다
  - 아름다운 강산
  - 우리의 寶島 대만
  - 조국 강산의 수호자
4. 우리는 모두 중화의 아들딸
  - 56개 민족 56개 꽃송이
  - 손에 손잡은 각 민족 아들딸
  -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는 華人

인민교육출판사 『품덕과사회-5학년 하책』



1. 성장의 즐거움과 고민
2. 근원찾기
  - 의식주의 역사
  - 도자기와 청동문화
  - 한자와 책의 이야기
3. 독특 매력있는 중화문화
  - 위대한 조상 (공자, 사마천)
  - 우리나라의 국보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만리장성)
  - 4.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

인민교육출판사 『품덕과사회-6학년 상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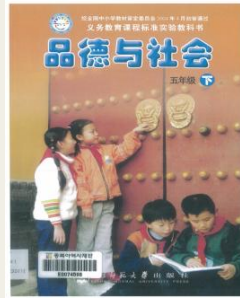
1. 문명 발전
2. 불굴의 중국인
  - 잊을 수 없는 굴욕
  - 중화민족의 굴기를 위하여
3. 비약하는 조국
  - 일어서는 중국인
  - 날로 부강해지는 조국
4. 세계 여행
  - 주변 나라를 보자
  - 세계 문화

북경사범대학출판사 『품덕과사회-5학년 상』



- 一. 뿌리와 조상을 찾다
  1. 문명의 서광
  2. 위대한 발명
  3. 걸출한 智者
- 二. 사랑하는 조국
  1.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
  2. 강을 따라 가보자(황하 양자강)
- 三. 우리는 모두 한가족
  1. 민족대가정
  2. 염황자손의 바람

북경사범대학출판사 『품덕과사회-5학년 하』



- 四. 나는 꼬마 주인공
  1. 단체의 명예를 지키다
- 五. 역사가 알려주는 것
  1. 진한통일에서 당대 융성기
  2. 야만과 문명, 15-20세기
- 六. 인민영웅에 대한 존경심
  1. 국치를 잊지 않는다 (아편전쟁, 청일전쟁, 굴욕의 조약)
  2. 각성하는 중국인민 (천하위공, 손중산, 5.4운동)
  3. 빛나는 역정 (모택동, 공산당)
  4. 민족구망의 시기 (중일전쟁, 남경학살, 동북항일연군, 위대한 승리)
  5. 중국 인민 일어서다 (내전승리,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북경사범대학출판사 『품덕과사회- 6학년 상』



- 一. 우리의 건강한 성장
  1. 품격의 시금석- 성실과 신뢰, 겸양
- 二. 신중국 건설을 위하여
  1. 일어서는 중국인민 (공핍, 해방, 토지개혁, 지원군영웅, 항미 원조, 신국가 신기상)
  2. 노동자의 영광 (무명영웅, 위대한 보통군인)
- 三. 비약하는 중국
  1. 봄날의 이야기 (농촌 어촌 대도시 발전과 변화)
  2. 국가의 주인 (인민권익의 대표, 공동의 책임)
  3. 세계무대 위에서 (수교 국가, 문화개방)

‘공동의 선조’

1. 문명의 서광-북경사범대학출판사『품덕과사회-5학년 상』
  - 농기구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 신농(神農)씨 염제(炎帝)와 현원(軒轅)씨 황제(黃帝) 소개.
  - 황제의 부인이 양잠기술을 발명하였고, 염제는 황제와 싸워 패한 후 합병하여 염황(炎黃)연맹이 되었다.
  - 황제는 이어 또 다른 상대인 치우(蚩尤)에게도 승리하여 각 부락연맹의 수령이 되었다.
  - 그의 통치시대에 수레와 배, 양잠, 역법, 음률, 의학 등 수많은 발명이 이루어졌다.
  - 그림으로 신농씨와 황제 초상화가 실려 있다.

- 중국 교과서는 중국 신화시대의 최대 전쟁으로 불리는 탁록(涿鹿)일전을 '중화민족' 시조인 염황 부족동맹과 동방의 치우(蚩尤)부족의 대결로 수록
- 염황(炎黃)시대→요순(堯舜)시대→ 하(夏)→상(商)→주(周)→진(秦)한(漢)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
- 4000~5000년 전이라고 시기를 적시
- 염제(炎帝), 황제(黃帝), 치우 같은 전설시대도 역사 교육의 대상

- 인민교육출판사 중국역사 7학년 상책(2009년, 2판 12쇄)에는 본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삽도에서 홍산문화를 중국 고대 문명의 한 기원지로 간주
- 염제, 황제부락의 연합군이 치우 부락의 군대와 탁록(涿鹿)에서 싸웠다는 설화 기록
- 인민교육출판사 중국고대사(2007년판)에 춘추전국시대, 중국 변경지대의 이민족이 중원지역의 '화하족(華夏族)'과 빈번한 경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기술
- 중국이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매우 일찍부터 형성하여 왔다는 점을 설명.



-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모든 역사교과서에 서술하지 않으면서 지도를 제시하여 시각적인 효과 활용
- 한(漢) 무제(武帝, B.C. 141~B.C. 88) 때의 강역을 전한(前漢, B.C. 206~A.D. 8) 시대의 것으로 제시, 전한 영토의 경계선을 한반도 중부까지로 표시
- 이 시기에 위만조선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며, 고구려가 막 건국되었을 무렵, 전한의 영역을 한반도 중부까지 표시한 것은 한사군(漢四郡)을 염두에 둔 것
- 이 지도 표기는 압록강 일대에 존재한 고구려를 무시한 것
- 이 시기의 지도에 한반도 중부까지를 한(漢)의 영역으로 채색 표시하고 '낙랑군'이라 표기
- 중국의 청소년들, 이 지도를 통해 당시 한반도에 어떤 국가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될 우려

## 수(隋)와 고구려 전쟁

- 수(隋)양제 관련- 이전의 교과서는 수 양제의 폭정과 고구려 정벌, 대운하 등을 곁고루 서술
- '수 양제가 고구려에 3차에 걸쳐서 정벌하였으나 실패하고 백성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
- 최근의 중국 교과서는 고구려 정벌을 언급하더라도 간단하게 처리, 아예 서술하지 않는 반면 수 양제의 대운하에 대한 서술은 상세하고 긍정적으로 표현
- 운하건설이 당시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음을 강조
- 이는 현재 중국 교육이 경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수와 고구려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이전 교과서와 큰 차이

## 당(唐)과 신라

- 북경사범대학출판사『품덕과사회- 5학년 하』 고대 문명과 '唐의 성세'
- "수도 장안(長安)이 당시 일본, 신라(조선의 옛나라)의 도성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일본, 신라 등 많은 국가들이 모두 사람을 보내 장안에 와서 유학하였다. 국제교류 중 당 왕조도 외국으로부터 좋은 문물을 흡수하였다."
- '주요 외국사절단 입당 차수 일람표' 그림에 "신라 26차, 일본 13차, 백제 6차, 고려 7차..." 표시

- 역사교과서에서 당(唐)의 대외관계 관련, 당과 신라의 왕래와 교류에 관한 서술, 이전보다 간략하게 처리.
- 중국 역사교과서는 당과 신라와의 왕래 및 문화 교류 서술하면서 당의 문화가 일반적으로 신라에 전래된 것으로 표현
- 신라가 당에 진출한 유학생이나 상인들을 위하여 설치한 신라방 등을 마치 당이 시혜적으로 설치한 것처럼 서술
- 당이 해외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 면도 있으나, 그만큼 신라와 당의 교류가 빈번했기 때문에 많은 신라인들이 유학을 가거나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당에 머무른 것을 반영하는 것.
- 중국 교과서는 신라의 모든 제도가 당의 것을 모방한 것처럼 표현.

## 당 - 발해

- 해동성국(海東盛國) 발해는 한-중 간 역사 인식의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
- 우리 교과서는 발해를 고구려 유민이 말갈인을 이끌고 세운 우리 민족의 나라로 규정,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南北國)의 형세를 이룬 것으로 쓰고 있다.
- 중국 역사교과서에 발해는 말갈족이 세운 중국의 봉지(封地). 당(唐)현종이 주(州)를 설치하고, 발해군왕(郡王)을 봉(封)했음을 강조
- 발해의 건국과 그 주민에 대해 속말말갈 대조영이 말갈족을 기반으로 발해를 건국한 것으로 기술
- 발해는 당대 하나의 지방정권이며, 그 결과 당과의 경제교류도 국가간이 아닌 '내지'의 교류라고 한다. 발해의 정치·군사 제도는 대부분 당조(唐朝)를 모방한 것, 당조와의 경제·문화 교류는 매우 긴밀. 결과적으로 발해도 당 왕조의 판도로 정식 편입되었다는 것.

## 요(遼). 금(金). 송(宋)

- 민족 융합과 봉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집중 서술
- 이 시대 문화 관련 단원에서 과학기술을 언급할 때 한국의 활자 인쇄술 서술.
- 북송 시기 필승이 발명한 최초의 활자인 진흙활자가 중국으로부터 고려로 전래되었다는 데는 대개 동의하나, 금속활자의 사용은 고려가 최초
- 과거의 교과서에서 고려의 금속활자, 특히 납활자의 최초 발명을 적시하였으나, 현재 교과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다.

## 명(明). 청(淸)시대

- 인민교육출판사『품덕과사회-5학년 하책』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만리장성에 대한 소개와 지도(69-70)
- 만리장성이 동쪽 압록강에서 서쪽 가옥관까지로 되어 있다.
- 만리장성의 지도 변화
- 최근 만리장성의 길이를 확대하고 있으며 동쪽 끝을 한반도 내로 연결시키고 있다.

## 명대의 대외관계

- 중등 역사교과서는 명대의 대외관계에서 척계광과 항왜투쟁은 언급하나, 이순신이나 임진왜란 관련 서술은 극히 부분적
- 이는 중국교과서가 최근 한국사 관련 기술을 소략화하는 추세를 반영
- 이전에는 '왜구, 원조(援朝)전쟁'을 언급하여 한중관계를 우호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지만, 정식 국호인 조선왕조 대신 '이조', 이씨조선 등으로 표기

## 개항 이후 조선 근대화 서술

- 청일전쟁은 조선의 중주권 쟁탈전을 둘러싼 중-일간 대립에서 비롯된 것 중국 교과서는 청일전쟁의 원인으로 일본의 세력 확장과 도전만 강조
- 일본이 중국에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 점, 전쟁 중 일본군의 잔학성, 전후 요동(遼東)반도 대만 평호(澎湖)열도를 일본에 넘긴 피해만 기술
- 동학당 기의(起義) 진압을 도와달라는 조선정부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과 맺은 마관조약에 대한 서술에서도 제1조 조선독립 관련내용은 기술하지 않고 있다.
- 한국 교과서는 청-일 양국에 군대 철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으며 농민군이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제2차 봉기를 했음을 강조
- 중국 역사교과서의 근대 한국사 서술은 대부분 중국의 입장 위주로 쓰여 있고, 한국 역사교과서와 다른 서술도 많이 있다.
- 일본 교과서는 청의 패배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무너졌으며, 이에 따라 조선이 청에서 독립할 수 있었음을 은연중 부각.

## 일본침략 시기

- 인민교육출판사『품덕과사회-6학년 상책』 '일본침략 아래의 혈루사'는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으로 일본군에 의해 유린당한 동북지역'을 서술
- '불굴의 중국인' 단원에서 1931년 이후 일본군과 싸운 전투들을 소개하는 내용과 사진 실고
- 특히 중국공산당이 지도한 항전의 중요성과 당시 어린이들이 항일전을 치루는 전사들을 지원하였다는 내용 강조
- '일본군 침략 자격모습' '피난가는 동북인' '심양의 9.18기념관'  
- 731세균부대 관련, 일본군이 유기한 화학무기

## 난징(南京)대학살(1937. 12~1938. 1)

- 중-일 현대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
- 북경사범대학출판사의『품덕과사회- 5학년 하』  
- '잊어서는 안된다'는 제목으로 남경대학살을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스러운 폭행이라고 설명
- '일본군이 남경에서 중국 민간인을 생매장하는 모습'과 '희생자 30만이라고 쓰인 남경대학살기념관 표지' 사진
- 인민교육출판사『품덕과사회-6학년 상책』은 희생자 30만이라 씌어진 남경학살기념비와 학살의 증거인 만인갱 발견 신문기사, 일본군의 중국 민간인 살해사진 그리고 생존자의 증언과 사진을 실었다.

## 중일의 엇갈린 기술

- 중국 교과서는 "일본침략자들은 가는 곳마다 방화(燒), 살인(殺), 강간(淫), 약탈(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다(無惡不作)...일본군은 남경 점령 후 6주 동안 맨주먹의 민간인과 무기를 놓은 군인 30만명 이상을 도살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
- 일본 교과서는 "일본군은 수도 난징을 점령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의 일반인과 포로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인을 살해했다"고만 적고 있다.

- 중국은 2014년 난징대학살 기념관 옆에 항일전쟁 승리를 주제로 하는 '중국전구(戰區) 승리기념관'을 새로 지어 기념관을 두 배 이상 규모로 확충. 승리광장, 승리공원 등 조성
-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비난전의 연장선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4. 3. 독일 강연 '일본군이 난징대학살 당시 30여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참상을 저질렀다'고 언급
- '화평굴기'(和平崛起)보다는 '대국굴기'(大國崛起), '역사굴기'라 지적

### 중일전쟁(1937-45)

- 중국 등 아시아 각국 인민이 일본 침략자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전개했다고 서술하고, 소련도 일본에 선전(宣戰)하고 중국 동북과 조선에 출병하였다고 기록.
- 중일전쟁기 중요한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이 없다.
- ※ 현재 중국 역사교과서 지침서에 따르면 '인류평화와 진보에 헌신하는 인생관 정립' 등의 인류 보편주의와 국제 평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본 침략에 대한 주변국의 참상이나 항전에 대한 기술이 부족.
- 중일전쟁기 주변 국가와 연계된 항일운동이나 일본 731부대의 조선인에 대한 생체실험 등과 같이 전쟁에서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민족이 어떻게 동원, 희생, 생존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결과를 기술하면서 카이로선언에서 만주, 대만, 팽호열도 등 중국 영토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것만 언급, 조선 독립에 대한 언급은 없다.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 인민교육출판사『품덕과사회-6학년 상책』 '불굴의 중국인'
- 중국공산당의 2만 5천리 대장정 그림과 지도
-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인민영웅비와 비문
- 1949년 10월 1일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개국선포식 그림과 모택동이 들었던 오성홍기(五星紅旗) 사진
- 천안문광장의 환호하는 사람들 사진
- 신중국을 창건한 사람들로 모택동, 유소기, 주은래, 주덕 등의 사진

### 중국 교과서의 항미원조전쟁 서술

- 북경사범대학출판사『품덕과사회-6학년 상』에 한국전쟁 내용이 두 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다.
- 원조(援朝-조선을 지원한다)가 유행하였던 적이 있다는 설명 아래, "기세 등등하게 압록강을 건너..."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원조할 때 모두 부르던 가사를 소개하고 있다.
- "인민공화국 건국후 1년도 안되어 미국침략자가 조선전쟁을 일으켜 전화가 중국과 조선의 경계인 압록강변에 까지 미쳤다.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지원군'을 파병하여 조선인민군과 공동으로 미제국주의 침략자에 대항하였다.
- 당시 출생한 아이들 중 적지 않은 이름이 원조(援朝) 보국(保國)이었으며, 이는 중국인의 조국방어 결심을 반영한다"고 서술.
- 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는 모습과 평양의 중조우의탑 등 사진

### 한·중의 6.25 전쟁 서술 차이

- 한·중 간 6.25전쟁에 대한 시각이 특히 엇갈렸다. 우리 교과서는 무력통일을 목표로 한 북한의 기습남침과 유엔의 참전 결정을 강조.
- 중국 교과서는 "1950년 6월 조선내전이 폭발했다"고 전쟁을 일으킨 주체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 또 '미국은 제멋대로 파병해 조선을 침략했다'는 식으로 중국군 참전의 정당성을 부각.
- 중국 고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근현대사 내용은 고대·중세에 대한 서술 내용보다 더 많은 비중, 비교적 우호적으로 서술된 곳도 찾을 수 있다.
- 그러나 임진왜란에 이어 청일전쟁과 한국전쟁(이른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발발 시 중국의 파병 논리를 향상 조선(북한)의 출병요청으로 서술하고 있다.

### 한국전쟁과 미국과의 대립

- 중국은 미군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북한이 단기간에 무력 통일을 종결시킬 수 있으리라 여김.
- 중국의 예측이 빗나감. 트루먼은 대만 해협에도 제7함대를 파견--> 중국에 의한 타이완의 무력 '해방'이 저지된 것 의미. 미국의 군사 개입이 큰 충격.
- 1953. 7. 휴전 협정.
- 미국은 중국을 동아시아질서 유지에 최대의 위협이라고 간주. 중국봉쇄를 꾀하는 군사동맹 체결.
- 1951. 9. 미일안전보장조약.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처하는 것이, 중국 최대 과제가 됨 → 중국을 사회주의체제로 이끔
- 시진핑 주석,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이 '미군의 침략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언급 (2010년 60주년기념식)

###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중관계

- 2014.7.3- 4.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주석 국빈 방한
-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한·중 정상 공동 기자회견
- 확대 정상회담,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참석. 한중 공동성명 발표
- 신문기고 - '순풍에 돛을 달자'
- 한중수교 22주년 양국 협력 큰 성과 -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수입대상국, 해외유학생 파견국, 해외여행지
- 양국 교역액 한미, 한일을 합친 규모보다 많은 '이익 공동체'
- 한중관계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 - 양국협력과 지역평화 안정
- 한중 친선의 배가 돛을 높이 올리고 파도 헤치며 나아가길.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주요 내용**

▲한·중 우호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

**김교각(金喬覺)**: 당(唐)나라 구화산(九華山) 등신불이 된 8세기 신라 왕자 출신 고승  
**최치원(崔致遠)**: 당에서 '토황소격문'이란 명문을 남긴 9세기 통일신라의 학자  
**공소(孔紹)**: 고려 공민왕 때 노국공주를 따라와 '황원 공씨(曁部 公氏)'의 시조가 된 공자의 53대손

**진린(陳璘)**: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수군 도독으로 후손이 전남 해남에서 '한국 광동 진씨 가림'

**등자룡(鄧子龍)**: 명나라 수군 장수로 노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

**허균(許筠)**: 조선시대 문인으로 명나라 문인 오명제(吳明濟)와 우정을 나눈 시로 유명

**김구(金九)**: 상하이(上海) 등 중국 전역을 떠돌며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정율성(鄭律成)**: 광주 출신의 작곡가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했고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

**전남제일고**: 2008년 쓰촨(四川) 대지진 때 큰 피해를 입은 베이훵(北川)고를 돕기 위해 모금운동

▲한·중 우호를 강조한 표현

"百金買屋, 千金買隣, 好隣屋金不換"  
 (적은 돈으로 집을 사고, 많은 돈으로 이웃을 사지만, 좋은 이웃은 돈과도 바꾸지 않는다)

"互尊互信 聚同化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으며 같은 점을 취하고 차이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長風破浪會有時, 直掛雲帆濟滄海"  
 (이백의 시/바람 타고 물결 거스를 때가 오리니, 바로 구름 같은 돛을 달고 푸른 바다를 건너리라)

**일본의 야만적 침략 때 양국 서로 도왔다**

-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공동 대응 필요성 환기
- 이순신, 안중근, 윤봉길 등 일본에 함께 맞섰던 양국 역사 강조
- 임진왜란 때 명 등자룡(鄧子龍) 장군-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에서 함께 전사
- 이들 시신 수습한 명나라 장군 진린(陳璘)의 후손, 한국 해남에서 살고 있다.
- 충칭(重慶) 임시정부 유적지, 시안(西安) 광복군 기념비, 상하이(上海)에서 '매현'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것은 바로 잊지 못할 역사를 증명하는 것

- 한편, 시진핑 주석은 당나라 이세민이 신라와의 합의를 깨고 설인귀를 평양에 주둔시킨 것
- 임오군란, 갑신정변 때 위안스카이의 횡포
- 청일전쟁 당시 청국이 조선에 끼친 피해나 청군의 횡포는 언급하지 않음
- 중국은 애국주의 지향점이 평화라고 모든 기념시설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강력한 중화 애국주의를 보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

- 시진핑, 한중우호와 문화교류 강조. 한국전쟁 언급 안함
- 2010년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식의 시진핑 연설  
 "중국과 북한 양국 인민과 군대가 단결함으로써 항미원조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 중국 인민은 시종 중국과 북한 양국 인민과 군대가 흘린 피로써 맺어진 위대한 우정 잊어본 적이 없으며 북한 정부와 인민의 관심 또한 잊은 적이 없다."
-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원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함
- 양국 정상이 양국간의 신뢰와 공동이익을 확인하고, 이런 기초에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음에도,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제약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함

# 수업활용 사례발표 I

이난영 (의정부 용현초)



# 수업활용 사례발표 I




이난영 (의정부 용현초)

## 초등 수업 활용 사례 발표 1>>-독도

### < 창의지성 행복학교, 주제 통합 프로젝트 1 : 독도, 그곳이 알고 싶다 >

1. 목적 :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련 지식을 배우고 익히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독도가 대한  
민국 땅임을 알 수 있다.
2. 방침 : 가. 독도의 자연 환경, 역사 등에 대해 배우고 익힌다.  
나.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삼행시, 편지쓰기, 광고꾸미기 등을 통해 내면화한다.  
다. 독도 지킴이 역할극에 참여하고 독도 지킴이 일화를 역할극으로 나타내 본다.

### 3. 재구성의 실제

주제	독도, 그곳이 알고 싶다.				
핵심 역량	관련 교과	성취기준	재구성내용	지도시기	시수
문화적 소양 자기주도학습 능력 민주시민의식	국어 과학 미술 사회 창체	독도 광고 꾸미기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삼행시, 편지쓰기 등을 통해 내면화 함. 독도 지킴이 역할극에 참여하고 독도 지킴이 일화를 역할극으로 잘 나타냄.	사회,국어,과학,창체 등의 교과에 시기가 다르게 분산되어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독도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체험과 탐구활동 위주로 재구성 한다.	( 3월 16일 ~ 4월 10일) (10월 19일 ~ 10월 23일)	16
<b>평가</b>	1.독도 광고 꾸미기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2.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삼행시, 편지쓰기 등을 통해 내면화 하는가 3.독도 지킴이 역할극에 참여하고 독도 지킴이 일화를 역할극으로 잘 나타내는가				
					
독도 광고 꾸미고 발표하기		독도 지킴이 역할극 발표하기		독도 광고 꾸미기	

6학년 주제별 교과통합 프로젝트수업 (1) 활동 결과 안내문

# ‘ 독도, 그곳이 궁금하다 ’

의정부용현초 6학년 ( )반 이름( )

학년/학기 기간	6학년 1, 2학기 ( 3월 16일 ~ 4월 10일) (10월 19일 ~ 10월 23일)		주제	독도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기	
재구성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국어,과학,창체 등의 교과에 시기가 다르게 분산되어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독도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체험과 탐구활동 위주로 재구성 한다.</li> </ul>				
핵심역량	관련 교과	단원 및 성취기준	활동내용	시 수	창의지성 텍스트 및 활동자료
문화적 소양능력  민주 시민의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국어	8.책 속의 지혜를 찾아서	독도 강치 이야기, 일곱 빛깔 독도 이야기 책을 읽고, 독도에 관한 궁금증 유발 및 궁금증 해결, 독도 어플로 문제해결	6	① 독도 지킴이 역할극 ② 독도 탐험 활동지 ③ 만약에.. 학습지 ④ 독도 프로젝트를 마치며
	과학	2.생물과 환경	독도의 동식물, 독도의 생태계 알아보기	2	⑤ 독도 생태계 동영상
	미술	2.이미지로 표현해요.	광고의 특징을 알고, 독도 광고를 꾸며보기	4	⑥ 독도 광고 꾸미기
	사회	1.살기좋은 우리국토	영토와 영해, 영공의 의미를 통해 독도의 소중한 가치 알아보기	2	⑧ 독도사랑 삼행시 짓기 ⑨ 경비대에 편지 보내기
	창체	자유활동	독도 홍보 광고 꾸미기	2	⑩ 독도 캐릭터 꾸미기, ⑪ 독도 그림글자꾸미기
시수 합계				16	
평가					
활동 결과	독도 광고 꾸미기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삼행시, 편지쓰기 등을 통해 내면화 함. 독도 지킴이 역할극에 참여하고 독도 지킴이 일화를 역할극으로 잘 나타냄.				
확 인	이름 ( ) 씨인		학부모 ( ) 씨인		

## 독도, 그곳이 궁금하다! (초등-고학년-게임 및 체험활동)

본시 주제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게임을 통해 익히고 독도 홍보 뱃지 꾸미기		
학습 목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궁금한 것을 게임을 통해 알아 보고, 독도 홍보 뱃지를 꾸며본다.		
학습 자료	교사	동영상(링크), ppt, 그리기 뱃지	
	학생	네임펜, 메모지, 색연필, 싸인펜	
참고 문헌 및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트 타고 보는 3D 독도 <a href="http://youtu.be/p5Vr_jkW_04">http://youtu.be/p5Vr_jkW_04</a></li> <li>• 헬기 타고 보는 3D 독도 <a href="http://youtu.be/IBvQQQfNf2E">http://youtu.be/IBvQQQfNf2E</a></li> <li>• 독도부교재(초, 중, 고 독도부교재) <a href="http://contents.nahf.or.kr/eddokViewer/item.do">http://contents.nahf.or.kr/eddokViewer/item.do</a></li> <li>• 독도의 탄생과 자연환경 <a href="http://youtu.be/su7ZLm03oZA">http://youtu.be/su7ZLm03oZA</a></li> <li>• 독도의 하루 <a href="http://youtu.be/TTQh28JYrWk">http://youtu.be/TTQh28JYrWk</a></li> <li>• 독도 스타일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l2Y2Y4pGdaM&amp;feature=youtu.be">http://www.youtube.com/watch?v=l2Y2Y4pGdaM&amp;feature=youtu.be</a></li> <li>• EBS 지식채널 그들의 논리 <a href="http://youtu.be/ettYBvySLKg">http://youtu.be/ettYBvySLKg</a></li> </ul>		

학습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발문 및 활동(○)	아동 활동 및 예상 반응(>)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의 하루’ 동영상을 보며 독도에 대해 궁금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li> <li>○ 동영상을 보며, 느낀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말해 봅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독도의 하루’ 동영상을 본다.</li> <li>&gt; 독도에 가고 싶다/ 독도에 갈때는 배를 타고 간다/ 독도의 이름은 왜 독도일까요? 등</li> <li>&gt; 독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 독도에는 식수가 있을까?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li> </ul>	10'	PPT <b>독도의 하루</b> <a href="http://youtu.be/TTQh28JYrWk">http://youtu.be/TTQh28JYrWk</a>  아이들에게 설문조사 베스트 5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고 맞춰보게 한다
	문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독도, 그곳이 궁금하다’에서 초등학생 120명이 독도에 대해 궁금한 것 베스트 5를 알아 봅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li> <li>○ ‘독도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를 발표하겠습니다.</li> <li>○ 다같이 읽어 볼까요?</li> <li>○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5위: 독도의 이름?</li> <li>4위: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는?</li> <li>3위: 독도는 언제 어떻게 생겼나?</li> <li>2위: 독도에 사람이 사나?</li> <li>1위 : 일본은 왜 독도를 탐내나?</li> </ul>		
	학습 목표 확인	◆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궁금한 것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고, 독도 홍보 뱃지를 꾸며 보자.			
전개	활동1	<b>[독도, 그곳이 궁금하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를 5단계 O,X 퀴즈를 통해 배워봅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PPT를 보며 5단계 OX퀴즈를 맞춰가며 독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익혀 나간다.</li> </ul>	30'	PPT, 메모지

학습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발문 및 활동(○)	아동 활동 및 예상 반응(▷)		
전개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의 이름은 왜 독도인가?</li> <li>○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근거는 무엇인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인 근거를 알아봅시다.</li> <li>○ 독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나요?</li> <li>○ 독도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나요? (독도의 탄생과 자연환경 애니메이션 보기)</li> <li>○ 일본은 왜 독도를 탐낼까요? 독도의 가치에 대해 알아볼까요?</li> <li>○ 5단계 OX퀴즈의 최종 정답을 알아볼까요?</li> <li>○ 일본이 이미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문서 이름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로 만든 섬이라는 뜻입니다.</li> <li>▷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우며, 역사적으로 512년 이래로 우리 영토로 인식해 왔고, 대한제국 칙령등을 통해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li> <li>▷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있으며, 주민 2분, 독도 경비대원, 등대원 등이 살고 계십니다. 관광객도 많습습니다.</li> <li>▷ 독도는 450만년전 바다 밑에서 많은 화산활동으로 생겨났습습니다.</li> <li>▷ 독도는 경제적으로도 수산자원, 미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li> <li>▷ 정답은 '태정관문서'입니다.</li> <li>▷ 태정관문서 부속지도 '기죽도약도'까지 발견되어 확실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li> </ul>	30'	<p>PPT &lt;애니메이션&gt; 독도의 탄생과 자연환경 <a href="http://youtu.be/su7ZLm03oZA">http://youtu.be/su7ZLm03oZA</a> (독도의 자연환경 및 탄생 관련 만화)</p> <p>&lt;동영상보기&gt; 독도 스타일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I2Y2Y4pGdaM&amp;feature=youtu.be">http://www.youtube.com/watch?v=I2Y2Y4pGdaM&amp;feature=youtu.be</a> (독도의 사람들 관련 동영상)</p> <p>EBS 지식채널 그들의 논리 <a href="http://youtu.be/ettYBySLKg">http://youtu.be/ettYBySLKg</a> (일본은 왜 독도를 탐낼까 관련 동영상)</p>
	활동2	<p><b>[독도를 부탁해] 뱃지 꾸미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를 부탁해' 독도 홍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인 독도 홍보 뱃지 꾸미기를 해 봅시다.</li> <li>○ 뱃지를 꾸민 후 자기가 그린 뱃지를 친구들 앞에서 소개해 봅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를 상징하는 것이나, 독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머릿속으로 구상해 본다.</li> <li>▷ '아침의 섬, 독도' 라고 쓴 이 뱃지는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li> </ul>		<p>그리기 뱃지 네임펜</p> <p>그리기 학습지 그리기뱃지가 없을 경우에는 종이에 독도 홍보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색연필, 싸인펜)</p>
정리	학습 내용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해결하면서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li> <li>○ 독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가 화산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li> <li>▷ 태정관문서와 기죽도약도라는 문서를 알게 되었고, 일본이 이미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증거를 알게되어 좋습니다.</li> <li>▷ 독도를 홍보하는 글이나 광고를 만들어 인터넷에 홍보하기/ 독도에 관심갖고 책 읽기 / 경비대원아저씨께 편지쓰기 등</li> </ul>	10'	<p>자유롭게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p> <p>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동들이 스스로 찾아 실천해 보게 한다.</p>

## 역사속의 독도 지킴이 (초등-고학년-역할극)

본시 주제	독도 주변 해저 지명, 독도 신주소에 나타난 독도 지킴이들의 업적과 일화를 알아보고 역할극으로 꾸미기	
학습 목표	독도 역사속의 인물 '이사부', '안용복'의 업적과 일화를 역할극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동영상(링크), ppt
	학생	역할극 학습지
참고 문헌 및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왕조실록 (숙종, 안용복) <a href="http://sillok.history.go.kr/ur1.jsp?id=kksa">http://sillok.history.go.kr/ur1.jsp?id=kksa</a></li> <li>• 사이버독도역사관 (독도위인전) <a href="http://www.dokdohistory.com/history_hole/main.asp">http://www.dokdohistory.com/history_hole/main.asp</a></li> <li>• 독도부교재 (초, 중, 고 독도부교재) <a href="http://contents.nahf.or.kr/eddokviewer/item.do">http://contents.nahf.or.kr/eddokviewer/item.do</a></li> <li>• 동아시아역사인물 안용복, 동북아 역사넷 <a href="http://contents.nahf.or.kr/id/NAHF.isgi_001">http://contents.nahf.or.kr/id/NAHF.isgi_001</a></li> <li>• 동아시아역사인물 이사부 <a href="http://contents.nahf.or.kr/id/NAHF.isgi_004">http://contents.nahf.or.kr/id/NAHF.isgi_004</a></li> <li>• 이사부와 우해왕 이야기(애니메이션) <a href="http://youtu.be/teIY4BCMOMM">http://youtu.be/teIY4BCMOMM</a></li> <li>• 안용복 이야기 (애니메이션) <a href="http://youtu.be/NsE6G6k0TKs">http://youtu.be/NsE6G6k0TKs</a></li> </ul>	

학습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발문 및 활동(○)	아동 활동 및 예상 반응(>)		
도입	<p><b>동기 유발</b></p> <p>○ '역사속의 독도 지킴이 그곳에 살고 있다?!' 라는 문장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p> <p>○ 독도 주변 바다의 '해저지형'을 화면으로 봅시다. 해저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은?</p> <p>○ 독도 도로명 주소 관련 뉴스 영상을 봅시다. 독도 도로명 주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은?</p> <p>○ '세종로', '을지로'와 같은 서울의 도로명은 유명한 인물의 이름(세종대왕, 을지문덕)을 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도와 관련하여 도로명 주소에 나오는 인물들은 독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p>	<p>&gt; 실제로 역사속 독도 지킴이가 살고 있을 수 있는지 궁리해 본다</p> <p>&gt; 이사부, 안용복, 심흥택입니다.</p> <p>&gt; 이사부와 안용복입니다.</p> <p>&gt; 이사부와 안용복 모두 독도 해저 지명에도 들어 있고, 독도의 새로운 주소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독도와 관련이 깊은 인물 인 것 같습니다.</p>	7'	PPT	<p>독도 도로명 주소 관련 뉴스자료</p> <p><a h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308446">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308446</a></p>
	<b>학습 목표 확인</b>	<p>◆ 독도 역사속의 인물 '이사부', '안용복'의 업적과 일화를 역할극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p>			
전개	<p><b>활동1</b></p> <p>[역사속 독도 지킴이 알아보기]</p> <p>○ '이사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p> <p>○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사부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p>	<p>&gt; '독도는 우리땅' 노래에서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p> <p>&gt; '이사부와 우해왕 이야기'를 시청한다.</p>	25'	PPT	<p>이사부와 우해왕 이야기 애니메이션</p> <p><a href="http://youtu.be/teIY4BCMOMM">http://youtu.be/teIY4BCMOMM</a></p>

학습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발문 및 활동(○)	아동 활동 및 예상 반응(▷)		
전개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보고 느낀점을 발표해 봅시다.</li> <li>○ 이사부의 주요한 업적은 무엇인가요?</li> <li>○ 안용복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li> <li>○ 안용복 관련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합시다.</li> <li>○ 안용복의 주요한 업적은 무엇입니까?</li> <li>○ 그 밖의 인물로 조선시대 400여년간의 공도정책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 검찰사 이규원과 공식적으로 '독도'라는 용어를 문서에서 처음 사용한 울릉 군수 심흥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부가 꾀를 내어 우산국을 점령한 것이 인상깊습니다.</li> <li>▷ 우산국을 점령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512년에 우리 영토로 만든 것입니다.</li> <li>▷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li> <li>▷ '안용복 이야기' 동영상을 시청한다.</li> <li>▷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어부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일본에게 항의하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li> <li>▷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과 울릉군수 심흥택도 꼭 알아두어야 할 독도 지킴이네요.</li> </ul>	30'	<p><b>안용복 이야기</b>  <a href="http://youtu.be/NsEGGkOTks">http://youtu.be/NsEGGkOTks</a>  위 참고 사이트에 나오는 다양한 안용복 관련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다.</p> <p><b>사이버독도역사관 (독도위인전)</b>  -이사부, 안용복, 이규원  <a href="http://www.dokdohistory.com/history_hole/main.asp">http://www.dokdohistory.com/history_hole/main.asp</a></p>
	활동2	<p><b>[역할극 준비하고 발표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우산국을 굴복시킨 이사부의 지혜&gt;.&lt;안용복의 독도 사랑&gt; 두 가지 역할극을 모둠별로 각각 선택하여 역할을 나누고 역할극을 준비하여 봅시다.</li> <li>○ 역할극 대본을 외울 수 없는 경우는 대본을 보고 하여도 무방합니다.</li> <li>○ 모둠별로 역할극을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명이 한 모둠이 되어서 역할극 대본을 선택한 후, 각자 역할을 맡아 대본 읽기 및 동작 연습을 한다.</li> <li>▷ 대본의 대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다.</li> <li>▷ 역할극에 집중하여 발표를 듣는다.</li> </ul>		<p><b>역할극 학습지</b>  학습지 1-우산국을 굴복시킨 이사부의 지혜  학습지 2- 안용복의 독도 사랑</p> <p>역할극의 대본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정리	학습 내용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극을 하고, 다른 모둠의 발표를 보면서 느낀점을 발표해 봅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극이 재미있었고, 열심히 잘 참여하였다.</li> <li>▷ 역할극을 통해 '이사부'와 '안용복'의 업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li> </ul>	8	<p>역할극을 하고 난 후의 느낌을 친구들과 나누다.</p> <p>즐겁게 퀴즈 맞히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p>
	학습 내용 정리	<p><b>[내용 정리 퀴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할 때 꾀를 내어 나무로 만들어배에 싣고 가서 풀어 놓아 짓밟는다고 위험한 동물은?</li> <li>○ 태종이라고 불리며, 512년 우산국을 복속 시킨 사람은?</li> <li>○ 일본이 우리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부의 서계를 받은 사람은?</li> <li>○ 역할극을 통해 재미있게 우리 역사속의 독도 지킴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자입니다.</li> <li>▷ 이사부입니다.</li> <li>▷ 안용복입니다.</li> <li>▷ 역사속의 독도 지킴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li> </ul>		



# 역사속의 독도지킴이



( )학년 ( )반 ( )번 이름 ( )



다음의 역할극 대본을 보고, 모둠에서 역할을 정하여 역할극을 꾸며 봅시다.

## < 우산국을 굴복시킨 이사부의 지혜 > 역할극 대본(1모둠-4인)

**해설:** 이사부는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우산국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 시키기는 어려워 애가 탔다.

**이사부:** 우산국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어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구나.

**신하1:** 그렇사옵니다. 장군님. 저자들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항복할자들이 아니어서 큰 일입니다.

**이사부:** 음~ 힘으로 안된다면..... 울커니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이리와 보거라

**이사부, 신하1, 신하2:** 쑥덕쑥덕, 이러쿵 저러쿵 (긋속말로 속닥속닥)

**신하2:** 장군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산국으로 배를 띄울까요?

**이사부:** 그래. 내가 이른대로 배에 사자를 나무로 만들어 실었겠지?

**신하1:** 네, 북과 나각도 준비하여 사자 소리를 내게 하였고, 주둥이 부근에서는 화염도 뿜을 수 있게 준비하여 두었습니다.

**해설:** 나무로 만든 사자를 뱃머리에 여러마리를 둘러두고 우산국으로 배는 떠났고, 드디어 우산국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사부 장군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사부:** 우산국 백성은 듣거라.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사자들을 모두 풀어서 너희 우산국을 쑥대밭을 만들겠다.

**해설:** 사자 주둥이에 불을 붙여 내뿜게 하고, 북과 나각으로 괴물 소리를 내니 처음보는 무서운 광경과 소리에 우산국 사람들은 모두 놀라 당황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신하2:** 하하하.. 우산국 백성들이 모두 항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신하1,2:** 지혜로우신 이사부 장군님 만세!!



**태장군(신라장군 이사부)**  
신라시대 복장을 착용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는 이미지를 밝고 명량하게 표현함



# 역사속의 독도지킴이



( )학년 ( )반 ( )번 이름 ( )



다음의 역할극 대본을 보고, 모둠에서 역할을 정하여 역할극을 꾸며 봅시다.

## < 안용복의 독도 사랑 > 역할극 대본 (4~5인 1모듬)

**해설:** 동래지역의 어부인 안용복과 박어둔을 비롯한 몇 명의 어부들은 곧잘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해오고 있었다. 오늘도 울릉도 부근으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

**안용복:** (흥분해서) 아니, 이보게 저것들을 좀 보게나. 오늘도 일본 어부들이 저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군. 안되겠네. 내 오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조선어부1 :** 맞아. 그렇게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말라고 일렀거늘.. 네 이놈들!!

**안용복, 어부1:** 이놈들.. 이곳은 조선 땅이니 썩 물러가라. 어서!!

**일본어부 :** 무슨소리! 이곳은 우리가 고기잡이를 하던 곳이다. 일단 이들을 오키섬으로 잡아가자.

**해설:** 여러명의 일본어부들에 의해 안용복 일행은 일본 오키섬으로 잡혀가게 되었다.

**안용복:** 이보시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며 남의 땅에서 고기잡이를 한 것은 일본 어부들이오. 이렇게 나를 잡아오면 안되는 것이란 말이오. 앞으로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오.

**일본관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 우리 관백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서계)를 작성하여 드리리다.

**해설:** 그러나 막부의 서계는 조정에 전해지지 못하고 대마도주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안용복은 몇 년후 다시 한번 일본에 가서 엄중하게 항의하였고, “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는 일본 막부의 약속을 받아 냈다.



독도 프로젝트 “독도, 그곳이 알고 싶다”
독도 프로젝트를 마치며
의정부용현초등학교 6학년 ( ) 반 이름 ( )

★ 독도 프로젝트를 마치는 느낌을 적어 봅시다.

1. 알게 된 점:
2. 느낀 점:
3. 독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독도 프로젝트 “독도, 그곳이 알고 싶다”
만약에...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의정부용현초등학교 6학년 ( ) 반 이름 ( )

★ 만약에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림과 글로 나타내시오.




---



---



---



---



---



---

## 초등 수업 활용 사례 발표 2>>

###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활용한 평화 교육 -

#### I. 들어가는 말

이번 수업은 초등학교에서 일본군'위안부'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자칫 일본군'위안부' 이야기가 초등학생들에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 중에 강제 동원되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아픈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며, 이러한 역사를 통해 교훈과 배움점을 찾을 수 있다면 훨씬 의미미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아이들이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일양국이 서로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미래세대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평화 교육 및 인권 교육의 측면에서 태평양 전쟁에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여 보았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계에서는 서로 화해하고 공존하며 평화와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평화나비 꾸미기'나 '위안부 할머니께 힘이 되는 한 마디'를 적어보며 내면화 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 II. 수업 사례 발표

##### 1. 수업의 개요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평화란 어떤 걸까' 라는 한중일 평화 그림책으로 시작하였고, 평화가 단순히 전쟁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마다 깃들여 있다는 것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평화롭지 못한 시기에 겪었던 사례로 일본군'위안부'의 사례를 함께 공부한다.

수업의 끝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궁극적인 바람이 무엇일까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에 대해 ‘평화나비 꾸미기’, ‘위안부 할머니께 힘이 되는 한마디’ 활동을 통해 표현해 보았고, 수업후의 느낌을 발표한다.

## 2. 학습목표

- 1) 식민지배 당시 전쟁에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해 알아본다.
- 2) 평화와 인권에 대한 생각이나 다짐을 ‘평화나비’ 꾸미기로 표현해 본다.

## 3. 대상 및 특성

### - 의정부용현초등학교 6학년 5개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6학년 1학기에 역사를 배우게 된다.  
(2009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은 역사 수업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배웠고, 일제 강점기에 ‘전쟁에 동원된 우리민족’이라는 주제로 징병, 징용, 물자 수탈등에 대해 배웠다.

일본군‘위안부’는 직접적으로는 기술되지 않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젊은 여성들도 전쟁에 동원되어 피해를 입었다”정도로 서술되고 있다.

한 학급 28명의 아동 중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안다고 말한 아이들은 3~4명에 불과했고, 그 아동들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뉴스나 인터넷 뉴스등을 통해 들었고, 1~2명은 책을 통해 들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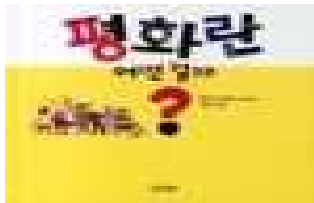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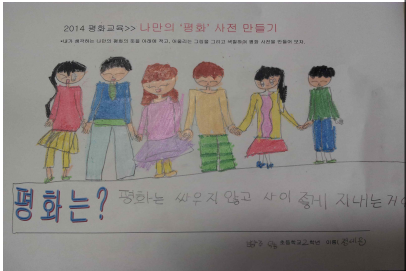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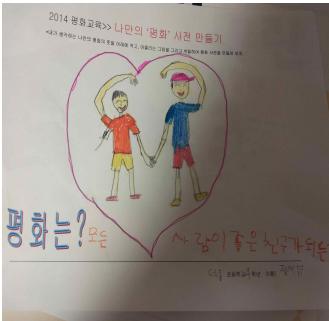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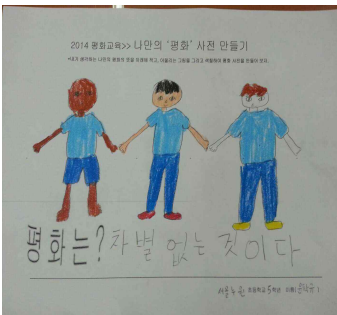

## 4. 교과 및 단원

- 창의적 체험활동, 평화와 인권교육(5,6학년)
- 사회 2-4. 국권상실과 민족의 수난 (6학년)

## 5. 수업 세부 내용

### 1) 동기 유발

“평화란 어떤걸까”(한중일 공동기획 평화그림책 03)를 활용하여 ‘평화’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단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주위환기	⇒ '평화란 어떤 걸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색은? -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은? - 초등학교생들의 평화사전 동영상 보기 - 동영상을 보고 난 후의 생각 말하기 ⇒ 평화롭지 못한 시기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오늘 공부에 보려고 한다.	⇒ 평화에 대한 생각 자유롭게 발표하기 - 하얀색, 초록색, 파랑색 등 - 비둘기, 강아지 등 - 평화는 신나는 노래라고 한 것이 기억 에 남는다. 평화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평화사 전 동영상		
				한중일 평화 그림책 03) 일본판 표지 하마다 게이코 지음	한중일 평화그림책 03) 평화란 어떤걸까? 하마다 게이코 지음	평화는 싸우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는 거야
				평화는 모든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것	평화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평화는 북한과 남한이 노력하여 민족 통일을 하는 것

## 2) 수업 목표 제시

- ① 식민지배 당시 전쟁에 동원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알아본다.
- ② 평화와 인권에 대한 생각이나 다짐을 '평화나비'꾸미기로 표현해 본다.

## 3) 수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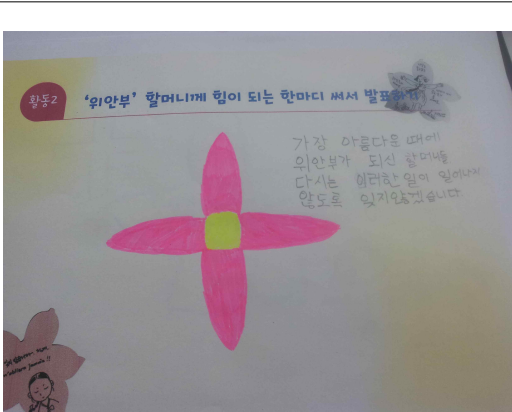
단 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전 개 1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알아보기 “사라진 소녀” 동영상 보기 ① 일본군 '위안부'는 누구인가? - 일본군 성노예 -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②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생활 - 처참하고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인권을 유린 당함 ④ 용기있는 외침과 현재생활 - 일본군'위안부' 관련 최초 증언 알아보기 - 할머니들의 현재 모습 - 수요시위	-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 당한 여성 -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남을 치욕과 수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에 대해 알아보기 - 매주 수요일 정오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림.	* PPT **사라진 소녀' 동영상
전개 2	평화와 인권	⇒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담은 '평화 나비' 꾸미기를 해 봅시다.	-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목숨도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평화와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평화 나비 꾸미기	* 평화 나비 학습지 *색연필, 싸인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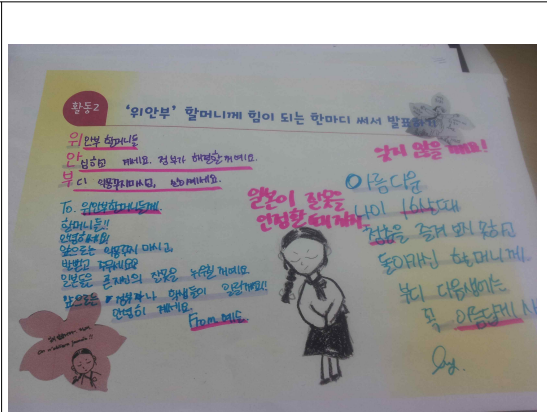
평화사진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평화 나비 꾸미기를 하고 발표하는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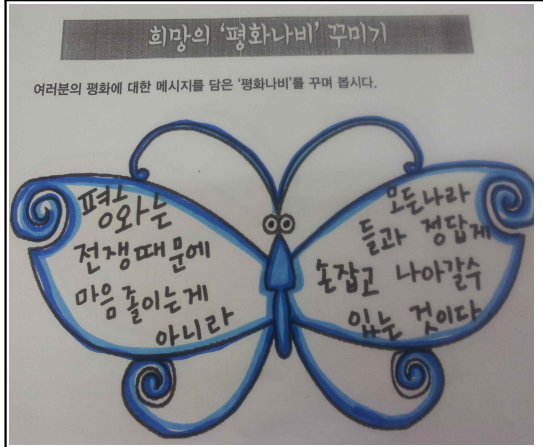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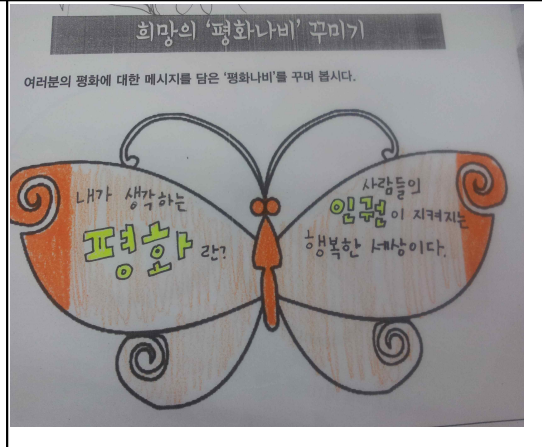


가장 아름다운 때에 위안부가 되신 할머니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들 앞으로는 악몽 꾸지 마시고, 발 뺀고 주무세요. 앞으로는 정부와 학생들이 알릴게요.

#### 4) 수업 정리

정리	느낌 나누기	⇒ 평화 나비 꾸민 것 발표하기 ⇒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세상은?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 평화 나비에 쓰여진 평화 메시지 소개하기 ⇒ 평화와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 ⇒ 편지쓰기, 수요시위 참석, 관련 책읽기	*평화나비 완성작품 *PPT
				
평화는 전쟁 때문에 마음 졸이는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과 정답게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란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행복한 세상이다.		

## 5) 수업후 아동들의 반응

-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방학이 되면 수요시위에 참여해 보고 싶다.
- 다른 사람의 목숨과 인권에 대해 존중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
-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것이다.
- 평화로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한민족이 하나가 된 세상, 모두가 즐거운 세상이다.
-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런 고생과 아픔을 겪으셨구나 생각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다. 감사해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지켜 나갈게요.
- 이 공부를 하니가 평화가 뭔지 알아서 좋았다. 앞으로 평화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
- 이번 수업을 하면서 위안부가 얼마나 슬픈 것인지 실감이 났다. 나는 현재 전쟁중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쪽 전쟁이 나지 않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 오늘 위안부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일본군에게 당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 Ⅲ. 나가는 말

수업전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 초등학교 6학년 5개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례를 활용한 평화 수업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잘 발표하였다.

일본군‘위안부’피해 사례를 처음 접해 보는 아동들이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호기심도 많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에 깊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화란 전쟁을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협력해 나갈 때 실현되는 것임을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초등 수업 활용 사례 발표 3>>

###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 퀴즈와 게임으로 배우는 고구려-

#### 2. 수업 개요

이 수업안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2-3.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의 교류 단원의 “우리나라가 중국과 갈등을 겪는 사례” 중에서 중국의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을 퀴즈와 게임을 통해 배우고 싶어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수업안 2쪽. 설문조사 결과 참조)에 의해 이번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수업은 2차시(80분. 연속 차시)로 이루어지며, 1차시에는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을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의 대응 논리를 공부한다. 2차시에는 게임과 퀴즈 -삼족오 게임, 고구려에서 보물 찾기 게임-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아동의 참여를 통해 재미있게 즐겁게 익혀본다.

이 활동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우리 역사왜곡에 대해 알 수 있고, 이에 대응한 논리를 배워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인식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넷의 ‘동북공정’ 부분을 도입과 정리부분, 심화학습(과제학습)에서 함께 다룬다.

#### 3. 학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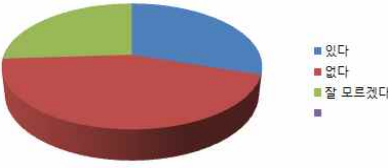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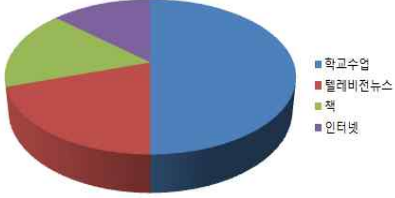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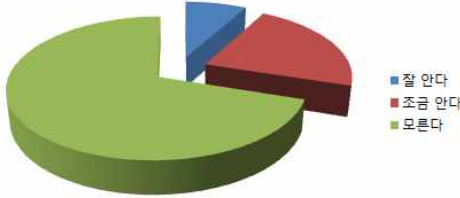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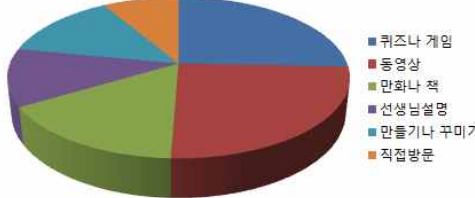
중국에 의한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해 알아보고,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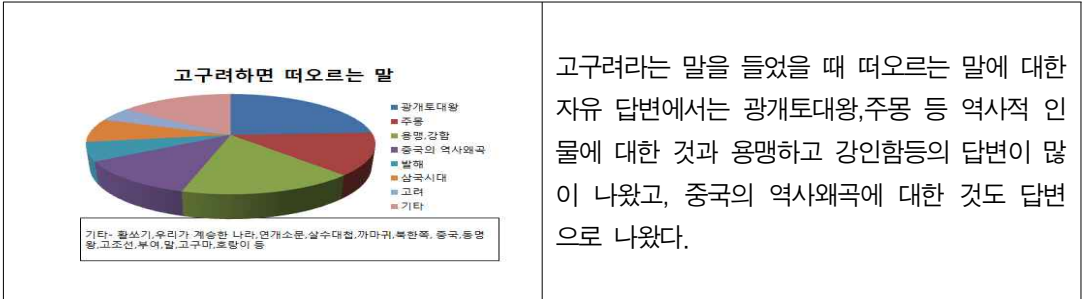
#### 4. 기대 효과

- 1)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 역사 왜곡과 관련한 지식을 배워서 알 수 있다.
- 2) 동북아역사넷의 ‘동북공정’ 자료를 활용하여 도입, 정리 부분에 적용하고, 심화 내용은 과제 학습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3)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고구려 역사 전반에 대한 것을 “삼족오 퀴즈 게임”을 통해 즐겁게 참여하며 배울 수 있다.
- 4) 고구려가 우리 역사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구려에서 보물찾기”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 5. 사전 설문조사

1) 대상 : 의정부용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    2) 시일 : 2015. 11. 23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동북공정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p><b>1. 동북공정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b></p>  <p>■ 있다 ■ 없다 ■ 잘 모르겠다</p>	<p><b>1-1. 동북공정에 대해 듣게 된 경로</b></p>  <p>■ 학교수업 ■ 텔레비전뉴스 ■ 책 ■ 인터넷</p>
<p>동북공정에 대해 들어본적 있는 아동은 전체의 30%, 나머지 70%의 아동은 없거나 잘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동북공정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p>	<p>1번에 1(들어본적 있다)로 응답한 30명중 절반인 15명이 학교 수업을 통해 듣고, 그 외로는 tv나 책, 인터넷을 통해 들었다고 함. 개정된 교과서에 중국의 역사왜곡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보여진다.</p>
<p><b>2. 동북공정에 대해 아는가?</b></p>  <p>■ 잘 안다 ■ 조금 안다 ■ 모른다</p> <p><small>동북공정에 대해 아는 내용 (잘 안다/ 조금 안다) -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덩샤오핑, 동북공정이라는 같은 표지지만 달리는 것은 안다. 구글링을 중국 땅이라고 한 단어인 구글링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고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드는 것. 중국이 구글링의 옛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우기는 것.</small></p>	<p><b>동북공정에 대해 공부할때 배우고 싶은 매체</b></p>  <p>■ 퀴즈나 게임 ■ 동영상 ■ 만화나 책 ■ 선생님 설명 ■ 만들기나 꾸미기 ■ 직접방문</p>
<p>동북공정에 대해 잘 알거나 조금 안다고 답변한 학생수는 30%이며 70%의 학생이 모른다고 답변함.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p>	<p>동북공정을 배울 때 배우고 싶은 매체를 묻는 질문에서 <b>퀴즈나 게임이 42%</b>, 동영상 시청과 직접 방문 체험이 각각 41%, 만화나 책이 26%, 만들기나 꾸미기가 22%, 선생님 설명이 19% 순으로 답변되었다.</p>



고구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말에 대한 자유 답변에서는 광개토대왕, 주몽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것과 용맹하고 강인함등의 답변이 많이 나왔고,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것도 답변으로 나왔다.

##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퀴즈와 게임으로 배우는 고구려)

본시 주제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에 대해 알아보고,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정확히 인식한다.		
학습 목표	중국에 의한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해 알아보고,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동북아 역사넷 웹사이트(링크), 동북공정 관련 ppt, 삼족오 게임 ppt, 고구려에서 보물 찾기 게임(나모웹에디터 프로그램)	
	학생	필기도구	
참고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역사넷 <a href="http://www.nahf.or.kr/on_media/content/04/main.html">http://www.nahf.or.kr/on_media/content/04/main.html</a> (동북공정)</li> <li>• 동북공정, 그 숨겨진 실체를 밝힌다. <a href="https://youtu.be/RS2UpbGVuRA">https://youtu.be/RS2UpbGVuRA</a></li> <li>• 동북공정의 대안, 서희 <a href="https://youtu.be/V5kCNTnEhvc">https://youtu.be/V5kCNTnEhvc</a></li> </ul>		

학습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니메이션 삽화 보며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한국 캐릭터가 서로 고구려가 자기 나라 역사라고 주장하는 내용</li> <li>- 중국이 고구려 문화유산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li> </ul> </li> <li>○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구려 땅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li> <li>-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다.</li> <li>-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더 많이 알려야겠다.</li> </ul> </li> </ul>	10	PPT -교과서 삽화
	문제 파악 학습 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에 의한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해 살펴보고,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이해할 수 있다.</li> </ul>		
전개	활동1	<p><b>[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은 어떤 것인가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공정에 의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공정이란? (동북아역사넷-동북공정-자기진단)</li> <li>- 고구려 역사 왜곡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li> </ul> </li> <li>‘동영상’ 보기 (동북공정, 그 숨겨진 실체를 말하다)보고, 생각과 느낌을 말해보자</li> <li>○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동북3성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지배력 강화, 통일이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li> <li>○ 중국의 역사 왜곡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민족의 뿌리, 정체성을 없애고, 왜곡하는 문제</li> </ul> </li> </ul>	30'	PPT  동북아역사넷-동북공정-자기진단 문지 풀기  동영상 링크 <a href="https://youtu.be/RS2UpbGVuRA">https://youtu.be/RS2UpbGVuRA</a>  (동북공정 그 숨겨진 실체를 말하다.)
	활동2	<p><b>[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의 대표적인 내용을 알아보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구려를 세운 사람들은 중국과 같은 민족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구려를 처음 세운 시조는 누구인가? 주몽</li> </ul> </li> </ul>		



2016.8.5 '2016년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연수 - 수업 방법 토론

**토론 주제 : 초등학교에서 한중일 관련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부주제 예시))
- 1)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효과적인 수업 방향은?
  - 2) 수업 도입, 전개, 정리 부분에서의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체험적인 활동은?
  - 3) 실생활과 연관지어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방법은?
  - 4) 학교 및 학급 상황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토론 결과>>**

## 역사속의 독도 지킴이

- '이사부'의 지혜.
- '안용복'의 용기.



신라장군 이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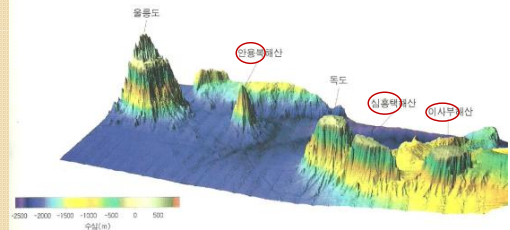


민간외교관 안용복

그림출처: 경상북도 사이비 독도 홈페이지

## 독도 역사속의 인물, 그곳에 살고 있다?

- 독도 주변 해저 지형



## 독도 역사속의 인물, 그곳에 살고 있다!

- 우리 땅, 독도에 새주소 생겼다!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308446](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308446) (2011.6.11. KBS 뉴스광장)



## 독도 역사속의 인물, 그곳에 살고 있다!!

독도로 편지를 보낼때, 도로명 주소로!

- **동도** : 독도 경비대원 아저씨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55번
- **서도** : 독도 이장님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안용복길** 3번

## 오늘의 미션(Mission)!!

- 독도 역사속의 인물 '이사부', '안용복'의 업적과 일화를 역할극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신라 장군 '이사부'



이사부 표준영경 사진

- <이사부와 우해왕 이야기> 애니메이션 보기
- 태종(蔣宗)이라고도 한다. 성은 김씨로 내물왕의 4대손이다. 거칠부와 함께 진흥왕을 도와 영토확장에 큰 공을 세움.

이사부 (태장군)



### 이사부 장군과 나무 사자

- 울릉도와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어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다.



삼척시 '이사부 사자공원' 나무사자상

삼국사기 우산국 복속 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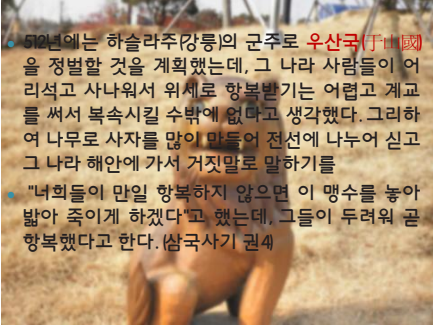
삼국시대 지명



출처: 동북아역사넷 역사교과

### 이사부 장군의 지혜


- 512년에는 하슬라주(강릉)의 군주로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할 것을 계획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세로 항복받기는 어렵고 계교를 써서 복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가서 거짓말로 말하기를
-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놓아 밧아 죽이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두려워 곧 항복했다고 한다. 삼국사기 권4



### 조선 어부 출신 민간 외교가 안용복

- 안용복 - 조선 동래부(부산지역) 출신 어부이자 민간 외교가.
- 조선 숙종때 두 차례(1693년, 1696년)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 막부로부터 확인 받음.

안용복 관련 애니메이션 보기




안용복 (안장군)

### 안용복, 일본에 잡혀 가다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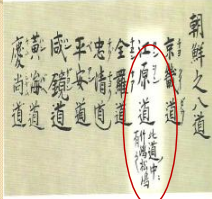
출처: 동북아역사넷 역사교과

### 안용복, 2차 일본 방문 (1969)



출처: 동북아역사넷 역사교과

## 안용복의 활약



안용복이 일본에 두번째로 건너갈 때(1696년) 가져간 문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의 강원도(江原)에 속하고 있음이 표기됨.

일본 시마네현의 한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공개됨.

##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 열다!

### · '독도 수호신' 안용복 활동상 한눈에

(경북도민일보, 2013.10.10)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88>



울릉도 안용복 기념관 전경 및 조형물

## 울릉도 '안용복 기념관' 둘러보기



## 조선시대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울릉도 검찰 일기

1882년(고종19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은 울릉도를 검찰. "울릉도 검찰 일기" 씌. 고종은 그동안(400년간)의 채출정책(섬을 비워둠)을 버리고 울릉도 개척을 명함.

울릉군 서면 학포 마을 쪽으로 섬에 들어와서 섬을 육로 및 배로 돌아보고 돌아가 고종에게 보고함.

## 이규원 검찰사가 새긴 암각문



울릉도 학포 마을 소재. 검찰사 이규원 과 함께 수행한 세 명의 관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 울릉군수 '심흥택'

-울릉도 2대 군수 심흥택은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조정에 보고하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보고서를 받은 조정에서는 일본인의 주장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당시는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황이라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1906년 심흥택의 보고를 받은 후 작성한 춘천군수 이명래의 호외보고서

**\* 역할극으로 표현해 봅시다.\***

4~5인이 한 모듬이 되어, 다음 두 가지 대본 중 한 개를 골라서 역할극으로 표현해 봅시다.

1. 우산국을 굴복시킨 이사부의 지혜
2. 안용복의 독도사랑

**퀴즈! 풀자!**

태종이라고도 불리며 신라 지증왕때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복속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이사부

**퀴즈! 풀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할때 이사부가 꾀를 내어 나무로 만든 사나운 이 동물은 무엇인가?

사자

**퀴즈! 풀자!**

조선 동래 지역의 어부로서 일본에 건너가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는 서계를 받아낸 사람은?

안용복

**퀴즈! 풀자!**

1906년에 일본관료로부터 독도가 일본에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되어 조정에 이것을 보고한 당시 울릉 군수의 이름은?

심흥택



### 평화란 무엇일까요?

**평화**

-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는 것
-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는 것
- 마음껏 뛰어 놀고 아침까지 폭 지는 것
-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 전쟁을 하지 않는 것

**평화란 어떤 걸까?**  
출처: 평화란 어떤 걸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초등학생들의 평화이야기**

평화가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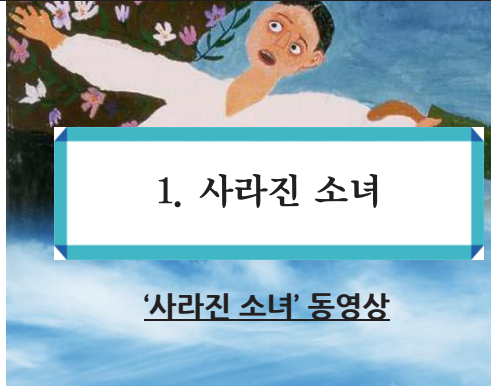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는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일본군 '위안부'**

**오늘 배울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아보고, 힘이 되는  
한마디를 글로 써 보자.**



**1. 사라진 소녀**

**'사라진 소녀' 동영상**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전쟁터에 강제 동원되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




**2.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난,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쟁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전쟁 물자를 빼앗아 갔어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신사 참배 강요



강제 동원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로, 속아서, 협박과 폭력을 당해 끌려 갔어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요된 삶



-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요했어요.
- 변호로 불리기도 했어요.
- 자유가 없었어요.
- 매일 폭력에 시달리거나 성폭력을 당했어요.
-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인선)  
(2014 프랑스 앙골렘 국제 만화 전시회 출품작)



### 3.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 공개 증언 그 후

“할머니, 당신의 용기가 아름답습니다.”



-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 할머니의 공개 증언은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 그 후 할머니들의 활동으로 피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 공개 증언 그 후

- 수요집회 1992년 1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 시작
- 피해 신고 접수 1992년 2월 정부의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 시작
- 법률 제정 1993년 6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률 제정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 집회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는 수요집회 23주년, 1160차(2015.1.7.)

### 할머니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살고 계세요.



- 아직도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후유증 등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 몸이 불편하셔도 할머니들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려 주십니다.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 평화비 (평화의 소녀상)

- 가장 잘린 머리카락 : 부모와 고향과 강제로 떨어진 소녀를 나타냅니다.
- 어깨 위의 작은 새 : 돌아가신 할머니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새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 소녀의 꼭 짚 두 손 :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와 우리의 다짐을 나타냅니다.
- 빈 의자 : 먼저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이분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 발꿈치가 들린 맨발 : 고향에 돌아와도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 그림자 : 조각의 모습은 소녀의 형상인데 소녀의 그림자는 할머니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지금 현재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 더 알아 보고 싶을 때 찾아봐요.

<b>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b> 	<b>일본군 '위안부' 역사관</b> 
<b>전쟁과여성인권역사관</b> <small>(사)한국형사대문제·비폭력피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small>	<b>국립여성사전시관</b> <b>국립여성사전시관</b>

## 4. 할머니들에게 평화를!

### 잠깐 생각해보기

“세계에서 단일주제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집회”

### 우리의 바람

- 일본의 명확한 사실 인정, 진심 어린 사죄와 역사교육이 필요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랍니다.

###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전쟁이 사라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

햇살 가득한 봄날 - 고 심달연 피해 할머니

활동2

### 수업 전과 후 달라진 것 발표하기



1.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_\_\_\_\_를(을) 할 수 있어요.

2.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_\_\_\_\_를(을) 해야 합니다.



### 수업 마무리



1.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2.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어떻게 끌려갔을까?

3.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